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원다방2



원다방2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 원다방2

발행인 이대엽 · 이종덕  
편집인 노재천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이종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인 쇄 [www.sncf.or.kr](http://www.sncf.or.kr) / [www.snart.or.kr](http://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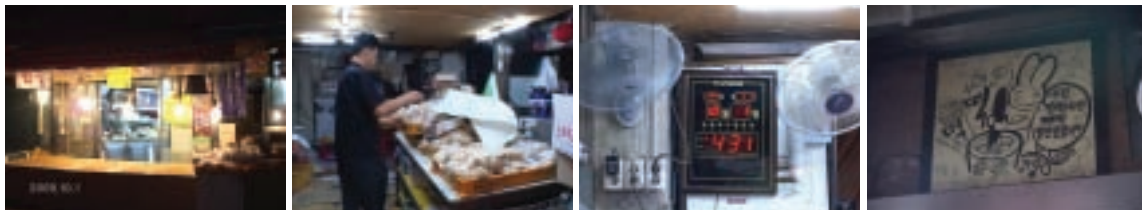
발행일 2010. 2  
글 사진 정혜원  
디자인 새한칼라인쇄  
인쇄 새한칼라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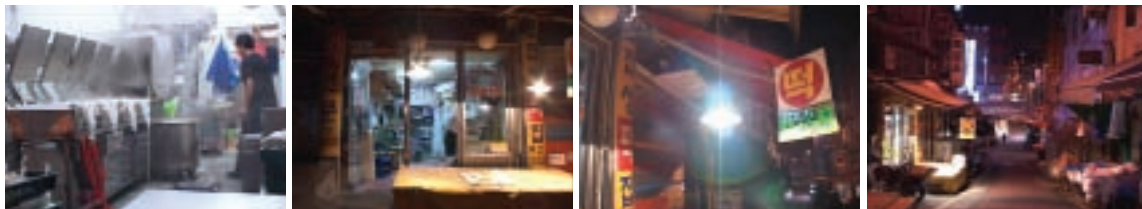


# 상대원 24

- 촬영일자 : 2009년 10월 1 ~ 2일
- 촬영·편집 : 윤혜숙 (사랑마루 영상담당)
- 내레이션 : 장미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국장)



4시 30분  
어둠을 비집고 시장을 밝히는 등이 켜진다.  
올해로 이곳에서 장사를 한지 18년째인 오복떡집은 상대원시장 입구에 자리한 가장 부지런한 상점이다. 이야기가 살아있는 간판 ‘커뮤니콘’에 쓰여 있는 “우리는 접자는 시간 빠면 일한답니다.”라는 문구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정말 딱이다.



4시 40분.  
상대원시장의 큰 축을 이루는 언덕배기 위로 등이 밝다.  
커다란 기계음과 가게 안을 온통 뒤덮은 하얀 연기. 손두부마율이 시장의 아침을 깨운다. 손두부마를 맞은편에 자리한 진성떡집.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추석에 이를 앞 둔 명절 대목. 세 개의 등불이 시장을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7시 30분 어느새 날이 환히 밝았다.  
이곳은 1970년대 초 상대원 공단 노동자들의 삶과 함께하며 성남시의 역사를 일구어온 성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인 상대원시장.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여는 성실함을 자랑하는 시장야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문을 열었다. 아침부터 신발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30여년 전 이곳에 등지를 뜬 평택신발은 구두, 운동화 등 가지각색 신발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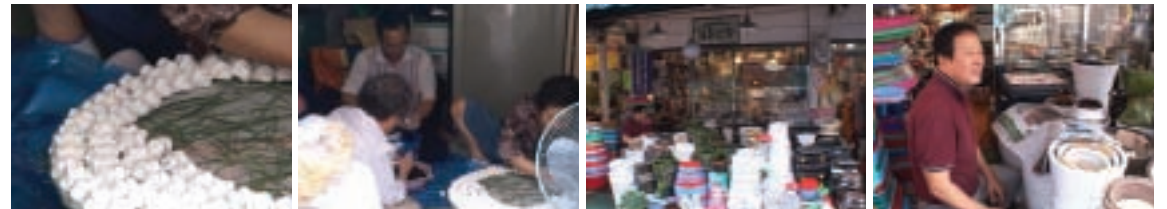


1970년대 초창기 상대원에 자리잡은 쌍둥이 기름고추가게에도 등이 켜졌다. 고추 형상을 한 쌍둥이 등은 지난 2008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통해 예술가가 점포에 달아준 귀한 등이다. 목포수산, 영동건어물, 현대마트.. 상대원시장의 40여개 점포에 각자의 등이 켜지며 개점을 알린다.



8시  
출근하는 시민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분주한 상대원.

9시 이제 대부분의 상점이 영업 준비를 마쳤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부지런한 상인들은 벌써부터 손님을 맞이한다. 떡 한 봉지, 야채 한 근, 두부 한 모, 신발 한 켤레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시장야채, 평택신발과 같은 골목을 공유하는 명인만두도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하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대원떡방아간은 추석이면 근처에 사는 어르신 두 분이 나와 사이좋게 송편을 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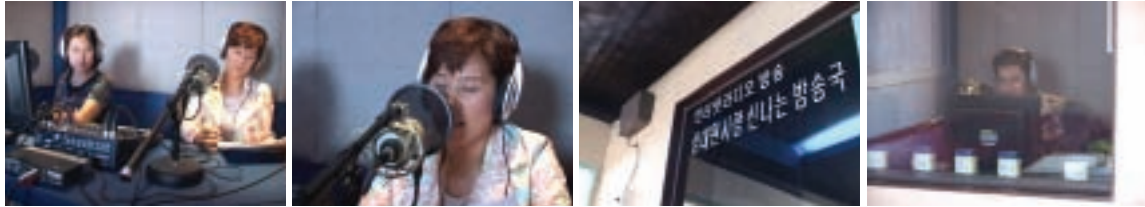
부흥상회 사장님 인터뷰 중  
“우리 명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떡집과 함께 추석 대목 집은 과연 어디일까?  
오복반찬 사장님 인터뷰 중 "맛있으니까 손님이 많지"  
평택신발 옆에 자리한 오복반찬.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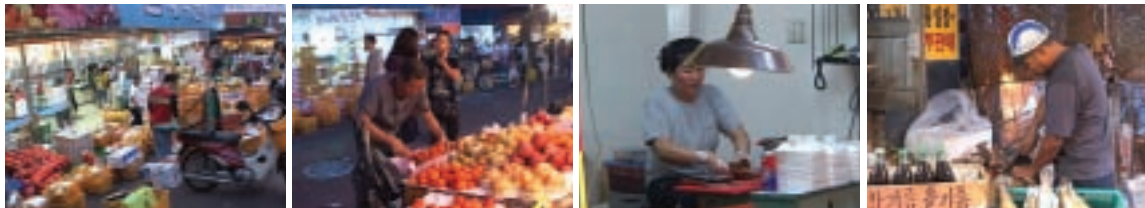
시민 인터뷰 중  
"반찬을 사 먹는 것이 더 경제적"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상대원시장의 정오는 나른하다.  
한바탕 아침의 분주함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 나른한 시장의 오후를 깨우기 위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  
송국의 DJ가 첫 방송을 준비한다. 평택신발 3층에 자리한 상대원시장의 명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  
일 3시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DJ들은 우리 삶 이야기, 재미있는 책 이야기, 신나는 노래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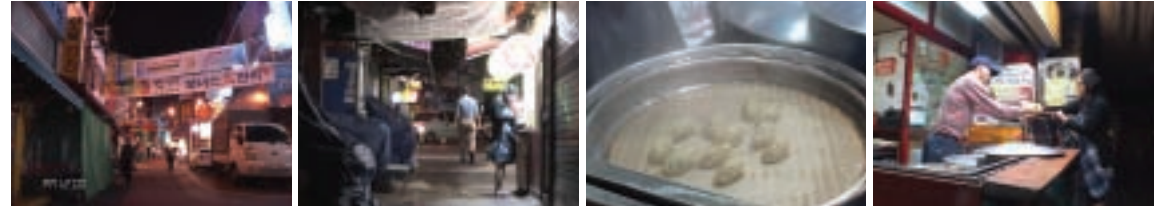
오후 4시, 상대원시장에 다시 활기에 가득하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풍성한 한가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 나선 시민들.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 부인, 자녀까지 가족이 총동원된 시장 상점. 그야말로 명절이다.



복적이든 손님들의 방문은 온갖 걱정과 피곤함을 잊게 한다.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때면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이곳 시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야기다.  
밤잠을 줄여가며 정성껏 다듬고, 만들고, 준비한 상품, 그것을 즐겁게 구입하는 손님, 그리고 그 속에 오고 가는 서로의 정. 이곳의 상인들이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정성을 팔아 신뢰를 저축하고, 상인과 주민이 서로를 의지하  
며 꿈과 미래를 생산하는 삶 자체인 것이다. 휘영청 밝은 달이 상대원시장 위에 떠올랐다. 시장 상인들은 달을 보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밤 12시  
시끄러운 기계음과 상인의 흥정 소리가 사라진 상대원시장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자정까지 장사를 하느라 항상 잠이 모자란 명동만두  
사장님의 손놀림은 아직까지 반듯하다.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 오고 갔던 손님들의 모습,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루의 수입까지.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루를 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1시가 넘어 물건을 정리하는 예  
쁘다종합화장품 사장님은 누가  
등을 깨기라도 할까 비닐로 동  
여맨다. 시장에 밤이 찾아왔다.

모두 잠든 새벽 1시 30분.  
오늘 하루의 마지막 흔적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분주하다. 쓰레기의 양이 많은  
날은 시장에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된 날이다. 오늘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보니 지치고 힘들었을 하루  
지만 그래도 상인들이 가족과 함께 옹기 종기 따뜻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듯하다.



청소차량과 함께 시장의 일과는 마무리된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짬질방의 네온 간판과 노래로 삶을 위로하라고 손짓하는 노래방의 간판만  
이 빙글 빙글 돌아간다. 그리고 상대원시장에 짧은 휴식이 찾아온다.  
따스한 정성이 가득한 시장, 꿈과 낭만이 있는 시장. 나는 상대원시장에 간다.



# 상대원시장 지도





## 사람사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상대원시장 사랑방 원다방

꽃샘추위를 헤집고 봄의 기운이 움트려고 꿈틀대던 2009년 3월 상대원시장 원다방에 줌마DJ들과 함께 상인들이 둘러 앉았다. 상대원시장 원다방의 2009년 지속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 주체, 즉 누가 준비하고, 누가 참여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먼저 명확한 답이 필요했다. 그 답은 상대원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 내릴 수 있었지만, 시장의 여건상 생업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여건상 쉽지 않았다. 상대원시장의 주민으로서 2008년 문화예술프로그램(한마당 문화예술배움터)을 함께 운영하며 참여한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원다방과 인터넷라디오방송의 운영을 계속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2008년의 성과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의 상인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2008년 방송국 프로그램인 줌마DJ에 참여했던 주부들과 상대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 및 성남문화재단에서 모니터링으로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라디오 방송 엔지니어로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해 주었던 PK(우정인)가 방송국을 이끌 주부들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항상 시장 곳곳을 누비며 부지런히 원다방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키워 나갔던 복태(박선영)씨가 로고송 제작에 참여하여 상대원시장 인터넷라디오 방송은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었다.

2009년 봄부터 상대원시장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초여름부터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상대원시장 작은음악회가 개최되어 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작은음악회를 위해 시장 상인들은 상대원프라자 주차장을 비워 주었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장사할 때 쓰는 의자 등을 선뜻 내어 주었으며, 출연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등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서주셨다. 또한 많은 상인들이 공연시간에 맞춰 반짝세일에 참여하여 공연을 관람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내 주셨다. 이를 계기로 상대원 작은음악회 마지막 날에는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의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소속 클럽들의 공연과 상대원시장 인근 학원(태권도, 음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뜻 깊은 주민참여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상대원시장 작은음악회 초기에는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하던 상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원다방을 운영하는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준비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상대원시장 작은음악회는 더욱 풍성한 동네의 행사로 거듭날 것이다.

상대원시장 상인들도 이제 방송국 재편성에 맞춰 상인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상인들간의 모임이 전무하였으나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상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의 성과로 상인회가 형성되어 상인들 간의 커뮤니티 기회가 생겼으며 이를 통해 상대원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라디오 방송 진행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었는데, 추운 겨울은 어떻게 보냈는지 닥쳐온 여름 방송국은 그야말로 사우나를 방불케 하였다. 이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십시일반 협력하여 방송국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방송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라디오방송 진행자도 초기 5명에서 11명의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제 라디오 방송국 원다방은 나름 탄탄한 운영 노하우를 익혀가고 있고, 상인들과 함께 원다방 운영위원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앞으로 상대원시장의 명물인 원다방을 책임지고, 시장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구심체로서 ‘원다방 운영위원회’는 큰 역할을 해 낼 것이다.

어느덧 상대원시장 인터넷 라디오방송은 지역의 명물에서 전국의 명물로 자리잡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수도권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고 속초, 울산, 전주, 대전... 전국에서 관심을 보이며 원다방을 찾아 오고 있다.

상대원시장이 이렇게 전국의 유명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원다방을 중심으로 시장의 발전과 동네의 문화공동체를 위해 애쓰시는 숨은 일꾼들이 계시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야 할 것이다. 상대원시장 상인 모두가, 상대원시장을 찾는 주민 모두가 ‘원다방’을 우리동네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성남문화재단



## 동네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문화공동체를 위해

이상훈 \_ 사랑마루 총감독, 상대원2동 거주



이상훈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76년에 상대원2동으로 이사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상훈님은 2009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의 총감독이자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5개 사업 중 <은행동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92년 당시 터사랑 청년회에서 풍물, 문학, 역사 등의 문화강좌가 개설된 청년대학을 열었다가 후일 청년대학을 독자적인 단체를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 있는 약 14개 동아리로 구성된 연대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잘 하면서 커뮤니티 만들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성남 내 동호회들이 모여 청년문화제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성남 '미디어공동체 늘봄'을 설립,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미디어교육과 동네 단위의 미디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지도 말입니다.

당시 저는 태평동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일을 했었지요.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태평동에 살던 사람 중에 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 잘 태평동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시간을 흘렸고, 저는 <태평동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그 동네주민들의 손에 의해 이뤄질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진행 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부분은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목적이 그 지역주민을 문화활동의 주체, 즉 사업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간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성남에 뿌려 놓은 문화예술의 씨앗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고 이후에는 지역과는 멀어지기 다반사라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한유진님(사랑마루 상대원동 팀장)의 권유가 있기도 했지만 제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성남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그리고 제가 지난 몇 해 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취지도 잘 살릴 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는 이 성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일종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랑방 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생활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모여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올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공모에 함께 참여, 진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웃사랑이 사랑마루가 된 것입니다. 사랑마루란 옛날 옛날에 사랑방과 사랑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좁은 마루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촌동, 상대원시장, 수진동, 은행동, 태평동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지역 예술가와 지역 활동가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마루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야 많았지만 그러한 우여곡절의 수 만큼이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의 꿈도 더 크고 푸르게 자랐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랑마루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밝혀 둡니다. 사랑마루가 구성된 배경과 목적이 동네 주민들의 손으로 문화예술의 향기가 피어나는 문화공동체를 만드는데 있는 만큼 아직 우리가 나아갈 길이 많이 남은 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사랑마루를 구성해 올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여러 지역 예술가 및 활동가 분들, 특히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위해 힘써 준 한유진 팀장과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02	여는글
006	상대원시장 지도
008	프로젝트 북을 펴내며
010	인사말 – 이상훈(프로젝트팀 사랑마루 총괄자)

### 1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016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개요와 성과
018	사랑마루의 출범과 그 의미
020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개요와 성과

### 제2부 프로그램

026	전체 프로그램 소개
-----	------------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030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소개
032	방송 프로그램 소개
034	개국 1주년 기념방송 준비
044	개국 1주년 기념 공개방송
046	원다방 사람들

#### 상대원시장 사랑방 원다방

058	상대원시장에 다시 태어난 원다방
060	원다방, 진짜 다방이 되다
062	원다방, 마침내 사랑방이 되다

#### 문화배움터

066	선무도
068	소금반

070	보이는 어린이 라디오
086	1인아나듀오양성과정
106	미디어이야기공작소
134	기타반
140	시낭송반

#### 기타프로그램

146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150	건강검진
152	장수사진촬영
156	예사로운 만남
162	웃음사진전

### 제3부 원다방 사람들

176	박정숙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178	상대원동 동아리 풍선평
182	부흥기물
184	두우리 순대국

### 제4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그 뒷 얘기

188	원다방 운영위원회
194	송년회
198	작은 발표회
200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일지
202	언론에서 본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개요와 성과





## 더욱 큰 활약을 펼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를 기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2006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한편 개발의 대상에서 한걸음 비켜 있는 마을들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담아 보다 살기 좋은 사람냄새 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를 골목길, 아파트, 공단, 시장, 상가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난 2006~2008년 동안 각 유형별로 순차적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골목길 유형인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태평4동, 2006년)’, 아파트 유형인 ‘폴장환상(은행2동, 2007년)’, 공단 유형인 ‘콩닥콩닥 예술공간(상대원 공단, 2007년)’, 시장과 상가가 결합한 유형인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상대원시장, 2008년)’ 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각 유형별 특징을 잘 살린 다양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함께 함으로써 성남 내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 즉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첫 삽을 떴습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들은 지속가능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첫발을 내디딘 이래로 꾸준히 진행되어 동락태평하세는 ‘어린이 기자단 꿈꾸는 아이들(2007년)’ 과 ‘어린이 기자단 한울신문, 한울영상(2008~2009년)’으로, 폴장환상은 ‘은행주공문화배움터(2008년)’ 와 ‘폴장환상3(2009년)’로,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은 원다방 리모델링을 비롯해 라디오 방송과 문화 배움터 등 지난 해(2008년) 사업의 지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콩닥콩닥 예술공간은 정책연구를 통해 ‘藝·社로운 만남(2008년)’이라는 기업 유형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헌활동으로 연결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속 ‘藝·社로운 만남’으로 진행되어 삼성SDS 사회봉사단에 의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프

로그램 용 신청곡 받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DJ로 참여하기,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서 신종플루예방활동 펼치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는 지역 문화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주목 받아왔습니다. 특히 보다 지속적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견인해 넘으로써 안팎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성남문화재단이 계획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다섯 가지 유형이 그 첫 삽을 모두 떼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까지 담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은 2009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하면서도, 성남시의 다른 동네로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네만들기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심 끝에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오던 개별 사업들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이고,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구성된 사랑마루입니다.

올해 사랑마루에 의해 운영된 동네만들기지원센터는 지금까지 해 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을 지속하면서도 그 동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경험을 살려 수진동, 도촌동에 이를 확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진행한 이 사업이 성공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흩어져 진행되었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뭉쳐 그 힘을 다른 동네에까지 확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욱 큰 활약을 펼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가 더욱 기대됩니다.

##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 한 소통의 고리, 사랑마루



앞장에서 말했듯 성남문화재단은 삭막해진 도심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으로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성남문화재단은 이 두 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도시 성남의 정체성 구축 사업과 두 사업을 매개하는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난 4년간 지역 문화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주목 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 문화공동체 사업이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업에 그쳤다면,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보다 지속적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견인해 내는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은행주공아파트, 재래시장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상대원시장 등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려 지속할 만한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문화재단이 2009년 사업에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하면서도, 성남시의 다른 동네로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동네만들기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끝에 성남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오던 개별사업들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통합적 체계로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에 그간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사업에 참여했던 성남지역의 예술가와 문화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사랑마루'라는 이름으로 뭉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업이 성남 외 문화예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 5년간 이어질 통합적 체계를 모색하는 이 기간에는 지난 3년간의 사업을 통해 성장한 지역의 예술가와 활동가들이 주도하여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역적 밀착성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마침내 '사랑마루'의 이러한 생각은 성남문화재단의 올해 사업공모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특히 사업공모가 이뤄진 은행동, 상대원시장, 수진동의 3개소 외에 태평동, 도촌동 등 2개소를 추가하여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발굴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실무자들을 양성하는 <나도야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사업은 현실적인 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지역 연구와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나아가야겠지만 말입니다.

한편 사랑마루라는 명칭은 사랑방과 사랑마당 사이를 유연하게 드나들 수 있는 연결 공간으로 기능했던 사랑마루에서 따온 것으로 앞으로 사랑마루는 성남이라는 지역 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하여 시민과 예술가, 문화클럽, 동네를 소통의 고리로 연결하여 줄 것입니다.



## 날로 자라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시작했습니다. 문화를 통해 상대원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중심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한편 상대원시장에 핀 문화예술이라는 꽃의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날로 높아가고 있는 대형마트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원시장이 곳곳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담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공공시각미술부문에 ‘도시의 빛과 색(대표 안성희)’, 공공컨텐츠예술부문에 ‘큰뜰마루(대표 이상훈)’, 공공라디오부문에 ‘바셀린 프로젝트(대표 정상무)’가 각각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원시장은 문화예술의 향기를 듬뿍 담은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빛과 색에 의해 상대원시장 내 상점들은 가게의 이야기를 담아낸 등(등너머등)과 새로운 간판(커뮤니콘)을 하나씩 갖게 됐으며, 금상로와 상대원시장을 연결하는 평택포목 양쪽의 어둡고 칙칙한 골목들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상인과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만든 등은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가게가 등너머등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을 알고 자신의 가게에 꼭 등 하나를 달고 싶다며 ‘도시의 빛과 색’을 찾았던 민음건강원의 사장님, 날마다 등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놓고 가게 문을 닫은 예쁘다 종합 화장품의 사장님과 시장야채의 박정애님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또한 도시의 빛과 색은 1층에 평택신발, 명인만두가 위치한 건물 3층에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이라는 공간을 꾸몄습니다.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차 한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다방과 큰뜰마루에 의해 다양한 문화강좌를 중심으로 한 공공컨텐츠예술이 진행됐던 사랑방, 바셀린 프로젝트에 의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꾸려지고 라디오 방송이 진행됐던 방송국이 바로 이 공간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상대원시장 상인들이 한데 어울려 다양한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던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은 큰뜰마루의 1인아나뉴오양성프로그램인 줌마DJ와 결합을 통해 올해까지 중단 없는, 게다가 날로 풍성해



지는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을 통해 진행됐던 지난 2008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보다 커뮤니케이션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만큼 어느 프로젝트 하나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상대원시장과 상대원동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아왔을 상인, 지역주민들과 상대원시장과 상대원동의 지역정서와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문화예술로만 풀어가고자 했던 먼 동네 예술가들의 정서 차이에서 왔을 것입니다.

당초 성남문화재단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날 진행했던 다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프로젝트들 보다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회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문 회사 대신 상대원시장에 예술가들을 투입했던 이유는 그들과는 다른 예술가들의 고유한 몫과 역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창의적이다 못해 기발한 예술작업을 통해 일상에 매몰되어 타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감성과 의식을 일깨우길 기대했고, 나아가 파편화되어 개별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가와 주민들의 예술노동에 기초하여 매개된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 삶의 정겨움과 흥겨움을 맛보게 하여 문화공동체의 필요를 체감하게 함으로써 튼실한 문화공동체 생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남문화재단의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아 날이 갈수록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팀과 상인, 지역주민 간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해졌고, 상대원시장은 고유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팀의 창발적인 생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상인들이 장사를 한참 장사를 진행할 시간에 진행하고 있어 그랬던 것이지만 어떻게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 해는 물론 올해(2009년)도 프로젝트팀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수학문제 같았습니다.



아무튼 지난 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괄목할만한 성과들과 몇 가지 아쉬운 과제를 남긴 채 마무리 됐고,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새로운 맛이 올랐습니다.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있어 성남문화재단의 최대 관심사는 공공컨텐츠예술, 즉 커뮤니케이션에 있었습니다. 원다방이 다방이라는 제 이름에 걸맞게 상인과 지역주민들로 봄비길 바랬고, 상인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원다방 운영위원회>이 꾸러지고 상대원시장과 상대원동의 지역 문화기획자들이 충분히 양성되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아닌 문화로 자리잡길 바랬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에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 장에서 말했듯 사랑마루는 지난 날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만난 지역 예술가와 지역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정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마루는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팀장으로 한유진님을, 한유진 팀장을 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지역 활동가 모임으로는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대표 박정숙)’을 선정했습니다. 한유진 팀장과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은 지난 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공공컨텐츠예술부문에서 참여했던 예술가와 활동가로서 올해는 사랑마루의 일원으로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원동에 뿌리를 둔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은 지역주민으로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주부이자 상대원시장의 고객으로서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랑마루가 진행한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성남문화재단의 당초 바람대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다방 운영위원회>이 꾸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상대원시장 상인회, 지역 예술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원다방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더 진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상대원시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원다방 운영위원회> 외에도 사랑마루는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다방 같은 원다방을 위한 원다방 리



모델링에 나서 기존 원다방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문화배움터(선무도반, 소금반, 보이는 어린이 라디오, 1인아나듀오양성과정, 미디어이야기공작소, 기타반, 시낭송반)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상대원시장을 보다 자주 찾고 그래서 더 친근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배움터 외에도 건강검진, 장수사진촬영, 웃음사진전시회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 돋보였던 프로그램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던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와 지역기업인 삼성SDS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던 <예사로운 만남>.

당초 상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됐던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은 그 횟수를 더해갈수록 ‘상대원시장 상인회(회장 김국남)’와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독려 속에 상인들이 공간확보, 질서유지, 출연자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명실상부한 상대원시장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되었고, 삼성SDS는 상대원시장 내 상점 한 곳 한 곳을 일일이 돌아 다니며 라디오 방송 시 방송될 신청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DJ로서 라디오 방송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또한 좀더 많은 상인들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세워야 할 과제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이것으로 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대두됐던 상대원시장 상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제를 조금씩 해결해 왔듯 우리가 2010년에 다시 한 번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일 뿐입니다.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꽃망울이 이제야 비로소 여물었습니다. 그 꽃망울이 곧 터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그 날을 기다립니다.





## 2부

#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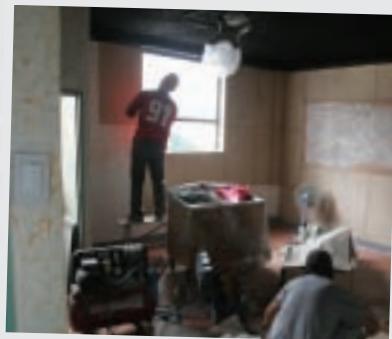
〈'2009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크게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거점공간인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의 재단장과 각종 문화예술을 배우고 익혔던 〈문화배움터〉, 그리고 그 외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하나.

###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재단장

차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다방, 상대원시장 상인회 회의 등 각종 회의와 문화배움터가 진행된 사랑방,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실로 이뤄진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중 원다방이 진정한 문화소통의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위해 재단장했습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9월 24~27일
- 참여자 : 한유진, 위종만, 신승섭



## 프로그램 둘.

### 〈문화배움터〉

상대원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한 선무도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특히 주부들을 위한 1인아나듀오양성과정, 미디어 이야기 공작소, 기타반, 시낭송반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배움터〉가 열렸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소금반과 보이는 어린이 라디오가 진행됐습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2월~12월
- 참여자 : 상대원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각 문화배움터 강사들



## 프로그램 셋.

### 기타 프로그램

매월 진행됐던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지역 어르신들이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을 찾아 담소와 다과를 나누며 진행됐던 〈검강검진〉과 〈장수사진촬영〉, 상대원시장 상인 및 상대원시장을 찾은 다양한 이들의 웃음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됐던 〈웃음사진전〉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헌활동으로 연결한 〈藝·社로운 만남〉이 진행되어 삼성SDS 사회봉사단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 용 신청곡 받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DJ로 참여하기,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서 신중플루예방활동 펼치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6월~11월
- 참여자 : 상대원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준), 우장순, 삼성SDS 사회봉사단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원다방에서 위치한 인터넷 기반의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대원시장에 위치한 상점들에 스피커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개국방송 : 2008년 9월 22일
- 방송일시 : 매주 월~금 오후 2시~ 5시까지
- 국장 : 장미라 (시인 겸 시낭송가, 지역활동가, 상대원동 거주)



#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2008년 9월 22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은 개국과 함께 시즌 1을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 총 4차례 각기 다른 프로그램(시즌 1~4)으로 상대원시장 상인과 상대원시장을 찾은 지역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부터 시작해 그간 방송을 진행·책임져 왔던 ‘바셀린 프로젝트(대표 정상무)’의 손을 떠나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으로 이양됐습니다.

그 동안 예술가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당초 이 프로젝트의 취지대로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이양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박정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난생 처음 만난 각종 방송설비 때문에 고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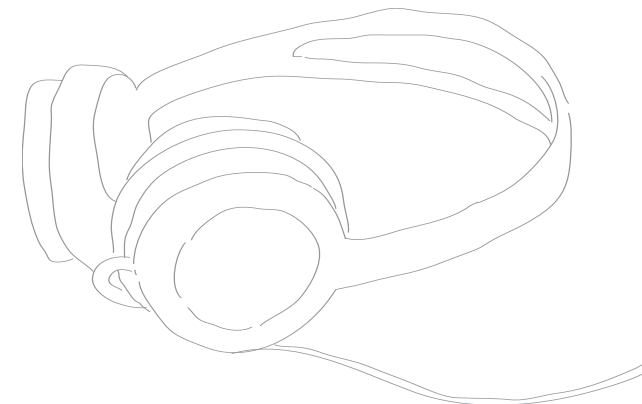
지난 해 줌마DJ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DJ로서의 역량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방송기술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셀린 프로젝트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던 시절의 엔지니어였던 우정인(PK)가 몇 번 관련 교육을 진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난관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4시간 방송을 담당해야 할 DJ 겸 엔지니어를 찾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참 생업에 종사해야 할 대낮에 그것도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방송을 진행할 DJ 겸 엔지니어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진행된 〈1인아나듀오양성과정〉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큰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이 강좌에 참여한 박신명, 박인경, 박인자, 양희정, 이길순, 장미라님 등이 훌륭한 1인아나듀오로 변신해 DJ 겸 엔지니어로서 멋진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부, 즉 상대원시장의 고객이라는 이점을 100% 살려 상대원시장 상인들에게 한층 친숙하게 다가가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박정숙 회장, 이길순님 등의 노력으로 이미 훌륭한 1인아나듀오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김승훈, 소병익님 등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1인아나듀로 참여함으로써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은 한층 풍성해지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방송하는 것이 좋아 이곳에 모여 방송, 그 자체를 즐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워 왔던 문화공동체는 아닐까요.

또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1인아나듀오로서 인연을 맺은 이들은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등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주도의 주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 배움터 등 올해 진행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말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중심으로 이양된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말했듯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인 지역주민에 의해 이제야 비로소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9년 방송에는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했던 예술가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든 상대원시장과 상인들을 녹여 내고자 노력한 것과는 달리 2009년 방송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안정적인 방송’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3년차인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안정적인 방송’을 넘어서 상대원시장과 상인을 적극적으로 방송국에 녹여내 명실상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안정적인 방송국’으로 자리잡아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1인아나듀오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이 과제들을 2010년에는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방송 프로그램 소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월~금요일 오후 2~5시부터 진행되는 각 프로그램들은 <http://www.art-market.or.kr>와 <http://cafe.daum.net/wondabangstudio>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월	화	수	목	금
14:00 ~ 15:00	누님니우스 DJ 이길순	세상사는 이야기 DJ 박인자	책따라 길따라 DJ 장윤정	살며 사랑하며 DJ 김두산(새롬이)	역사 그리고 DJ 박인경
15:00 ~ 16:00	옛날 옛적에 DJ 박정숙	화요일에세이 DJ 장은화	안녕하세요 혼입니다 DJ 김승훈	셋이서 콩나무 DJ SnTV	쥬마 DJ DJ 장미라
16:00 ~ 17:00	노래 들려주는 시장				
	DJ 소병익	DJ 박신명	DJ 장미라	DJ 이길순	DJ 장미라

## 누님니우스



성남시의 뉴스와 건강상식, 정보 등으로 전하는 코너

- 방송일시 : 월요일 오후 2~3시
- DJ : 이길순

## 옛날 옛적에



옛날얘기 책을 읽어 주는 시간

- 방송일시 : 월요일 오후 3~4시
- DJ : 박정숙

## 세상사는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들려 주는 코너

- 방송일시 : 화요일 오후 2~3시
- DJ : 박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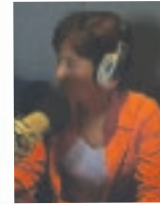
## 화요일에세이



잔잔한 에세이를 읽어주는 코너

- 방송일시 : 화요일 오후 2시~ 3시
- DJ : 장은화

## 책따라 길따라



영화 이야기와 DJ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 주는 코너

- 방송일시 : 수요일 오후 2시~ 3시
- DJ : 장윤정

## 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음악가 김승훈의 음악하는 이야기, 세상사는 이야기를 들려 주는 코너

- 방송일시 : 수요일 오후 3~4시
- DJ : 김승훈

## 살며 사랑하며



재래시장에서 벌어진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 주는 코너

- 방송일시 : 목요일 오후 2시~ 3시
- DJ : 김두산(새롬이)

## 셋이서 콩나무



성남이야기

- 방송일시 : 목요일 오후 3~4시
- DJ : 성남인터넷방송 SnTV

## 역사 그리고



역사책을 읽어 주는 시간

- 방송일시 : 금요일 오후 2~3시
- DJ : 박인경

## 쥬마 DJ



초대손님과 함께 풀어 보는 여자와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

- 방송일시 : 금요일 오후 3시~ 4시
- DJ : 장미라

## 노래 들려주는 시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대원시장 상인을 비롯해 상대원시장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 드리고, 그 음악만큼이나 많은 삶을 통해 얻어지는 살맛나는 이야기들을 맛깔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

- 방송일시 : 월~금요일 오후 4~5시
- DJ : 소병익, 박신명, 장미라, 이길순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방송〉 준비 중~

- 정 리 : 장미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국장)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방송〉용 원고를 정리해 옮겼음을 밝혀 둡니다 (편집자주)

### 1부사회 - 장미라, 박신명

#### ■ 낭송/ 행복 - 유치환 - (3분)

사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라입니다. - (14분)

하늘도 높고 맑고 푸른 가을이 되었네요.

이 좋은 가을날 방송국 1주년 행사를 상대원 시장에서 하게 되어 무척 감동스럽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1부 사회는 장미라와 박신명이 보도록 하구요.

2부에는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이신 박정숙님과 박인자님이 3부는 누님니우스의 이길순님과 양희정님이 진행을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사회를 맡게 되셨는데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 개국 1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방송국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면 각 요일마다 책 읽어주는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줌마 DJ, 누님니우스, 살며사랑하며,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병익 선생님이 진행하는 월요일 노래 들려주는 시장등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용 원고



그 동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순서, 각 DJ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DJ들 앞으로 나와서 이름과 맡은 코너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진행자들 나와서 선다-

사회자 지금 각 DJ들이 앞에 다 나오셨는데요. 그럼 우선 제 소개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국장을 맡고 있는 장미라입니다. 맡은 코너는 금요일 두시반에 진행되는 줌마DJ 이구요. 이 시간은 주로 게스트를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던가 아니면 상대원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그때그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코너에는 여러분 누구나 오셔서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 제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 보시지요.

-DJ들 본인 소개와 코너 소개-

(간간히 즐거운 분위기 연출 할 것)

사회자 다음은 방송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분한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메시지 보내신 분들 소개-(13분)

상인회장, 문화재단, 상인대표, 지역 주민등

-나와서 인사 할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인사

사회자 모두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메시지처럼 발전하는 방송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방송을 1년 하는 동안 참 많은 잊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중 다섯 가지를 추려서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1년 하는 동안 잊지 못할 일들 소개-(10분)

### 1. 시장야채 사장님의 이야기.

사장님이 나가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저씨께서 참 미안해 하신답니다.



사장님은 그게 뭐가 미안하냐고 하시면서 아무나 할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하시고는 노래를 신청을 해 주셨는데 그때 참 마음이 짝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방송 중에 DJ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분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용수야 내가 너를 겁나게 사랑한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남편 말 ‘왜 급한 배 달 있나?’ 하더라고요.

## 2. 영동 건어를 여사장님의 편지이야기.

## 3. 작은 음악회에 오셔서 노래를 들려주셨던 분식코너와 진성떡집 여사장님의 이야기.

아마 오늘도 조금 후에 이어지는 코너에 나와 주실 것 입니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구요.

## 4.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찍고 배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각 상가를 돌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시던 여러분의 감동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 5. 밤에 아나듀오 교육을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녁 7시부터 와서 좀 더 좋은 방송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배우는 DJ 여러분께 감동을 받고 저도 더 열심히 성실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0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좀 여쭙봐 주실래요? 0순위가 무엇인지?  
-뭐냐고 묻는 소리-

그것은 바로 늘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는 바로 상인 여러분들 이십니다.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보내주시는 응원이야 말로 순위에도 넣을 수 없는 당연히 0순위이지요. 참 감사하구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을 지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더욱 좋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되고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의 응원을 등에 지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틀었던 노래 베스트 화이브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가장 많이 틀었던 노래 베스트 화이브-(10분)

##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 대성의 대박이야

## 윤태규 마이웨이

## 조항조 만약에

## 백지영 총맞은 것처럼

네……. 이중에 저는 ‘대박이야’ 참 좋더라고요.  
노래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죠.

노래-대성의 대박이야-

사회자 노래 가사가 정말 대박이 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상대원 시장에도 대박이 찾아와서 여러분 모두 대박 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박은 누가 불러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에다 운과 그리고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과 찾아오는 운을 잘 잡으시고 인맥을 잘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는 상대원시장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방송 사고에 대해 알아보까요?

방송 사고는 하도 많아서 일일이 드릴 말씀 드릴수가 없을 정도죠. 거의 모든 DJ들이 방송을 처음 접해보고 그러는 상황들이라 늘 사고이고 늘 미숙하고 그랬지요. 저도 지금 생각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저녁이면 낭송 연습을 방송국에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낭송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중인데 이젠 거의다 됐다 할 때 난데없이 전화가 때르릉... 그래서 막 전화에다대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던 정숙씨 왈~~ ‘언니 낭송하는거 다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드라구요. 방송 엠프를 끄지 않고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얼마나 난감하던지…….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실까요? 제목은 ‘상대원시장에 가면’ 입니다. - (5분)

# 상대원 시장에 가면

시그널음악 : 시장소리

나오는 사람들 : 줌마1, 줌마2, 줌마3, 줌마4, 시장사람들....

**줌마1** (시장에 들어선다.)

**줌마2** (줌마1을 발견하고 반갑게) 자기 시장 보러 왔어?

**줌마1** 응 장 볼일이 생겼어.

**줌마2** 무슨 날이야?

**줌마1** 응, 오늘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거든. 그래서 장 좀 보려구.

**줌마2** 그래. 어떤 손님인데?

**줌마1** 응, 우리 집에 백년손님이 오거든. 맛있는 것 좀 해주려고.

**줌마2** 백년손님이라면..... 사윗감? 어머 벌써? 부럽네.

**줌마3** 아니 벌써 사위 볼 때 됐어? 좋겠다.

**줌마4** 우리도 가면 안 될까? 폼사리 꺼서 맛있는 것 좀 얻어먹게.....(다 같이 웃음)

**줌마1** (웃으며) 그래, 와. 그런데 뭘 좀 사다가 해 줄까?

**줌마2** 어머 뭐가 걱정이야? 우리 상대원시장에 없는 게 없잖아. 여기저기 둘러보고 싱싱하고 맛있는 거 사다가 해주면 되지.

**줌마1** 그래야겠네. (웃음)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장에서 음악회도 하나 보네.

**줌마2** (의아한 표정으로) 몰랐어? 원다방에서 시장음악회 하는거야  
(위3층을 가리키며)저기 원다방 있잖아.

**줌마1** 어디? 원다방? 원다방이 뭐하는 곳인데?

**줌마2** 자기, 여태 몰랐구나! 저기 3층에 원다방 보이지? 저 방송국에서 시장소개도 하고 주민들과 시장 상가에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세상 살아가는 재미나는 이야 기도 들려주지.

**줌마1** (밝은 표정으로) 그럼 상가마다 달려있는 스피커에 소리가 원다방 방송실에서 나오는 소리였어?

**줌마2** 그래. 원다방에서 시장소개도 해주고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할 거야.

많은 관심 부탁해..... 그럼 시장보고 시간나면 종종 원다방에 들려.

**줌마1** 응 원다방 가면 커피도 주는 거야?

**줌마2** 커피주지. 그런데 셀프야.

**줌마1** 알았어, 자주가야겠네.

**줌마2**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들어가

(박수소리 들으며)

**줌마1** (환하게 웃으며 퇴장한다.)



사회자 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이쯤에서 시장 소개와 할인 행사하는 곳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일 상가 소개-

여러분 추석도 되는데요. 이렇게 세일을 할 때 필요한 물건 오늘 사가지고 가서 명절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1주년기념 공개 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는 더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계속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부 끝 곡으로 방송을 가장 많이 틀었던 화이브5에 선정되었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틀어드리면서요 이상 1부 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정말 고맙고 감사 합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 2부 진행을 맡은 박정숙, 박인자입니다.

저는(박정숙)상대원 방송국에서 월요일 1:30~ 2:30분 진행되는 책읽어주는 시장에서 옛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박인자) 화요일 2:30분부터 1시간동안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색소폰을 연주해주실 소병익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주세요.

첫 번째 손님 무대등장 , 연주~

(질문) 안녕하세요? (함께) 네, 안녕하세요.

음악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1 : 선생님은 상대원시장에 오늘 처음 오신 것이 아니시죠? 언제부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음향시설이 다 갖추어진 시설에서 연주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처럼 작은 공간인 상대원시장에서 공연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연주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서 막상 연주를 해보시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싶은데요.

진행자 말씀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앞으로도 자주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주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이시죠? - (곡명)입니다. (연주자)

그러면 연주 부탁드립니다.

소병익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 날리기 1: 반짝 세일 멘트.

오늘 상대원시장에 반짝 세일 들어갑니다. 꼭 꾀해두셨다가 내 일상의 장바구니에 보석 같은 세일물건들 한 아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멘트 - 상품목록)

중간 멘트: 오늘 세일 상품들 많거든요 많이들 사가져 가시구요, 맛있는 저녁 해 드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네. 벌써 마지막 초대가수만이 남았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인씨 노래 부탁드립니다~~

김가인씨 노래 끝나고 난 후 인터뷰.

진행자 (질문1) 김가인씨 오늘 이 무대가 첫 무대가 아니시지요?

대답

(질문2) 처음 왔을 때, 지금의 공연느낌이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주세요?

앞으로 유명가수 되셔도 저희가 부르면 언제든 무조건 달려 와주세요. 다음 곡도 무조건 부탁드립니다.

김가인씨 마지막 노래들고 다시 마지막 광고 멘트 날리기.

광고 날리기 3:반짝 세일 멘트 ~

오늘 상대원시장에 반짝 세일 있습니다. 꼭 꾀해두셨다가 세일물건들 한 아름 사가시기 바랍니다.

(멘트 - 상품목록)

2부 진행 마무리 멘트임.....

지금까지 상대원방송국 1주년 기념행사에 오셔서 열정적인 공연을 해주신/ 색소폰 연주의 소병익선생님, 부부가수 권우와 직녀, 가수 김가인씨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바쁘신 와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즐겨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2부에 이어 3부에는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래 자량이 있습니다. /

3부에도 계속 함께 해 (즐겨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2부 진행을 맡은 박정숙, 박인자였습니다. 저희는 2주년 상대원방송국 공개방송에서 다시 뵈도록 하구요. 저희도 이제부터 즐기러 가겠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길순, 양희정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 공개방송> 제 3부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 2부 모두 마쳤는데요. 재미있었지요? 진짜백이 3부 곧 시작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 공개방송> 제 3부의 첫 번째 순서는 사랑방문화클럽 소속의 윈드색소폰 회원 분들이 출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하시고 이렇게 축하의 자리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진행자 네에~ 먼저 윈드색소폰 경진수 선생님의 독주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수 선생님 부탁 합니다. 연주하실 곡은 '초원, 괜찮아요' 2곡을 이어서 연주하시겠습니다.

진행자 (희정):다음순서는 노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대원시장 입구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고 계시는 임종숙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질문=언제부터 지금장소에서 악세사리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악세사리 종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부르실 곡목은 1, 님은 먼곳에 2,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임종숙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진행자 (길순):네에, 다음순서는 아주 특별한 순서로서 트로트의 신동인 올해 다섯 살의 이상엽 어린이를 모셔볼까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상엽이가 몇 살 때부터 노래를 하게 되었나요?

CD가 엄청 많다는데요. 몇 장이나 되나요?

네 우리 상엽이가 어린이가 노래 부를 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태진아의 동반자, 사랑은 아무나하나' 들어볼까요?

진행자 (희정): 네 다음 순서로 이기삼 선생님의 색소폰 독주가 있겠습니다.

연주하실 곡은 '목포의 눈물, 울고 님은 박달재' 두곡을 이어서 연주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길순):다음순서로는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비전성남의 명예기자이신 윤현자 기자님을 모시 겠습니다. 노래 부르시기 전에 잠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질문=비전성남 기자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진행자 어떻게 하면 기자 할 수 있을까요? 부르실 곡은?

진행자 (희정):네~ 이번순서로는 환상의 색소폰 합주가 있겠습니다.

하형주 선생님, 최은재 선생님, 이화중 선생님, 서현자 선생님 이상 네 분을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만요, 연주 들어가기 전에 서현자 선생님을 잠시 모셔보기로 하겠습니다.

진행자 질문1=선생님 여자분이 색소폰을 연주하시는데 너무 멋있어요.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렵지는 않은가요?

질문2= 윈드색소폰 회원들께서는 소외된 계층을 찾아다니시며 봉사연주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몇 회나 연주하셨을까요?

윈드색소폰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주 들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맞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길순): 자~ 여러분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요?

다시 노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름만큼 큰 복을 받고 계시는 분, 진성떡집의 김만복 사장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름 너무 좋으시죠?

진행자 질문= 떡 장사를 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현재 몇 가지의 떡을 만드시는지요? 남편하고 함께 운영을 하시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요? 네에 올 한가위엔 송편 많이 만드시고 많이 파시기 바라면서 노래 들어보겠습니 다. 부르실 곡은 저 하늘의 별을 찾아 네에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희정):어느 듯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 노래 부르실 분은 미래분식의 진영애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질문=떡볶이와 김밥이 참 맛있던데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팔죽도 맛있더라구요. 사장님은 노래도 너무 잘 하세요. 그럼 우리 진영애 사장님의 노래 한 번 들어볼까요?

부르실 곡은 1,백치야다다, 2, 밤안개 3, 무인도

네에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길순 희정): 네에 지금까지 신나는 상대원라디오방송국 1주년 기념공개방송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미있었나요? 많이 부족함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엔 1부 장미라, 박신명 2부 박정숙, 박인자 3부에 이길순, 양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진행자들은 오직 한 가지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원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시장 상인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요, 물건 많이 파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반짝세일 홍보-



##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 공개방송

■ 일 시 : 2009년 9월 25일  
■ 장 소 : 현대마트 · 현대아울렛 지상주차장

짹짹!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국장이자 DJ인 박미라님과 DJ인 양희정님, 이길순님, 박신명님, 박정숙님, 박인자님은 이를 기념해 공개방송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1인 아나듀오양성과정을 들으면 그 동안 쌓아 온 내공도 공개할 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DJ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 날 공개방송을 위해 멘트를 작성하고, 선곡을 하고, 콩트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9월 25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이 개최되었습니다.

지관군 시의원, 유근주 시의원,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부장 등 내빈들의 인사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 탓인지 1부가 다 끝나가는데도 빈자리가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DJ들 얼굴에도 살짝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줌마는 이 날도 용감했답니다. 훌륭한 멘트와 선곡, 그리고 다소 썰렁(?)한 콩트로 1부를 훌륭히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박인자님은 방송 때마다 지각해 다른 DJ들의 곱지 않았던 시선이 힘들었



다고 고백하며, 지각할 때마다 그 별로 상대원 시장에서 무엇인가 샀으니 됐지않냐고 생떼(?)를 써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답니다. 그 생떼가 너무 웃겼던 탓입니다.

이윽고 사랑방문화클럽 등 초대손님의 공연으로 꾸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DJ들의 너무 사랑하는 김승훈님의 구수한 색소폰 연주에 이어 신인가수 김가인님 공연에 이르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습니다. 서로 어울려 춤을 추는 상인과 손님까지...덕분에 김가인님은 앵콜에 재앵콜까지 부르다 마지막 곡에는 목이 쉬어 가수로서는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할 정체불명의 목소리까지 들려 줬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공연장 근처를 꽉 매웠네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갑자기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주민이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답니다. ^^; 하지만 우리 DJ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줌마 아닙니까. 아줌마들의 기세에 눌려(<-양희정님의 말입니다.) 경찰들은 그냥 물러갔답니다.

그리고 이 날 공연에는 풍선 동아리인 풍선평도 참여해 엄마 따라 시장 나선 아이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했답니다.

## 다른 듯 하면서도 어쩐지 닮은 삶, 그리고 사람들



장 미 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국장 겸 DJ

오후 6시가 훌쩍 넘어간 어느 화요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장미라 국장은 아직도 방송실 한 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줌마 DJ들과 함께 오늘 방송한 내용을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올리고 시낭송반에도 참여해야 하니 아직 퇴근시간은 한참 남았습니다.

“아, 저녁 해 먹기 귀찮아.”

그녀가 투덜거립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아마도 아가씨가 ‘오늘 점심은 뭘 먹지?’를 고민하는데 반해 아줌마는 ‘오늘 저녁은 뭘 먹지?’를 고민하는데 있을 겁니다. 아줌마에게 있어 특히 일하는 아줌마에게 있어 저녁은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이니깐요.

그런데 일하는 아줌마인 그녀는 심지어 집 밖에 나와서도 저녁 걱정입니다. 어느새 식구와 갈아져 버린 줌마 DJ들과 함께 해 먹는 저녁식사니까요.

그녀가 이런 저녁이 익숙해진지도 꽤 되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돼.”라는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박정숙 회장에게 속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꼭 1년. 그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혹은 그 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야근도 하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엄마 손이 놀이방, 유치원 선생님의 손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하고 유치원 조차 오전에 만 보낸 그녀가 집에 두 아이만 남겨 놓은 채 말입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점심, 저녁끼리도 알아서 챙겨먹고 학원 하나 안 보내는데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엄마가 일하며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아이들도 그 만큼 더 자랐습니다. 다만 영어단어 1개 외울 때 마다, 수학문제 1개 풀 때마다 1백원을 용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이처럼 큰 열정을 갖는 이유가 말입니다.

“활동비는 애들 한 달 학원비 정도 밖에 안되니까 경제적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녜요. 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든 끝을 봐야 하는 성격에다 우리 줌마 DJ들처럼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녀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는 시인 겸 시낭송가로서 작업공간과 작업시간이 필요한 ‘작가’입니다. 이러한 때에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은 그녀에게 더 없이 좋은 작업공간과 작업시간을 제공합니다. 방송을 준비시간 외 특히 다른 DJ들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면 그녀는 그녀만의 작업에 몰두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써 둔 시들이 이제 제법 되어 올해에는 시집을 한 권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녀는 새로운 꿈도 꾸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만 아주 오래 전부터 그녀의 꿈은 수필가입니다. 그녀의 생활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생활수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는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 놓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이하게도 성남, 상대원동 등 지난 날 저와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이지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른 듯 하면서도 어쩐지 닮은데다 많아요. 제가 앞으로 수필을 쓸 때 두고 두고 글밑천이 되겠지요.”

### 장미라

시인 겸 시낭송가로 활동해 오고 있는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적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회장 박정숙)’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책이랑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한 것을 계기로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요청으로 지난 해 말부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국장으로 일해 오고 있는 그녀는 이미 1만권 이상의 독서로 도서관에서 더 이상 읽을 만한 책을 찾을 수 없다(?)는 13살, 8살 두 아들을 둔 상대원동의 열혈 아줌마이기도 합니다.



## 눈물겹도록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한 날



이길순 줌마 DJ

성남문화재단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상대원동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연이 되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다 2008년부터 11월 1일 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나이와 모습에 잘 어울리는 '누님 님우스'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맡아 지금까지도 두근거리는 마음 안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누님님우스란 코너는 제목 그대로 성남시의 뉴스와 건강상식, 정보 등으로 전하는 코너로 저는 이 코너에서 때로는 슬픈 내용을 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또 때로는 방송국은 물론 상대원시장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박장대소를 하며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상대원시장 상인인지 상대원시장을 찾은 고객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우연히 사연과 함께 좋은 글이 있다며 손수 글을 써서 '시장야채'의 박정애님에게 전해 이것이 제 손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날 '아~방송을 듣긴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눈물겹도록 정말 눈물겹도록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날 저는 앞으로 그런 청취자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방송을 해야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 약속이 있다면 내년에는 상대원시장 상인과의 친밀함을 높이는 등 누님님우스가 상대원시장이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상대원시장, 줌마DJ들 파이팅~”

## to.길순영아

안녕하세요, 누님님우스에 이길순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하하...

월요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마이크에서 제일 먼저 울려 퍼지는 목소리. 시원시원하고 웃음소리 호탕하여 듣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 주는 목소리는 바로 기자이고 소설가인 누님님우스의 이길순 선생님의 목소리다.  
목소리만 시원시원하나면 절대 아니올시다이지. 얼굴도 몸집도 어쩔 그리도 믿음직스러운지. 세상을 살다보면 참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대를 가지고 만났다가 곧 실망을 안고 헤어지게 되는 수많은 얼굴들. 하지만 이길순 기자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을래야 찾을 곳이 없다. 진실하고 적극적으로 낙천적인 것도 모자라 유머까지 천천히 넘치는 사람. 정말 방송국엔 없어서는 안되는 끼임과 멋진 사람. 무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잘 지내주니까 그렇다고?  
그렇다면 직접 한번 만나보시라. 그러면 곧 나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될 테니. 누가 한번 나서서 이길순 기사를 직접 취재해보는 것은 어떨지. 훗, 그것 참 재미있겠다.  
오늘도 울림 이길순 기자의 전화 한 통. '내가 가수 한 명 데리고 갈 거예요! 방송 출연 좀 시켜봐!' 역시 이길순 기자다. 세상 가려운 곳 살살이 잘도 긁어주고 챙겨주는 사람. 우리는 그를 이쯤하여 '영아'라고 부른다. 길순영아.  
길순영아, 오늘도 파이팅!! 늘 고맙고 감사해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슴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from. 장미라

## 이길순 (필명 이정화)

원 다섯이란 늦은 나이에 펜을 잡기 시작해 비전성남, 성남교차로플러스, 희망제작소 등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2008년 지구문학에 소설 '악연'으로 등단한 뒤 동인지 '부탁' 발행하면서 명실상부한 글쟁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활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에서 계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울림통'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올해 소원은 작가로서의 성공보다는 과년한 아들, 딸이 좋은 배필을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서 어린 손주의 재롱을 보고 싶습니다.

## ‘일상’ 에서 ‘특별한 공간’ 으로 거듭난 상대원시장



양 희 정 엔지니어

사실 두어 해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있어 상대원시장은 그저 ‘일상’ 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상대원시장 근처이니 종종 상대원시장에서 찬거리를 사기도 했고, 남편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가끔은 가족끼리 상대원시장으로 마실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동네 언덕이 얼마나 가파릅니까. 그나마 상대원시장을 통하면 좀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어 상대원시장은 저에게 있어 우리 동네 밖과 소통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 이던 상대원시장이 두어 해 전부터 저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계기는 물론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말 그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했던 ‘바셀린프로젝트(대표 정상무)’가 떠나면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엔지니어로 활동하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상대원시장 상인들조차 냉랭하게 느껴져 고심했고, 그 후에는 한없이 부족한 제 방송기술 때문에 또 고전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제 대신 든든한 우리 1인아나뉘오들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지키고 있어 든든합니다. 이제 상인들도 지역주민들도 제법 우리 방송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요.

요즘 저는 기타반과 시낭송반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타반과 시낭송반을 더욱 발전시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이런 동아리들이 더욱 발전해야 궁극적으로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상대원시장과 우리 동네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공간인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이란 사실, 저마다의 특별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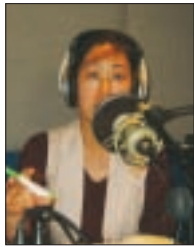


### 양희정

결혼 8년 만에 어렵사리 낳은 딸이 어느 새 훌쩍 자라 이제 친구 같다는 양희정님은 줌마DJ들이 1인아나뉘오로 변신해 DJ 겸 엔지니어로 활동하기 전까지 엔지니어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 출근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는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기획부장으로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줌마밴드를 구성해 볼 욕심을 가지고 말이지요.



## 줌마DJ가 아니었음 몰랐을 세상사는 이야기에 '감사'



박인자 줌마 DJ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방송되는 ‘세상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혹은 세상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코너이지요. ‘누님뉴스’나 ‘책 읽어주는 시장’처럼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도 새해는 좀 더 새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음악을 들려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시작한지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다른 줌마DJ들과 함께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을 하다 보니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오가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세상사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우리집 다음으로 많이 제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요. 이곳에서 제 살아가는 얘기를 풀어놓고,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사는 것이 어쩔 그리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다른지...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바람만은 꼭 닮았습니다. 상대원방송국을 오지 않았다면, 상대원방송국 DJ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세상사는 이야기’를 알게 해 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모든 DJ들과 방송을 들어주신 시장 상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인자

박인자님은 눈망울이 크고 예쁜 아들을 두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러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만나 DJ를 하게 되면서 범상치 않은 ‘끼’가 발휘되었다는 그녀는 방송시간에 매번 늦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지각대장이자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치 않는 수다광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녀가 늦을 때마다 상대원시장의 매출은 솔솔 오른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방송에 늦은 날은 그 별로 저녁 찬거리를 꼭 상대원시장에서 사기 때문이라 합니다.

## 쉽지 않은 도전과 배움이 있어 더 행복합니다



박 신 명 줌마 DJ

안녕하세요?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고도 늘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진 박신명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이것 저것 시도하는 늘 욕심 많은 주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만난 것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지난 해 가을부터 이곳에서 매주 화요일에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서 줌마 DJ로 인사드리고 있지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대원시장 상인을 비롯해 상대원시장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들려 드리고, 그 음악만큼이나 많은 삶을 통해 얻어지는 살맛나는 이야기들을 맛깔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떠신가요? 정말 그랬나요?

사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줌마 DJ로 자리잡기까지는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기계치(?)인 저에게 방송기자개와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이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만큼 ‘끝없이 노력하고 죽을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좌우명이랍니다. 또한 배우는 것 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어딘가에 이름석자정도는 남겨놓고 가야하지 않겠어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언제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적극 밀어주는 나의 반쪽 소나무에게 감사하고, 행복하단 말을 전합니다.



### 박신명

뒤늦게 쓰기 시작한 글쓰기에 폭 빠져 하루 하루를 채워간다는 박신명님의 자량은 옥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입니다. 이 장독대에는 그녀의 고향에 올라온 고추와 콩에 직접 발품을 팔아 구매했다는 천일염으로 만든 간장과 된장 그리고 고추장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 장으로 담근 맛있는 찜개를 원다방으로 날라오던 그녀는 이제 손맛 좋은 주부로 원다방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장독대를 밀천삼아 장 판매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장 뿐만이 아니라 직접 도토리를 따다 옥상에서 빵아 만들었다는 도토리전을 문화배움터와 송년회에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원다방 대표 요리사라 불려도 좋겠지요?



## 상대원시장 사랑방 원다방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준비, 진행되는 거점 공간이자  
상인 및 지역주민의 문화소통의 공간. 크게 차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원다방,  
상대원시장 상인회 등 각종 회의와 문화 배움터가 진행된 사랑방,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 태어난 날 : 2008년 9월 29일
- 리모델링 한 날 : 2009년 9월 24~27일



## 상대원시장에 다시 태어난 원다방

불행히도 지난 해 발행된 『2008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원다방’이라 부르게 되었는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그 이야기를 담아내려 합니다. <편집자주>



지난 해 우리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준비·운영할 공간을 준비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라는 긴 고민 끝에 나온 해답은 ‘원다방’.

“원다방으로 갑시다”

택시를 타고 그렇게 외치면 택시는 어느 시골 촌구석에나 있을 법한 원다방을 잘도 찾아 냈습니다. 높은 건물이 그리 많지 않았던 때, 상대원동의 랜드마크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원다방에는 상대원동 주민들의 갖가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 사업도 키우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 결혼도 하고 결혼해 낳은 자식들의 맞선 자리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원다방은 그런 상대원동 주민들의 갖가지 사연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십 수년 전 즈음 그 문을 닫았습니다. 세월과 함께 다방 마담이 직접 손으로 타주는 달콤하고 커피보다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갇뽕아낸 커피향기가 더 익숙해져 갔던 탓이 아닌가 합니다.

“원다방이 없어졌을 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내 젊은 날도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상대원시장 상인들과 상대원동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원다방의 추억들과 원다방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소리들을 들으며 우리는 상대원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했던 원다방을 다시 되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준비·운영할 공간의 이름을 ‘원다방’이라 명명했지요.

한 때 상대원동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다 사라져 버린 원다방의 모습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근에서는 제일가는 시장이었던 상대원시장의 모습과 어쩐지 닮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 원다방의 영화와 추억들이 상대원시장에 다시 되살아나 원다방이 상대원시장의 랜드마크로서 굳건히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다방을 과거가 아닌 현재로 옮겨 놓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국남 상대원시장 상인회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된 1층에 평택신발, 명인만두가 자리한 건물 3층. 상대원시장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금 옛 영화(?) 되찾을 출발점으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뚝뚝뚝뚝’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지난 해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준비·진행했던 <상대원시장 사랑방 원다방>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인근 상대원공단의 급여일인 10일이면 사람들로 넘쳐 한밤중까지 불을 환희 밝혀 두어야만 했다는 상대원시장을 문화예술의 향기로 되살릴 꿈을 꾸었고 공공시각미술, 공공컨텐츠예술,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다방’을 과거 그 원다방처럼 사람들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상대원시장 상인회가 이곳에서 그 태동을 시작했고, 꽤 오래 전부터 상대원동에 등지를 틀고 있던 ‘성남함께하는 주부모임’의 회원들 역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는 <상대원시장 사랑방 원다방>이 상대원시장 상인들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써 그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 원다방, 진짜 다방이 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원다방의 분위기를 바꿔 보자는 의견들이 대두됐습니다. 한 마디로 다방 같지 않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원다방을 꾸밀 때만 해도 우리는 원다방이 어떻게 활용될 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상대원시장 상인간 상대원동 주민간 차 한 잔을 나누는 대화와 만남의 장으로 원다방이 활용되길 바랬지요.

그래서 차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에 그저 탁자와 의자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꿈꾸는 원다방을 옮겨 놓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사랑마루의 한유진 상대원동 팀장은 곧 원다방 리모델링 위한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다방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연두색 탁자 대신 나무 느낌이 잘 드러나는 탁자와 딱딱한 의자 대신 폭신한 소파가 들어 섰습니다. 다방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던 기존 찬장 대신 한 팀장이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아 만든 멋진 찬장도 들어섰습니다.

원다방의 한 칸 한 칸이 한 팀장을 비롯한 지역예술가들의 힘으로 진짜 다방처럼 변해갈 때마다 원다방을 찾는 상인, 주민들은 놀람을 표시했고 그런 반응에 한 팀장을 비롯한 지역예술가들도 신명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면이 문제였어요. 벽지를 발라 벽면 분위기를 바꿔야 진짜 다방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오래 전에 핸드데코로 벽면 꾸며 놓아서... 어려울 것 같았지요.”

고민하던 한 팀장은 결국 벽면 전체를 기계로 밀어 반듯하게 만들어 벽지를 바르기로 하고 위종만, 신승섭씨와 함께 벽 밀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시간을 피해 주말 동안 진행된 벽 밀기. 사랑마루 내에서는 ‘공포의 벽 밀기’란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 작업은 정말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벽에서 나온 분가루가 원다방에 가득 차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숨조차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팀장을 비롯한 지역 예술가들은 못 쓰는 옷가지와 마스크로 눈만 간신히 내 놓고서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고스란히 벽 밀기에 투자한 끝에 마침내 핸드데코를 벗어난 온전한 벽이 드러났습니다. 이 벽에 검정색 벽지를 바르자 다소 어둑어둑한 옛 다방 분위기가 제대로 드러났다.

다시 천정에 새 전등이 달리고, ‘공포의 벽밀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랑방 한 구석에 비닐이 씌워져 보관되어 있던 탁자와 의자가 제자리를 잡자 원다방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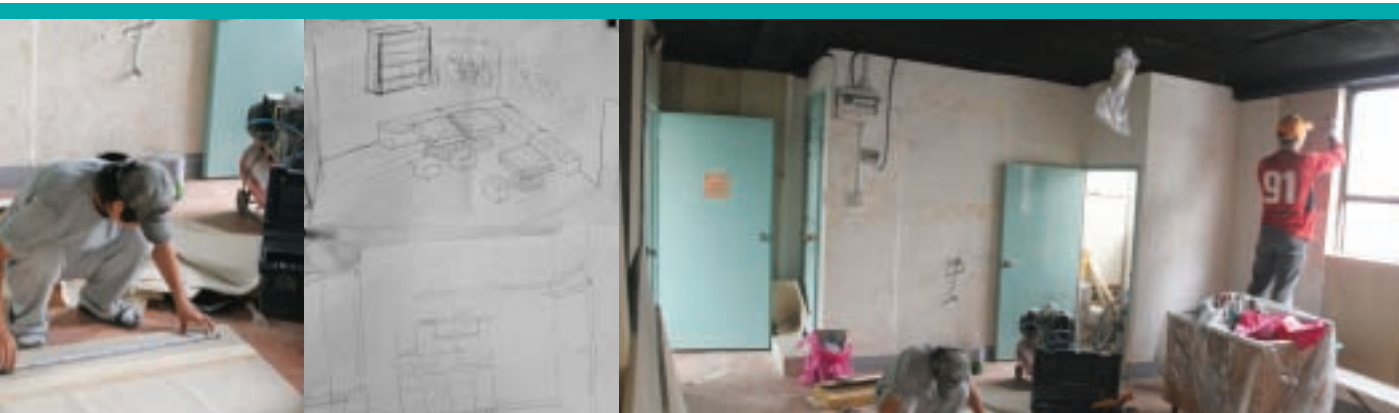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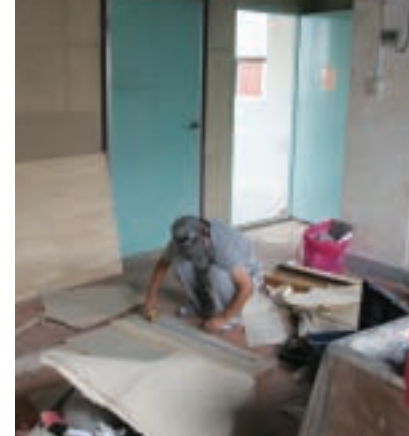
원다방은 이렇게 제모습을 갖췄지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다방을 지켜 왔던 기존 탁자와 의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곧 해결되었습니다.

기존 탁자는 사랑방으로 옮겨져 문화배움터의 강사 및 사랑마루팀이 각종 자료들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때는 훌륭한 진료실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자는 멀리 도촌동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성남문화재단의 올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자 공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랑마루(대표 이상훈)’에 의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포함된 <도촌동 프로젝트>에 요긴하게 쓰인 것입니다. 이 의자에서 <도촌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10가족이 앉아 다양한 문화배움터를 진행했지요.

리모델링에 의해 더 다방스러워진 원다방. 이제 우리에게 이 곳을 진정한 커뮤니티케이션의 장으로 만들 숙제만이 남았습니다.





## 원다방, 마침내 사랑방이 되다

지난 11월 10일 오후 12시, 배꼽시계가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우리, 이제 밥 먹고 하는 것이 어때요?”

아니랄까. 사랑방 밖 원다방에서 “점심 먹고 합시다”라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장미라 국장님이 미디어이야기공작소 수업 중인 윤혜숙 선생님과 수강생들을 부릅니다.

그 소리에 사랑방에서 온전히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뛰어 나온 윤 선생님과 수강생들은 저마다 수저를 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한 상을 마련합니다.

“김치밥,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커다란 압력솥에 시큼한 김치를 한데 비비며, 장 국장님이 묻습니다. 그러나 다들 김치볶음밥이 아닌 김치밥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 딱히 정답이 있을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김치밥이라는 놈이 등장한 것일까요?

며칠 전 장 국장님이 원다방에 앉아 있다 함께 차 마시던 이길순님에게 김치를 좀 지저 먹고픈데 묵은지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더랬습니다. 이에 이길순님은 마침 집에 선김치가 제법 있다며 장 국장님에게 이를 나눠주기로 했었지요. 그리고 장 국장님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김에 원다방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김치밥을 한 번 하겠노라 했었지요.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 북의 작가인 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김치밥 먹으러 오라고 했더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데 이길순님은 이 날 점심식사가 끝나고 차 한 잔까지 하고 나서야 뒤늦게 나타나셨습니다. 김치밥을 해 먹으라고 했지, 언제 자신이 나타나겠노라고 했냐면서.

아무튼 금방 압력솥에 꺼낸 따뜻한 밥에 묵은지와 양념간장을 쓱쓱 비벼 먹는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난생 처음 맛본 맛에 모두 수다를 멈추고 밥에만 집중합니다. 십여 명 여자들의 수다를 멈추게 하다니 김치밥이란 놈은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김치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 맛 역시 그 어디에 비할 바가 없는 맛입니다. 그저 된장에 무우와 호박, 감자를 넣은 것이 전부인 소박한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다니요.

박신명님이 오늘 점심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끓였다는 이 된장찌개의 맛은 박신명님이 직접 만든 된장에 그 비밀이 있었답니다.

이 된장은 박신명님의 고향에서 올라온 콩에 박신명님이 직접 발품을 팔아 구매한 천일염으로 만든 것입니다. 된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다들 박신명님에게 된장을 얻어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니…하면서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 된장에 좋은 멸치와 미리 잘게 잘라 냉장고에 넣어 놓은 마른 다시마와 마른 표고버섯만 넣으면 다른 재료 없이도 훌륭한 된장찌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 번 팔아볼까 하는데… 한 번 맛이나 볼래?”

덕분에 박신명님은 집에 다시 한 번 다녀 와야 했습니다. 다들 된장을 사겠다고 난리인 통에 집에 된장을 가지러요. 심지어는 고추장도 이렇게 맛있냐며 고추장을 부탁하는 사람(아쉽게도 고추장은 내년을 기약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웃들에게 인기가 좋은 덕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내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된장, 고추장 만들기 강좌를 넣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사람까지 있었지요.

그렇게 김치와 된장을 나누며, 원다방이 마치 동네 사랑방이 된 듯합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며 문화예술과 소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우리는 우리가 함께 성남에서 보냈던 그러나 서로를 알지 못했던 지난 날과 그 속에 삶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원다방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 문화배움터



# 선무도

상대원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운동 프로그램

- 진행날짜 : 2009년 5월 ~ 2009년 7월
- 진행시간 : 화, 목 오후 2시~3시 30분
- 강사 : 불광스님



## 선무도란?

선무도는 흔히 위빠사나라고도 불리는 수행법으로 불교의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 전하는 전통수행법입니다. 본래는 불교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시작된 불가의 전통 수련법으로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 방어 위주의 동작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선무도는 깨달음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요가나 명상을 아우르는 관법수행법입니다.

## 원다방 사람들

사람 사귀는 재미,  
얘기하는 재미 더 커

### ■ 상대원시장 부흥상회 이봉효님

상대원시장이 막 태동을 하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년간 남편과 함께 부흥상회를 지켜 온 이봉효님은 꽤 오랜만에 장사는 남편에게 맡겨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옆집인 쌍둥이기름고추 김철술님과 원다방으로 선무도를 배우러 나선 것이지요.

선무도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하루 종일 웅기종기 진열해 놓은 그릇들 사이로 왔다갔다만 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선무도라는 운동 프로그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선무도에 도전했습니다.

허나, 선무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한꺼번에 써야 했으니까요. 덕분에 한 동안은 삭신이 다 쭈셨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거 있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그녀가 선무도를 하면서 몸이 좋아진다는 거들 자랑하자, 남편 역시 그녀를 응원하며 일주일에 두 번 오전 시간에는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지난 30년간 여름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간 것을 만회할 겸 말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웃 상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선무도를 권했습니다. 그 바람에 몇 분이 그녀와 함께 원다방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결국 남은 이는 이봉효님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안쓰는 근육을 쓰게 되니까 몸이 아픈 건 당연지사인데, 그것을 못 참더라고...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 소용없어.”

그러나 그녀가 한참 선무도에 재미를 붙여갈 무렵 선무도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쉬워서 선무도반 회원들끼리라도 ‘선무도반을 꾸려가 볼까?’ 생각을 했지만 아직 선무도가 몸에 붙지도 않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모란에 수련장이 있다는데 거기서 가 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가게를 하루 종일 비우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입니다. 또 혼자서 하려니 사람 사귀는 재미, 얘기하는 재미가 없어 덩달아 운동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혼자 장사를 하거나 깍해야 부부가 장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화 배움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한참 장사할 시간에 진행돼 업드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 뭐, 대다수의 상인들이 그저 꼭 안 해도 되잖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그녀는 문화예술의 향기가 땀뭍 담겨져 나오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사가 잘 되는 그래서 상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상대원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에는 그녀의 바람이 꼭 이뤄져 장사도 잘 되고 문화예술의 향기도 땀뭍 담겨져 나오는 그런 상대원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 소금반

우리 나라 전통 음계와 함께 우리 악기 소금을 배우고 익힌 어린이 프로그램

- 진행일시 : 2009년 8월 ~ 11월
- 강사 : 정진경



## 소금

통일신라시대부터 전하는 3죽(三竹 : 大箏 · 中箏 · 小箏)의 하나로 그 중 가장 작습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중금과 소금의 제도와 보(譜)는 대금과 같고, 크기만 다를 뿐 지법(指法)이나 음계 등도 모두 대금과 같다”고 하였으나 청공(淸孔)과 칠성공(七星孔)이 없다. 취구(吹口)와 6개의 지공(指孔)이 있으며, 관악기 가운데 가장 높은 음을 냅니다. 대개 대금의 가락을 한 옥타브 높게 변주하여 연주합니다. 국악관현악에서 널리 사용되며, 드라마나 영화의 배경음악에서 소금의 연주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을 찾았습니다. 우리 악기 소금을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소금이란 악기도 소금이란 악기로 연주되는 악보도 모두 낯섭니다. 두어 달을 꼬박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음계 하나 하나의 소리를 정확히 내기조차 어려우니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 음악시간과는 달리 선생님이 함께 소금을 잡고 일일이 음계 하나 하나를 집어 주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정성에 감동한 모양입니다. 간혹 소금이 내는 소리가 보기에는 다소 불편한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소금 연주에 열중입니다.

특히 소금반의 어린이들 대다수는 춤마 DJ들의 아이들로서 엄마와 함께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찾아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을 가족끼리 함께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 보이는 어린이 라디오

- 진행기간 : 2009년 8월 10일 ~ 22일
- 강사 : 윤혜숙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



## ■ 교육내용

- 정리 장미라(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국장)

우리들 선생님은 윤혜숙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수업을 받는 동안 심혁, 심준경, 송현석, 송민석, 전아영, 전아진, 서유라, 이수진, 김동현, 김무현 이런 이름 말고 별명을 하나씩 지어서 부르자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별명을 하나씩 지었다.

혁이는 손오공, 준경이는 도토리, 현석이는 아이스크림, 민석이는 석산, 유라는 상큼이, 아형이는 스카이 전, 아진이는 복덩이, 동현이는 현이, 무현이는 미니똥.

우리는 모두 자기 별명에 만족했다. 사실 시간이 있다면 더 근사한 별명을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첫 수업.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감과 네모나고 평평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판지를 나누어 주고 거기에서 상대원시장 하면 생각나는 색깔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 고민스럽게 했다.

상대원시장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무슨 색깔을 떠올려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들은 곧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원시장의 색깔들을 만들어 냈다. 석산은 하늘색을 만들었다. 상대원시장하면 파란 하늘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현이는 갈색을 만들면서 상대원시장에 오면 냉면 육수가 생각나서 그런다고 했고 현석이는 하얀색이 생각난다고 했다. 현석이는 어릴 때 상대원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다. 그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스카이는 노란색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원시장에 대해 생각나는 한가지씩의 색깔을 찾아냈다.

그렇게 워밍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 하셨다.

그때 뜬금없이 석산이 물었다.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그 말에 선생님 눈이 동그래 지셨다가 곧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내 나이는…… 음~ 아마 너희들 엄마하고 비슷할 거 같은데.”

아이들이 와~소리를 지른다.

아무래도 엄마와 나이가 비슷한 처녀 선생님이 신기한 모양이다.

술렁거리는 아이들이 진정 되기를 기다려 선생님은 능숙하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거나 사진을 찍는 시늉을 해가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신다.

“가까이에서 표정을 잡는 것을 클로우샷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에 따라 크로우 샷을 잡고 사진기 셔터를 눌렀다.

“풀 샷은 멀리서 찍는 것을 말하고, 미디엄은 서 있는 인물의 무릎 위쪽이나 앉아 있는 인물의 전신을 찍는 촬영 컷을 말한다.”  
아이들이 카메라를 서로 만져보기도 하고 셔터를 눌러 보기도 하고 야단이 났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배운것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방금 공부한 풀 샷 등으로 사진을 5컷씩 찍어서 ‘5컷 사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 하신다.



## 이야기가 있는 5컷 사진

우리는 여자애들 한 팀 남자애들 한 팀 이렇게 팀을 나누었다.

여자애들은 5컷 이야기 구성을 컵을 씻다가 떨어뜨려 깨고 어른에게 혼나고 벌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잡았다.

혼나는 아이 역할은 상큼이가 맡고 혼내주는 어른역할은 스카이전이 맡았는데 6학년인 스카이전은 고학년이라 그런지 어른처럼 연기도 참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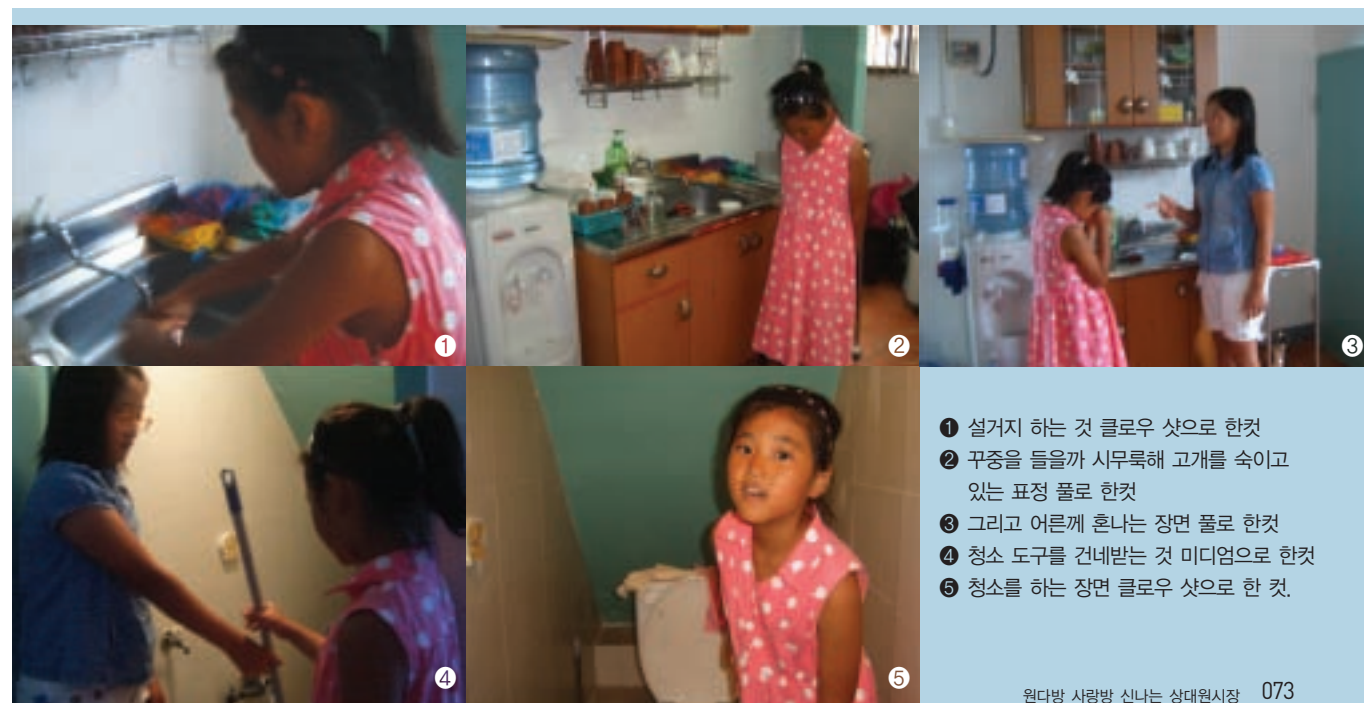
남자아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잡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가 다시 바뀌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찍자고 했다.

앞에 가던 아이가 넘어지자 넘어진 아이에 걸려서 다음 아이가 넘어지고 그 다음 아이가 또 넘어지는 우스운 장면을 컷으로 찍기로 한 것이다.

사진에 찍힐 아이들은 첫 번째로 미니퐁이 당첨이 되었고 다음에 현이와 석산이 당첨이 되었다. 아이스크림은 카메라를 맡았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있는 5컷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는 시간.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교실을 좀 어둡게 해서 벽에다 빔을 쏘자 사진이 보였다. 우리는 책상 위와 바닥에 각기 편한 자세로 앉아서 보았는데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작품이 되어 나오니까 신기하고 기분이 묘한 게 꼭 등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정말 표정 관리 하는 게 힘들었다.



- ① 설거지 하는 것 클로우 샷으로 한컷
- ② 꾸중을 들을까 시무룩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표정 풀로 한컷
- ③ 그리고 어른께 혼나는 장면 풀로 한컷
- ④ 청소 도구를 건네받는 것 미디엄으로 한컷
- ⑤ 청소를 하는 장면 클로우 샷으로 한 컷.



- ① 미니똥이 달리다가 넘어지는 장면 풀샷으로 한컷.
- ② 그 뒤에 현이가 걸려 넘어져 있는 것 미디엄 샷으로 한컷.
- ③ 다음은 셋이 다 넘어져 있는 것을 미디엄 샷으로 한컷.
- ④ 미니똥이 넘어져 아픈 표정 클로우샷으로 한컷
- ⑤ 석산과 현이 넘어져서 기절할 듯이 아파하는 표정 클로우 샷으로 한컷

## 캠코더랑 놀자.- 캠코더 작동 요령

“카메라도 그렇기는 하지만 캠코더는 무거우니까 한손을 밑에 받치고 찍어야 화면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이 된다. 접사기능은 피사체를 더 자세히 찍으려고 할 때 사용하면 돼.”

선생님 말씀이 계속 이어졌다.

“수동 상태에서 초점을 맞출 때는 초점 조정 버튼을 이용해라.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경우 원하는 피사체를 정확히 강조할 수 있긴 하지만 이동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초점을 맞추기 어려니까 이 경우는 초점 버튼을 누르면서 촬영하면 누르는 동안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선생님은 캠코더 작동법과 촬영법을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다.

## 애들아, 시장에서 놀자.

캠코더 작동법과 촬영법을 배우고 나서 우리는 시장 상인들을 직접 인터뷰 하고 또 작가가 되고 배우도 되어 드라마도 한편 찍어보기로 했다.

그 일을 하기위해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카메라 장비를 보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다. 모두가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던 진짜 방송용 카메라 장비들 같다. 이런 카메라 장비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털북숭이처럼 수북한 털 속에 마이크를 집어넣고 긴 막대에 고정시켜서 들고 서 있는 일도 신기하고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다리를 쭉 뽑아서 세워두고 사진을 찍는 것도 폼 나서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진다. 기분이 아주 괜찮았다.

상가에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은 우리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협조를 잘하여 주셨다.

우리는 반찬가게에 가서 반찬을 만드는 모습도 찍고 어묵 가게에 가서 어묵 모양을 만들어서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집어넣는 것도 찍었다. 그리고 신발 가게에 가서는 예쁜 신발과 건어물 가게의 건어물도 많이 찍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신기한 듯 우리를 구경을 한다. 우리는 그런 것조차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다. 비록 날씨는 무지무지 더웠지만 말이다.







옆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잘못 찍는 부분들에 대해 더 잘 찍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주셨다. 마이크에 소리가 잘 들어가게 들고 있는 방법도 물론 알려주셨다. 그리고는 더워서 혀를 빼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어묵을 사주셨다. 방송국 아줌마는 라면을 끓여 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팀을 나누어 여자 아이들은 시장 상인들 인터뷰를 하고 남자 아이들은 드라마를 찍기로 했다.

그리고 상대팀이 촬영을 하는 동안 나머지 팀은 장비를 들어주거나 마이크를 잡아주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여자아이들이 인터뷰 할 상가를 섭외해 왔다.

시장야채, 쌍둥이기름고추, 그리고 합동신발이 인터뷰에 응해 주기로 하였다.

쌍둥이기름 사장님과의 인터뷰는 복덩이 아진이가 맡았다.

복덩이는 처음엔 못한다고 징징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씩씩하게 변해서 언제 징징거렸냐는 듯 사장님께 궁금한 것을 잘도 물어 본다.

복덩이 질문.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사장님이 답을 하신다.

“한 30년 됐습니다.”

“이 일이 보람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보람이 있지요.”



그렇게 복덩이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옆에 서있던 상قم이가 자기는 인터뷰 같은 거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냥 상인들에게 묻기만 하면 되는 일을 상قم이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못하겠다고 눈물까지 줄줄 흘린다.

우리는 그런 상قم이를 달래느라고 진땀이 다 났다.

인터뷰를 다 마친 복덩이가 감독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감독 스카이는 인터뷰 내용이 만족스럽지가 않은지 오케이 싸인을 주지 않았다.

복덩이가 더운 날씨가 힘들어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감독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중에도 일명 딱따기를 맡은 미니퐁만 혼자 신이나 죽는다.

딱따기란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 서 있다가 감독이 큐 싸인을 주면 들고 있던 슬레이트를 딱 치는 일을 말한다. 그렇게 딱따기를 치고 뒤로 빠지면 그 다음 인터뷰가 시작되는데 그 딱따기를 맡은 것이 미니퐁이다. 미니퐁은 그것이 참 즐거운 모양이다. 미니퐁은 딱따기를 좋아하고 석산은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기다란 마이크를 들고 쫓아다니는 현이는 팔이 아파 인상이 찡그려져있다.

리포터를 맡은 복덩이는 자꾸 되풀이 해야 하는 인터뷰가 짜증나고 상가에 주인아저씨는 밀려오는 손님들 상대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라 바쁘시다. 다른 아이들 즉 카메라나 마이크, 리포터들은 감독의 오케이 싸인이 나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미니퐁만은 ‘다시’ 싸인을 더 기다리는 눈치다. 순전히 딱따기를 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작, 작. 으헤헛’

“오케이”

오랜만에 스카이의 입에서 오케이 싸인이 떨어졌다.

다음은 시장야채에 인터뷰를 할 차례.

시장야채는 스카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별 무리 없이 빨리 끝을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좀 미안했던 것이 있다. 인터뷰 장소가 골목이다 보니 오고 가는 손님들을 통제를 해야 했는데 손님들이 가는 길을 딱 막고는 카메라를 들이대자니 참 미안했다. 시장야채 사장님은 일도 보람 있고 돈을 벌어 집에 보탬을 주니 좋다고 말씀하신다. 시장야채 사장님은 우리들에게 훌륭하게 자라라는 덕담도 해주셨다.

두 곳을 찍고 나니 오늘 수업 시간이 다 갔다.

아무래도 신발 가게는 내일 인터뷰를 해야겠다.

내일은 상큼이가 인터뷰를 해야하는데 오늘처럼 울지 말고 잘 해주기를 바란다.

상큼이가 신발 가게 인터뷰를 하는 날.

잔뜩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사라져 버렸다.

왜냐하면 상큼이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으로 왔기 때문이다. 정말 다행이다.

상큼이는 별명처럼 상큼하게 웃으면서 합동 신발 사장님께 인터뷰 요청을 했다.

“사장님 신발 가게는 몇 년을 하셨어요?”

“한 27년 되었지!”

“보람이 있으신가요?”

“보람? 그이 그저 우리 먹고 사는 거니께~~허허허!”

사장님이 답을 하시면서 웃으신다. 아마도 조그만 상큼이가 보람이 어찌구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좀 당돌하면서도 귀엽고 또 답하기가 멋쩍어서 그러시는 모양이다.

우리도 아저씨를 따라서 하하 웃었다.

정말이지 아무리 들어도 상큼이 목소리는 또랑또랑 한 것이 리포터하기엔 딱 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모두 다 끝났다.

인터뷰가 끝나자 우리는 시장 가운데 모여 기념사진을 한 장 찍는다.

‘찰각’

그 다음에는 상가 주변과 상인들 표정을 카메라에 담기.

석산이 상대원 시장의 표정들을 카메라에다 열심히 담고 있다.

석산은 카메라를 누가 만지는것도 싫어할 만큼 카메라를 좋아한다.

석산이 그저 카메라를 좋아하기만 하느냐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석산은 카메라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사진 찍는 실력도 탁월하다. 석산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묵이 기름에 지글지글 익는 모양도 기가 막히게 찍혀 나오고 어묵 가게의 건어물과 아저씨의 일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찍혀 나왔다. 석산은 상대원 시장 골목을 올라가는 길도 찍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표정도 카메라에 하나씩 담는다.

다음은 여자애들이 방송국 안에서 내레이션을 하는 시간.

북덩이가 방송국 안에 들어가 녹음을 한다.

‘여기는 상대원시장입니다.....’







이제는 드라마를 찍어야 하는 시간이다.  
 남자 아이들이 드라마 대본을 만드느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방송국에서 책읽어주는 방송을 하고 티켓을 받아서 냉면을 사먹는 이야기로 대본을 써보면 어때?”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 아이들은 곧 바로 대본을 만들고 드라마 촬영에 들어갔다.  
 두 형제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시장 골목을 랄랄라 내려온다.  
 동생이 형에게 묻는다.  
 “형 오늘 어떤 책 읽을 거야?”  
 “응, 바보 이반 이야기”

방송국에 도착한 두 형제가 책 읽어주는 방송을 하고 티켓을 받는다.  
 티켓을 가지고 냉면 집에 가서 냉면을 아주 맛나게 먹은 형제.  
 서로 빼앗아 먹으면서 즐겁게 남남남…….  
 냉면을 다 먹고 티켓을 내고 거스름돈 천원이 생겼다.  
 그때 형이 말했다.  
 “이 돈으로 사리하나 추가하자.”  
 “싫어, 안 돼”  
 “뭐가 안 돼, 난 더 먹을 거야. 아저씨 여기 사리 하나만 더 주세요.”  
 형이 남은 돈으로 사리를 추가하자 동생은 그만 화가 난다. 동생은 남은 돈으로 살 것이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 동생은 그때부터 형을 골려주기 시작한다.  
 칠판에다 ‘현이는 바보, 똥개’ 하고 써서 놀려주기도 하고 물 풍선을 만들어서 골목에 숨어 있다가 형에게 던지고 도망가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장난감 가게에 있다.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칼을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돈을 꺼내 세어 보고 시무룩해져서 가게를 나오고 있는 동생.

그때 동생 앞에 ‘짜잔’ 나타나는 형.

형의 손에는 조금 전에 동생이 만지작거리다 두고 온 칼이 들려있다.

“이게 그렇게 가지고 싶었냐?”

“응”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형이 칼을 동생 앞에 내민다. 동생의 얼굴이 환해지고 둘은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났다.

드라마에 나오는 형은 현이가 맡고 동생은 손오공이 맡았다. 손오공은 진짜 손오공처럼 장난이 심해서 가끔 수업 분위기를 망쳐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귀여운 애다.

이렇게 해서 드라마 촬영 끝~~

생각해보니 드라마를 찍을 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 배우들이 냉면을 먹을 때 옆에 서있던 스탭과 구경하던 아이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다가 촬영이 끝나자마자 모두 와르르 달려들어 소품인 냉면을 순식간에 먹어버렸던 일. 그것도 국물까지 깨끗하게. 참 즐거운 기억이다.

ㅋㅋㅋ……. 그것 참 맛있었는데~~~

마지막 수업 시간.

10강의 수업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맡았던 역할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맡았던 역할을 종이에 적고 예쁘게 그림도 그려 넣어서 카메라 앞에 한사람씩 섰다.

저는 리포터와 슬레이트를 맡은 상금이입니다.

저는 감독과 리포터를 맡은 스카이 전입니다.

저는 나레이션과 리포터를 맡은 복덩이입니다.

저는 배우를 한 손오공입니다.

저는 감독과 마이크를 맡은 도토리입니다.

저는 마이크와 배우를 맡은 현이입니다.

그때 미니퐁이 슬레이트(딱따기)를 맡았다고 말한다는 것을 잊어서 옆에 있던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고 조그맣게 묻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미니퐁은 참 귀여운 꼬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맡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맡은 석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수업은 끝이 났다.

선생님은 통닭과 피자를 사주며 우리에게 종파티를 열어주신다.

그리고는 그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었던 드라마와 인터뷰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순간 감동이 물려왔다.

저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라니..

선생님은 그것들을 CD로 구워서 우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헤어질 시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선생님께 또 언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냐고 하니 기회를 봐서 또  
 해보자고 하신다. 나는 벌써부터 그때가 기다려진다. 다음번에는 이번에 하  
 지 않은 다른 역할들을 도전 해 보고 싶다.  
 집에 와서 일기를 쓰다가 생각해본다.  
 나는 이번 방학에 배운 것들이 참 즐겁고 보람도 있었다. 특히 상인 분들이  
 인터뷰해주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작은 아  
 이들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성의껏 대해주는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자  
 세…… 감동스러운 모습이었다.



# 1인아나듀오양성과정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은 지난 해 12월부터 자발적인 지역주부 모임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부 1명이 PD, DJ, 엔지니어로서의 1인 3역을 수행하며 방송을 진행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장비를 다루는데 있어서 주부들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줌마DJ들을 위한 ‘1인아나듀오양성과정’을 열었습니다.

- 진행기간 : 2009년 8월 24일 ~ 9월 25일
- 진행일시 : 월, 수, 금 오후 7시
- 강사 : 박채은, 차혜영



- 교육내용
  - 정리, 사진 : 장미라(〈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방송국〉국장)

방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줌마들이 한 밤중 원다방에 모였다.

월 수 금 아주 뽀뽀하게 짜여진 수업 진행표.

강사는 차혜영 일명 ‘곰’ 선생님이고 보조 강사는 박채은 ‘용산댁’이라 불리는 선생님이다.

그녀들을 바라보는 줌마들의 눈이 기대로 가득 차있다.

1강은 자기소개로부터 시작 되었다.

강사는 우리에게 별칭을 하나씩 지어서 부르자고 제안한다. 아무래도 요즘 강의는 수강생들이 별칭을 지어 부르고 서로 돈독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세인 모양이다.

우리는 강사의 제안에 따라 별칭을 하나씩 지었다.

박신명-신명, 양희정-티나, 이길순-길순영아, 장미라-그리미, 박인자-자유부인, 장윤정-y짱 등등…….

교육시작이다.

우선 카메라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그리고 전기 신호에 대한 것 해상도 메모리카드의 종류 등을 배우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고난위의 교육이 될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오랫동안 쓰지 않던 줌마의 머리가 생소한 전문 용어들을 주위 담느라 뱅뱅 돌기 시작.

오아~현기증이 난다.







## ♣ 디지털 카메라 [digital camera]

소형의 자기 디스크에 정지화상을 저장한 후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카메라이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스틸 카메라이고 렌즈를 통과한 빛을 전자결합소자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콤팩트디스크(CD)와 플로피 디스크 등 자기 디스크에 기억시킨 후, 촬영한 화상을 재생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거나,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해상도가 필름사진만큼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값도 저렴해져 영화제작에서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해상도 (解像度)

해상도(解像度)는 어느 일정한 단위 안에서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주로 컴퓨터 디스플레이 모니터, 디지털 텔레비전, 또는 프린터의 출력에 쓰인다.

해상도가 높다는 말은 같은 면적의 디스플레이에 많은 화소 수로 이미지를 표현하여 훨씬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메모리카드

메모리 카드에는, 신세대 IC기록 미디어로서, 여러 가지 용량의 메모리 카드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메모리 카드가 출하되고 있어서, 메모리 카드용 컴퓨터 카드 어댑터나, 플로피 디스크 어댑터 등에 장착하면 PC에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고, 각종 메모리 카드에 대응하는 다양한 AV(오디오(AUDIO)와 비디오(VIDEO))기기도 다양해서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이 보다 확대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

### 메모리 카드의 종류



### 디지털 카메라 메뉴

디지털 카메라의 모드 다이얼은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된 각 촬영 모드를 선택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종의 스위치로서 이러한 모드 다이얼의 내용은 각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위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는 내용을 숙지한다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재생모드 (미리보기)	사각형 안에 삼각형 아이콘이 들어간 모양의 그림은 재생모드를 의미하는 표시로서 거의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공통된 아이콘
	인물촬영모드	인물촬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모드로서 대부분 조리개를 개방으로, 셔프니스를 흐리게 설정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효과적인 인물 촬영이 가능하도록 한 모드
	풍경촬영모드	풍경촬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모드를 의미하는 아이콘
	야경촬영모드	야경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느린 셔터 스피드와 노이즈 감소 알고리즘이 탑재된 모드
	연속촬영모드	연속촬영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서 사진기가 겹쳐있는 아이콘 혹은 사각형 모양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사용됨
	동영상	촬영모드 동영상 촬영가능 한 제품에 이러한 모양의 아이콘이 있으며 회사에 따라 필름모양의 아이콘을 사용
	접사 버튼	가까운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접사 기능을 사용하는 버튼을 의미하는 아이콘
	셀프타이머	셀프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
	플래쉬 버튼	플래쉬 기능을 사용하거나 플래쉬 모드를 변경시켜주는 버튼
	노출 보정	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밝게 혹은 좀 더 어둡게 촬영할 수 있는 노출보정 기능을 의미하는 아이콘
	이미지 삭제	현재 액정화면상에 보여 지는 이미지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능을 보여주는 버튼 혹은 메뉴 아이콘
	이미지 확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미지를 확대해 볼 때 사용하는 버튼 아이콘

♣ **아날로그(Analog)와 디지털(Digital)**

아날로그(Analog)란 어떤 양 또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변환하는 물리량(전압, 전류 등)으로 표현 하는 것이고, 디지털(Digital)은 어떤 양 또는 데이터를 2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날로그는 곡선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 하고, 디지털은 1과 0이라는 숫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날로그 신호는 전류의 주파수나 진 폭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전류를 전달하고, 디지털 신호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1)와 흐르지 않는 상태(0) 의 2가지를 조합하여 전달한다. 디지털 방식은 연속적인 값들을 모두 세분해서 그 세분한 값들을 전부 하나의 값으 로 표시한다. 이를테면 0부터 1사이는 0, 1부터 2사이는 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1해 아날로그 방식 에서는 0.3은 0.3, 0.327은 0.327 그대로 표시한다.

**디지털(Dig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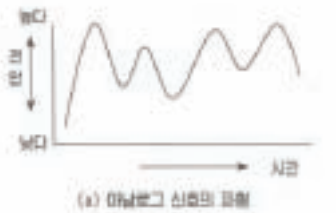
디지털의 어원은 디지트(Digit)로서 손가락이란 의미인데, 그것이 변해 서 손가락의 폭이란 의미로 되어 길이의 단위로 되었다. 즉, 옛 고대 이 집트 때는 1디지트가 18.9mm였는데 그러다가 점차 손가락이란 의미가 변해서 숫자를 의미하게 되었고 옛날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물건을 세었 으며 물건을 세기 위한 손가락이 숫자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LP(Long play)**

LP레코드 재생 시스템은 비닐 레코드에 기록된 기계적인 정보를 다른 재생 시스템에서 증폭할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해 주는 턴테이 블(turntable), 톤암(tonearm), 그리고 포노 카트리지(phone cartridge)의 조합이다. 턴테이블은 레코드를 회전시키고 톤암은 카트 리지를 제 위치에 유지시켜 준다. 그리고 카트리지는 레코드의 홈을 전 기적인 신호로 전환한다. 이런 구성 요소들과 이들의 상호 작용 방법이 시스템에서 좋은 소리를 얻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groove)에서 얻어지는 홈들 LP 판 표면에 빼곡히 파여져 있는 미세한 소리꼴을 카트리지의 바늘이 지나가며 소 리를 재생하게 된다. 물론 이때 발생한 전기신호를 앰프가 증폭하게 되겠지만, 앰프를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여보면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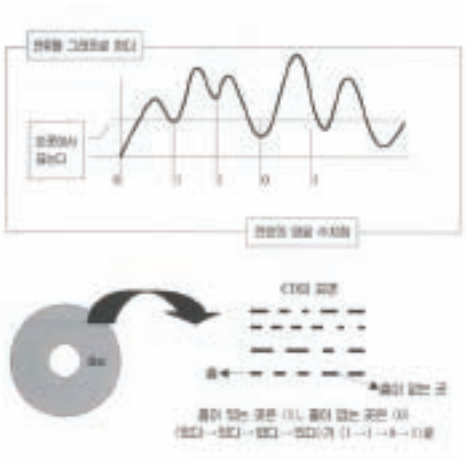
**CD(Compact Disk)**

디지털 제품인 CD(Compact Disk)는 전압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여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한다. 이



와 같은 숫자나 열을 전기신호, 즉 전류로 나타낼 수 있는데, 0 일 때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고 1일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장치가 있으면 간단하다. CD 표면에도 작은 홈이 있다. 이 홈 은 1과 0 이다. 여기에 레이저 빛을 쏘이면 그 반사를 읽어서 얻을 수 있다. 홈이 있으면 난반사 시키고 홈이 없는 곳에서는 스트레이트로 반사 하게 된다. CD는 빛의 반사로 음을 읽기 때문에 먼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CD는 음 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CD 유통 규격화 16bit-비트레이트(65536개의 상하구간), 44.1KHZ(초당 44100개의 구간으로 주파수를 디지털화) 샘플링



♣ **마이크 종류와 특징**

마이크의 종류와 특징을 배우는 시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마이크인 줌마들이다 보니 이번 강의에 더욱 눈이 반짝거린다.

**다이내믹 마이크**

다이내믹 마이크는 고정 자석 주위로 감겨있는 무빙코일의 움직임을 이용해 소리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콘 텐서 타입의 마이크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튼튼하여 라이브 상황에서 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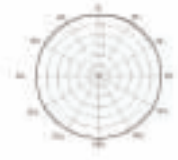
**콘텐서 마이크**

콘텐서 마이크는 고정 자석 사이에 가는 리본형태의 펄립 감지장치의 움직임을 이용해 소리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킨다. 소리반응에 매우 민감하기에 다이내믹 타입의 마이크 보다 가격이 비싸며 민감한 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 야 하기에 주로 녹음실이나 고감도를 요하는 마이크로 이용된다.

**마이크의 종류 - 지향성에 따른 분류**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소리를 캐취(집음)하려는 소리의 폭(지향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 지향성 때문 에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마이크가 이번 촬영에서의 오디오 픽업에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사용할 마이크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무지향성 마이크(전지향성 마이크) (0도~180도)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를 모두 균일한 크기(감도)로 수음한다. 소리가 울리지 않고(잔향이 없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는 나름대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메라에 장착된 마이크 말고, TV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기자나 리포터가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핸드 마이크나,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이 무지향성 마이크의 일종이다.



### 단일 지향성 마이크

특정한 방향에서 나오는 소리에만 크게 반응을 하고, 그 방향 축을 벗어날수록 반응이 작아지는 특성을 갖는 마이크.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주위에 소음이 많은 곳과 같은 장소에서 특정한 소리만을 수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마이크는 마이크가 향하는 방향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리를 수음하려는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말하는 상대에 따라서 마이크의 방향을 민첩하고 예민하게 조절해 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리만 강하게 수음되고, 미처 방향을 바꾸어 주지 못한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소리는 극히 미약하게 수음되어 버려 실제로는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일 지라도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처럼 녹음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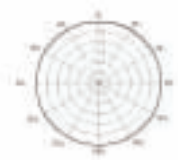
〈그림〉 앞의 방향(0도 방향)과 양 옆의 방향(90도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에만 반응.



### 초 지향성 마이크 (30도 이내의 좁은 각도 반응)

초지향성 마이크는 건마이크나 건 마이크 뒤에 파라볼라 안테나와 같은 집음판까지 장착한 마이크와 같이 특정하게 좁은 각도에서의 소리만 수음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크로 다른 마이크에 비해 지향성이 매우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수음하는 각도가 10~20°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음 중에서 어느 특정한 소리만 수음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됨.



### 양방향성 마이크(쌍지향성 마이크)

지향 축과 그 반대 축 양쪽 모두 감도가 높고 옆쪽은 감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갖는 마이크로, 쌍지향(양지향)성 또는 전후지향성이라 한다. 쌍지향성 마이크는 8자 모양의 지향 패턴으로 마주 앉아 진행되는 토크 쇼나 음악프로그램 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된다. 이 종류의 마이크는 현재 거의 콘텐서형 마이크로써 여러 종류의 지향특성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쌍지향성의 마이크는 핸드용은 없고 고정시켜 사용되는 스탠드형만 있다. 용도는 무지향성 마이크의 예와 마찬가지로 섬세한 음원의 수음 등, 고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 인터뷰(interview)

알찬 정보를 뉴스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자는 매일 다양한 뉴스원(news source)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뒤 답변을 얻어내는데, 이 같이 대화방식의 질문을 통한 해답 찾기를 인터뷰(interview)라 한다. 인터뷰는 기자가 취재를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취재 행위이다.

### 인터뷰의 절차와 방법

-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
  - 무엇을 취재하고 쓸 것인가를 확실히 하라.
  - 취재원을 잘 파악하라. (\* 취재원: 작품이나 기사 재료의 출처)
  - 인터뷰하려는 문제의 핵심을 정하라.
  - 기자의 첫인상을 좋게 하라.
- 인터뷰 형식에 따른 종류
  - 대면 인터뷰 : 옷차림, 인상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전화 인터뷰 : 시간이 급박하거나 만나지 못할 경우의 방법이다.
  - 심층적 내용까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 서면 인터뷰 : 우편을 통해, 팩시밀리를 통해 하는 인터뷰.
  - 간접적이기에 책임성,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 인터뷰 내용에 따른 종류
  - 뉴스 인터뷰 / 고발성 인터뷰 / 유명인사 인터뷰 / 이슈 탐구 인터뷰 / 인물 탐구 인터뷰
-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종류
  - 공격적 인터뷰 / 설득적 인터뷰
- 인터뷰 대상에 따른 종류
  - 개별 인터뷰 / 집단 인터뷰
- 인터뷰 질문 작성 요령
 

질문의 작성이란 인터뷰에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취재원 유도 구상 작업을 말한다.

인터뷰 질문 작성은 문항하나하나에 섬세하고도 치밀한 준비가 되고, 문항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취재원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라.
  - 긴 질문을 피하라.
  - 취재원에게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두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혀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 취재원의 자존심을 고려하라.
- 먼저 유쾌한 질문부터 하라.
-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선택하라.
- 모호한 질문을 피하라.
- 한 질문에 하나의 내용만 담아라.

#### ● 인터뷰 기법

- 기사는 취재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속에 있기보다는 취재원이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에 있기 마련이다.
- 기사의 시작은 바로 취재, 그것도 인터뷰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인터뷰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부터 출발한다.
- 청취(Listening)란 즐기 위한 것인 동시에 정보를 얻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중심적이 되면 사고활동이 둔화되고 남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끊임없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취재는 인터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 한다.
- 비 언어적인 표현(body language)도 중요하다.

#### ● 인터뷰의 자세

- 질문자는 시청자를 대신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청자가 무엇을 궁금해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도록 한다.
- 지나친 저자세나 고자세는 금물.
- 얘기를 듣는 것이 목적인만큼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논쟁하지 않도록 한다.
-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말을 끌어낼 수 있다.
- 내가 긴장하면 취재원도 긴장하기 마련이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사정에 충분한 준비를 해 자신감을 갖고 인터뷰에 응한다.

#### ● 질문을 하는 법

- 어떤 답변을 원하는가에 따라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먼저 심사숙고 한다.
- 무엇을(WHAT) 물을지 결정되면 어떻게(HOW) 물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묻는다.
- 우회적으로 묻는다.
- 많은 취재원에게 조금씩 묻는다.
- 모든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
- 거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할 경우,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벤치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대답을 얻어내기 쉽다.

- 주위로부터 자유롭도록 배려해야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
- 발하거나 재치 있는 대답을 원할 때나, 초등학교이나 중 · 고등학생들의 대답을 원할 때는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가 용이하다.
- 질문은 짧게 해야 한다. 질문이 길어지면 대체로 대답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
- 인터뷰 도중 순간적인 침묵이 흐를 경우 침묵을 깨지 않도록 한다.
- 마이크를 대고 있으면 예상외로 계속 대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 ● 인터뷰 할 때 해서는 안 될 모습

- 동시 대칭형 질문 : 좋은 점과 나쁜 점 식.
- 택일 식 질문 : 합니까 안합니까
- 세 문장이 넘는 질문
- 예, 아니오 질문
- 진부하고 상투적인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

#### ● 관련 용어

- 인터뷰어(interviewer) : 인터뷰를 하는 사람
- 인터뷰이(interviewee) :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
- 엠바고(embargo) : 정보원이 일정한 시기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행위
-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거나,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것으로 '알지만 보도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





## ♣ 교육실습

자 이제 다 배웠으니 밖으로 나가 실습을 해보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길순 영아는 직업이 기자라 그런지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아무 곳에서나 척척 인터뷰를 해내는 길순 영아가 부럽다.

신명DJ는 참 적극적이다. 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도 어쩌면 그렇게 마이크를 아무곳에나 잘 들이대는지. 자유부인도 그렇고 모두 능동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이 어지간히 진행되어 갈 즈음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의논을 나눈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다

- 상대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홍보 방송
  - 상대원 시장에서 옷을 사서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코디 방법
  - 상대원 시장에서 시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방송 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넣어 보면 좋겠다는 것.

-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음악회에 함께하는 세일에 대한 의논.
  - 세일 때 전단지가 실용성이 있는가?
  - 실용성이 없다면 세일 때 참여한 상가에 깃발을 꽂아 놓는 행사는 어떤가?
  - 또 음악 공연은 손님이 자주 왕래를 하는 곳에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게 상대원 시장의 여 건상 가능한가?

- 상인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상인들에게 주제가 있는 편지 쓰기를 부탁하는 것은 어떤가.
  -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은 시장 상가가 50개인데 50일이면 편지 프로가 끝난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 상인과의 관계 이어가기
  - 상대원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점포 50개 지도를 주고 가본 점포에 \*별표를 하기 행사와 친절한 집 소개하는 것은 어떤가?
  - 내가 물건을 사는 주민이고 여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 방송국 상황 알아보기
  - 콘솔은 다 연결 되어있다.
  - 헤드폰 분배기
  - 컴퓨터에 연결.
  - 조절-볼륨
  - 케논책으로 쓰고 있다.
  - 55책도 있다.
  - 알아둘 것 -작은 것보다 큰 단자가 전원이 잘 흐른다.



## ♣ 스튜디오 교육

### 대본쓰기

- 프로그램 요약본 <예시 참조>
  - 방송일시, 연출 및 진행, 방송간략 내용, 선곡표
- 프로그램 대본
  - 오프닝, 코너, 광고, 노래 모두 구별되게 점선으로 표시한다.
  - 코너시간, 노래시간, 광고시간을 적는다.



### 예시

S : signal.....<>

BG up down  
오프닝멘트

BG up down  
멘트

Co 1 <여기는 상대원시장>  
BG 유키 구라모토의 OOO

M 1 나훈아 고향역 4' 40"

Co 2 <시장과 아줌마>  
BG

광고 1 상대원시장 기름집 광고 40"

## ● 대본

- 방송 전체 진행의 전체 윤곽(아웃라인)을 잡아준다.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방 송 분위기와 질은 결정된다.

## ● 녹음 전 주의사항

- 마이크 사용법
  - 마이크 지향이 중요하다!  
게스트가 와서 진행자와 둘이 이야기 한다고 했을 때에도
  - 마주보지 말고, 마이크를 정면으로 보고 얘기한다.
  - 고개 숙이지 말고 마이크 뒤로 대본을 들고 말한다.  
녹음이 아니라 생방송일 경우, 말하는 도중에 실수하더라도 적절하게 애드립으로 자연 스럽게 넘어가라.
- 끊어 읽기 : 끊어 읽을 곳을 미리 체크해 둔다.

## ● 상대원 방송국 녹음 셋팅

- 상대원 방송장비 장비셋팅 확인할 필요 있다
- 컴퓨터 2대로 셋팅해야 함 : 진행용 / 녹음(송출용)

## ● 상대원 방송국에서 방송 만들 때 생각해야할 것들.

-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더 좋다. 게스트들을 초대하라!  
혼자 하더라도 둘 인 것인 양 다양하게 변신을 하라!!
- 방송은 혼자 하더라도 기획은 함께 하는 게 좋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함께 방송국 기획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방송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자!
- 대본은 늘 청취자와 대화하듯이 쓰라!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 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게스트가 나왔을 때에는, 방송 전에 대본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대본을 길게 안 써도 되고, 질문만 써도 된다. 그리고 중간 중간 노래가 들어갈 부분과 전체 토 크 시간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한다.
- 게스트가 나왔다고 해도 그냥 앉아서 너무 길게 수다를 떠는 듯 한 진행은 적절하지 않 다.
- 게스트는 3명 이상은 피하라!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헷 갈린다.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는 구별하기 힘들다. 동시에 말하지 않도록 진행자가 적절 히 분배를 해야 한다.

## ● 요리 프로그램

- 적절한 음향효과가 청취자들을 빠져들게 한다. 도마 위에서 칼로 썰는 소리, 삼겹살 굽는 소리, 기름 지직거리는 소리 등 음향을 낼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 ● 광고 만들기

- 코너 중간 중간 들어가는 브릿지
  - 캠페인 광고
  - 방송국 시그널
- 브릿지(4초~10초)
  - 상대원시장 브릿지 : 여기는 상대원시장~
  - 코너 브릿지 : 다음은 무슨 코너가 진행되겠습니다.

- 광고 : 보통 광고는 상품을 홍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광고는 좀 다르다. 상점 광고 위주.

- 상대원시장 광고 : 캠페인(재래시장 상대원시장 많이 와주세요)
- 원다방 광고 : 프로그램 광고 / 원다방 이미지 광고
- 점포 광고 : 1인 설명 광고 / 음악 광고 / 대화 광고

## ♣ 실습과제

### 1) 상대원시장 광고 : 60초 이내로

### 2) 라디오방송 원다방 광고 : 원다방 이미지 광고

- 광고의 CM송 굉장히 중요하다. 광고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 광고를 듣는 대상 : 주부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 라디오광고는 TV광고와 좀 다르다.  
소리로만 전달해야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유머나 개그프로그램 흥내 내서 하면 대중들에게 잘 들린다.

→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광고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를 만들어보자는 것!  
자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 뭔가 만들어 보아야 하는 시간.



## 길순영아

007 음악이 나온다.  
엄마와 아들 등장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다워야 재래시장이지.  
어이~ 아들이 상대원시장 가자.  
주의)  
007 음악이 나오면, 그에 맞는 상황이 중요하다.

## 그 리 미

- 파란 들판에 나무 하나가 흔들리고 있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세.  
30년 전통 상대원시장  
전통 있는 시장은 우리의 전통시장이고 상대원  
주민의 자랑입니다.  
뿌리 깊은 전통시장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우리는 시각이 아니니까..... 청각적 상상에 맞춰야 하  
는 것. 적절한 BG가 필요. 바람소리세기, 새소리.... 청취  
자한테 바람의 의미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람이 경  
제난인지, 대형마트, 백화점인지...

## 여 태

- 우리 딸이 맨날 눈을 뚱그랗게 뜨고 북한에서 넘  
어온 김혜영 가수 흥내를 잘 내요.

북한노래 <휘파람>에 맞추어서...  
어젯밤에도 먹었네. 상대원 오텍  
마지막에 하는 말... 상대원시장의 유혹...

## 정 숙

- 골라 골라 음에 맞춰서~~

상대원시장에 가면,  
물건도 싸고, 덤도 있고,  
인정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노래도 있고  
싸요 싸요  
믿고 사요  
주의)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상대원시장에서 만나요~~

## 신 명

배경 : 주부 둘이 대화를 한다. 시장 분위기 시끌  
시끌 소리.....

보람이 엄마 지금 어디가?  
상대원시장가죠?  
상대원시장가면 뭐가 있는데.....  
상대원시장 가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지.  
남자친구도 구할 수 있어?  
원다방으로 와~~  
아하하하하~~~  
주의)

시장소리를 어떻게 넣을지. 사람들이 북적 북적 시끄러  
운 소리. 일반 백화점과 다른 소리. 옆에서 골라 골라도  
들어가고.....다.

### ● 각 상점 광고에 대한 아이디어

- 상대원시장의 소리를 찾아서

- 이 소리는 30년 동안 참기름을 짜는 소리입니다...  
가게 주인 인터뷰 담아서 만들기도 좋을것 같다

- 질문

(여태)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대원시장의 전통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광고는 짧은 게 좋으니까 코너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인터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된다. 인간극장 같이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다.

오늘도 건어를 가게 김 씨는 아침 일찍 문을 엽니다. (셔터 올라가는 소리)

### ● <블로그> 만들기

- 각 상점들 소개도 하고

- 방송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선곡표도 올리고 다시듣기도 올리고...

-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필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말고도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자.

청취자들 의견도 듣고.... 블로그를 만들면 좋은 게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 자기 블로그로 옮길 수도 있다.

- 오프라인-온라인-라디오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 ● 프로그램을 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기

## 길순영아

### ★ 추석특집 20분

- 추석의 유래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3분)
- 기적소리와 함께 나훈아의 노래 고향역을 올립니다. (3분30초)
- 벌초이야기, 송편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 등을 소개합니다.(10분)
- 차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합니다.(3분30초)

### ★ 누님디우스

1시간 중 1, 2부로 나누면서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좋은 시나 유머)

#### ♪ 1부 = 지금 성남은

- 로고송 나가면 인사와 함께 경쾌한 음악 한 곡 올립니다.(5분)
- 성남뉴스 1가지 (5분)
- 음악 1곡 (3분)
- 성남뉴스 1가지 (5분)
- 음악 1곡(3분30초)
- 핫뉴스 1가지 (3분)
- 음악 1곡 (3분30초)
- 잠시 쉬어가는 시간 = 유머 1가지 (2분)

#### ♪ 2부 = 건강은 스스로 챙겨요

- 경쾌한 음악 한 곡 (3분30초)
- 건강에 대한 뉴스 1가지 (5분)
- 음악 1곡(3분)
- 건강뉴스 (5분)
- 음악 1곡 (3분 )
- 차 한 잔의 여유(유머 3분)
- 음악 1곡 (2분30초)
- 행사 소식 (3분)
- 마무리 멘트 (2분)

### ★ 아주 색다른 목요일 1,2,3부로 나누기로 함

#### ♥ 1부 = 신나는 상대원시장

점포 한 곳을 홍보를 하면서 신청곡을 올려줍니다.  
(20분)

#### ♥ 2부 = 아름다운 성 생활을 위하여

성에 대한 칼럼이나 질문 답 등으로 진행합니다.  
20분 정도 소요하면서 음악과 함께 올립니다.

#### ♥ 3부 = 부부이야기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등을 이야기 합니다.  
15분 정도 소요하면서 음악과 함께 올립니다.  
유머 1가지 (3분)  
마무리 멘트 (2분)

### ★ 원대방 홍보

재주가 없어서 잘 못 하겠어용 ㅎㅎㅎ

#### ♪ 산토끼 동요로

상대원 원대방 뭘 하는 곳일까  
쭈마쭈마 모여서 책 읽어 준다네.

### ★ 시장홍보

#### ♪ 우리 집 강아지 동요로

나는야 상대원시장에 간다.  
음악회랑 시장 보러 상대원 간다.



### ♣ 마지막 수업

우리는 공개방송을 한번 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은다.

마침 9월 22일이 방송1주년인지라 기념 공개방송을 해보자고 의기투합.

공개 방송일은 9월 25일로 정했다.

방송 시간은 3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1,2,3부로 나누어 각 DJ들이 진행을 맡아 보기로 한다.

- 1부 진행 : 그리미, 신명

- 2부 진행 : 박정숙, 자유부인

- 3부 진행 : 길순영아, 티나





대학 재학 시 ‘대안미디어’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그러다 아예 대안 미디어, 그 자체에 폭 빠져 버렸지요.

친구·지인들과 함께 ‘CR 2.0’이라는 공동체라디오공부모임을 결성해 대안미디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한편, 관악FM 등에서 PD로 일하면서 현장 경험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늘 2% 부족했고, 대구에 있는 한 공동체라디오에서 일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 ‘커뮤니티 구성’이라는 소통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공동체라디오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교육에 힘을 쏟았지요.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하는 ‘1인아나듀오’ 교육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 역시 이 프로젝트가 제가 꿈꾸는 공동체라디오 중 하나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이 곳에서 미디어 교육 의뢰가 왔을 때 저는 무척이나 설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이 1년 가량 방송국을 운영해 왔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공동체라디오를 이제 막 만나려는 참인데, 제가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방송국은 ‘떨떡이는 물고기’가 아니라 ‘헛떡이는 물고기’처럼 보였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라디오 운영에 미숙한 주부들이 하루 하루 고뇌와 번민을 하며 힘들게 라디오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지역주민, 상인과의 소통이 부재한 채 라디오를 일방적으로 시장을 향해 ‘우리 좀 들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아나듀오’에서 시급한 것은 PD+아나운서+엔지니어링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1인아나듀오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상인과 예비 1인아나듀오들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블로그와 카페를 만들어 지역주민, 상인과 소통하고자 노력했고, 공개방송을 준비할 때는 40여 개에 이르는 상대원시장 내 점포 하나 하나를 일일이 돌아 다니며 공개방송과 함께 진행되는 상대원시장 세일에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세일에 참여하는 상인들이 늘어났지요. 지역주민들도 시장을 많이 찾았고요.

저는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제가 꿈꾸던 진정한 공동체라디오가 실현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함께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꿈을 키우며 이 부족한 선생님을 ‘곰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라 주었던 우리 1인아나듀오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자 ‘닉네임’을 만들고 이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기로 했을 때, 인터넷에 친숙한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형(?) 닉네임 대신 어릴 적 친구들이 자신을 불렀던 별명과 그에 따른 추억을 하나 하나 꺼내 놓으면 ‘닉네임’ 대신 ‘별명’을 택했던 우리 1인아나듀오들. 웃고 떠들면서 서로 큰소리로 별명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소통’하지 못했던 그들이 별명을 통해 비슷한 기억을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주민, 상인들과도 함께 이뤄지길 고대합니다.

“우리 1인아나듀오들이 목소리를 통해 지역주민, 상인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로 그 손을 꼭 잡아 주세요.”

차해영님(24)은 관악FM, 대구 공동체라디오 등에서 PD겸 미디어교육 강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CR 2.0이라는 공동체라디오공부모임을 통해 공동체라디오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 미디어이야기공작소

미디어이야기공작소는 엄마가 미취학~저학년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이용해 들려 주는 동화를 만들었던 문화배움터입니다.

- 진행기간 : 2009년 9월 21일 ~ 2009년 12월 22일
- 강 사 : 윤혜숙(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



- 교육내용  
정리 - 장미라<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국장)

“먼저 속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송곳을 이용해서 표지와 속지 중심에 구멍을 뚫습니다.”

미디어 공작소 수업이 열린 원다방.  
수강생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첫 수업, 나를 소개하는 책 만들기가 진행 중이다.  
“이제 다 만드셨으면 책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어떤 형식으로든 좋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따라 모두 열심히 자기 책을 만든다.  
어떤 수강생은 이런 시간을 가져 본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다고도 한다.  
출발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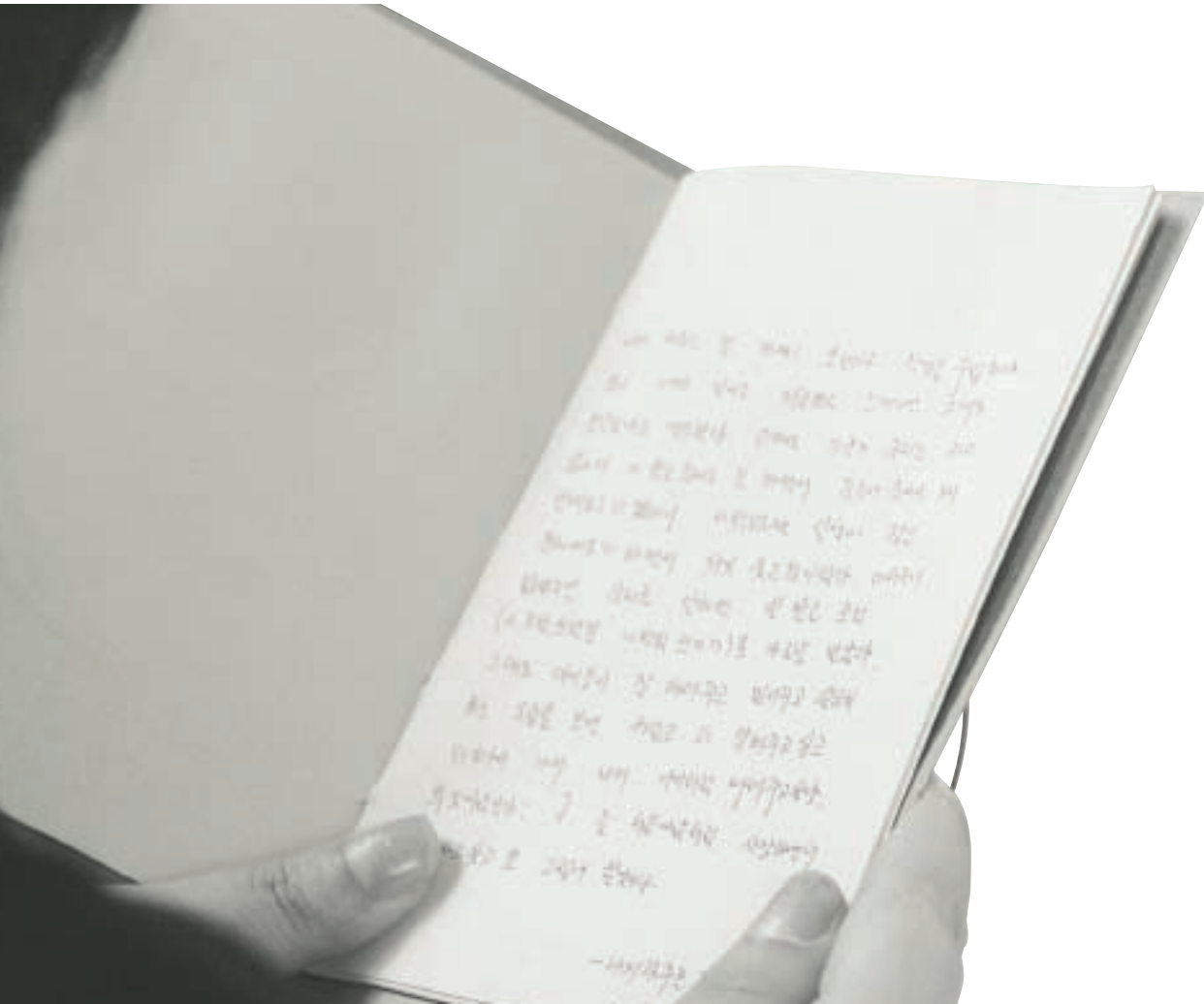


그렇게 해서 첫 수업이 끝났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은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를 해내기  
가 좀 벅차기는 했다. 책을 만들고 거기다 그림도 좀 그리고 내용을 적고 그런 작업들, 그리고 만든 책들을 서로 발  
표를 하자니 참 바쁘게 간 시간이었다.

“다음 수업은 책 복사 촬영하기입니다. 책이나 미술 작품들을 카메라에 다시 촬영하는 것을 복사 촬영이라고 해요.  
촬영시 주의 할 점은 복사 할 내용물을 수직과 수평 노즐과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고 특히 빛에 주의를 하여  
야 합니다. 이 작업이 미디어 동화를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그저 신기한 수강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듣고 있다.

누가 지금 이 순간 저들의 눈을 보고도 수다나 떠는 아줌마들이라 감히 말할 수 있으리.







두 번째 수업을 하는 날.

선생님의 지휘 하에 조를 나누는 수강생들이 가지고 온 책들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는다. 복사 대를 사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팀도 있고 평평한 곳에 책을 놓고 최대한 수직과 수평을 맞춰 촬영하는 팀도 있다.

사진을 자르고 늘이고, 오디오 목소리 빈 곳을 자르고 늘이고 음악을 첨부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다 보니 하여튼 뭔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우리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신기하다. 정신없이 따라 하긴 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두들 참 좋아 한다. 사진을 컴퓨터에 올리고 목소리도 넣고 야호!!!!!! 참 신난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고나자 모두 어찌해야 하는지 모른다.

아무래도 차근차근 다시 잘 좀 배워야 할 것 같다.

간단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정해주는 방법을 배웠다.

먼저 디카의 화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았다. 화소란 카메라에서 점으로 표시되는 것, 더 정확하게 찍으려면 점이 더 많아야 하고 그게 화소라는 것이라.

작업을 위해 포토샵을 선생님이 컴퓨터 바탕 화면에 깔아 주셨다.

컴퓨터에 깔아 놓은 포토샵의 기능들을 알아본다.

### ♣ 포토샵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하기

- 복사 촬영한 사진을 불러오기
  - 포토샵 작업창으로 사진을 불러 온다.
  - 그리고 이미지 밝기 조절을 한다.
  - 수직과 수평을 맞춘다.
  - 촬영물에 찍힌 집게나 날짜 책의 연결 부분들은 깨끗하게 보정을 한다.

### ♣ 포토샵 실행하기

-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수정하기 위해 포토샵을 실행한다.
- 바탕화면에 깔아 놓은 포토샵아이콘 실행
- 카메라로 작업해둔 그림책을 작업창으로 불러온다.
- 파일-오픈메뉴를 실행해서 사진 불러오기
- 포토샵의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사진 불러오기
- 사진이 있는 폴더를 열어 포토샵 작업창으로 드래그 앤드롭 한다.

### ●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낸다

- 도구상자 안에 있는 자르기를 선택
- 복사 촬영한 사진에 클릭, 드래그 하여 영역 선택
- 엔터키를 클릭하면 선택한 영역만 남기고 그 외 영역은 잘려 나간다.

### ● 이미지 밝기 조절

- Image -Adjustment-Level 하여 이미지 밝기를 조절한다.
-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하면 이미지가 더 밝아진다.
- 도장 툴 이용하여 이미지 수정 작업
- 툴 박스에 도장을 선택
- 지우고자 하는 이미지 주변에 Alt키를 눌러 이미지를 복사한 후 원하는 부분 클릭 드래그 한다.

### ● 사진 크기 한꺼번에 줄이기

-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포토웍스를 검색하여 컴퓨터에 설치한다.

### ● 사진 일괄 줄이기

- 포토웍스를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실행 메뉴가 생성된다.
- 폴더 안에 800PX로 줄인 사본 사진 폴더가 자동 생성된다.





자, 이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는 배운 것 같다.

그런데 머릿속이 어질어질하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것들을 모두 머리에 넣기는 무리인가 보다.

예구, 이래서 아줌마라 하겠지? 그래도 힘을 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고지가 바로 조~근데 예서 말수는 없다!!!

### ♣프리미어를 이용하여 컷 편집하기

- 프리미어를 실행하면 창이 뜬다.

- 메뉴 클릭

- 프리셋 정하기
- Browse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한다.
- 작업한 프로젝트 이름 정한다.
- OK버튼을 누르면 프리미어 작업창으로 이동한다.

### ●프로젝트 윈도우

- 편집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하다.

- 비디오 스틸사진, 자막, mps 음악파일등 다양한 재료들을 흔히 소스 파일을 관리하는 곳이 프로젝트 윈도우이다.

### ●파일 임포트하기

-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소스파일을 프로젝트 창으로 가져오는 것을 임포트라고 한다.

- 파일 메뉴- 임포트
- 프로젝트 창 빈 공간에서 더블클릭
- 단축키 컨트롤 + I

- 위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임포트 명령을 실행하면 임포트 창이 뜬다.

- 가져올 소스 클립이 있는 경로를 찾아
- 원하는 소스 클립일 선택한 후
- 열기 버튼을 클릭한다

### ●폴더 전체를 임포트하기

- 임포트 창에서 폴더 자체를 클릭하면 하단 메뉴에 Import Folder 버튼이 활성화 된다
- Import Folder 버튼을 클릭하면 폴더 전체가 불러진다.





### ♣ 프로젝트 도구메뉴

- 종류
  - 리스트 뷰
  - 아이콘 뷰
  - 시퀀스로 자동 등록하기
  - 파일 찾기
  - 새로운 빈 만들기
  - 새로운 아이템 만들기
  - 소스클립 삭제하기
- 뉴 아이템 만들기
  - 뉴 아이템 메뉴에서 Sequence, Offline, File 등 8가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 ♣ 타임 라인 윈도우

편집이란 영상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의미 당위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이다.

프리미어에서는 모든 편집 작업이 타임 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타임 라인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지 영상을 만들고 이펙트 적용 합성 효과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편집선
  - 편집에 기준이 되는 선으로 클립을 붙여넣기 하거나 프리뷰 할 때 편집선 위치부터 적용 된다.
  - 편집선이 위치한 프레임이 모니터 창 프로그램 뷰에 나타난다.

- 타임 줌 레벨
  - 타임라인의 작업 영역을 프레임 초분 단위 등으로 확대 축소하기

### ♣ 클립의 앞/뒤 자르기=트림하기

- 툴박스의 선택 툴
  - 화살표를 이용하여 비디오 클립을 필요 없는 앞 또는 뒤의 NG부분 없앨 수 있다.
  - 비디오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을 잡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어 정리한다.
  - 작업 도구가 선택 툴 화살표일 때 클립의 왼쪽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트립 인포 인터로 바뀐다.
  - 트립 인포인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클립이 줄어든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클립의 앞뒤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한다.
- 선택 툴을 이용한 클립 이동
  - 클립의 앞뒤 순서나 트랙변경 등 클립을 이동하려면 선택툴 화살표로 원하는 클립을 선택 한 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된다.

### ♣ 오디오 볼륨 조절하기

- 전체 볼륨 조절하기
  - 오디오 트랙의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 볼륨 설정 라인이 나타난다.
  - 선택 툴 또는 팬툴 상태에서 볼륨 라인을 조절한다.
  - 볼륨의 단위는 데시벨로 표시 되며 초기 값은 0.00데시벨로 표기 된다.
  - 볼륨은 위로 6데시벨 아래로 -0.00데시벨의 폭을 가진다.

### ♣ 자막 만들기

프리미어에서는 일반적인 스틸 자막 주로 엔딩 부분에 사용하는 위로 올라가는 롤자막, 뉴 스 해설등에 사용되는 좌우로 흐르는 크록 자막 등을 만들 수 있다.

- 아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뉴 타이틀 명령을 실행한다.
  - 파일- 뉴- 타이틀
  - 프로젝트 창 하단의 뉴 아이콘 -타이틀
  - 단축키
- 먼저 자막 파일을 저장해야 titler가 실행된다.
- 자막 이름은 편집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ok 버튼을 클릭한다.



## ♣ 문자 삽입하기

- 툴박스의 T를 클릭한 후 '내 친구 태권소년' 라고 타이틀을 만들어보자
- 한글 자막을 쓰면 보통 글씨가 찍힌다.
- 이것은 프리미어의 기본폰트가 영문 폰트인 Adobe Caslon pro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론 수업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배운 이론을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 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선 팀을 만들고 사물을 인형으로 할 것인가, 그림을 올려서 할 것인가를 정하기로 했다.

원작의 스토리를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인가도 의논했다.

대사는 각자 녹음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책선정은 너무 어려운 것 말고 좀 쉬운 것으로 하자고 하고 한 팀은 어린이 책 '아카시아 파마'를 한 팀은 어린이 책 '웃놀이 이야기' 책을 선정했다.

한 팀은 인형을 이용해서 한 팀은 그림을 직접 그려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 ♣ 그림 그리기 시작

사진 찍기 시작

비록 완전 창작물이 아니고 원본이 있는 책 그림을 보고 하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옆에서 보는 것만도 행복한 일.

작업 중에 슬쩍 물어 보았다.

“이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 하셨나요?”

“우선 배운다는 것이 좋은 거구나 생각했어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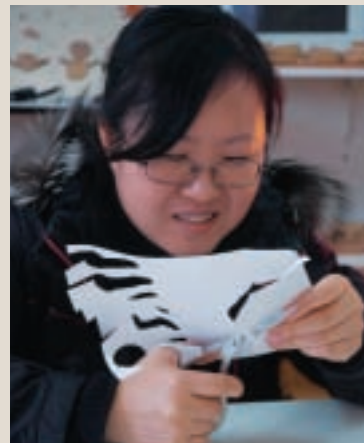
“어려운 것은 컴퓨터를 오랜만에 하니까 그게 좀 힘이 들었어요.”

“어려운데 왜 하셨지요?”

“엄마들이 알아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제 10강 수업이 다 끝났다.

선생님께 물어보았다. 혹시 수강생들에게 수강증을 주는 것은 어떨까 하고, 줄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수강생들이 수강증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려면 수강생들이 더 노력해야하고 능숙해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번에 모였던 수강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동아리를 만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더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러다보면 전문가가 될 것이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니 얼마나 좋은가. 부디 이번 수업을 받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빌어 본다.





## ♣ 현장스케치

# 여럿이 함께 읽는 미디어 동화, 그 꿈은 계속된다

엄마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골라 디지털 카메라에 담고 엄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담아 미디어 동화를 한 편씩 만들어 내는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들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가슴 뽏뽏함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화와 그 동화를 읽고 느낀 엄마의 감정이 친숙한 엄마의 음성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면서 아이들 역시 신기한 표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만들 차례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배경그림도 직접 그리고 캐릭터도 직접 만들어서 엄마들이 이야기를 직접 공연(?)한 뒤, 이것을 카메라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여느 때보다 훨씬 소란한 수업입니다.

신종플루유행으로 인해 조금만 감기 증세가 있어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탓에 오늘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이용해 들려 주는 동화’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미디어 동화’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수업에 들어가자 그 표정은 사뭇 진지해집니다.

유명 동화작가가 그린 그림을 그것도 동화책 보다 죽히 열 배는 더 커다란 전지(金紙)에 담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년 만에 그림 그려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이니 한 20년 즈음?”

“애들 숙제 도와준 것이 있으니, 20년은 아니다 뭐.”

“우리 애가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 난 진짜 20년이다.”

아니, 시집갈 나이의 과년한 딸을 둔 박신명님은 같이 볼 아이도 없는데 왜 미디어이야기공작소에 참여하시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다방에 자주 들르는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중 하나가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인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 도서관에서 두고 두고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지요.”

한 권의 동화책을 여럿이 함께 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책을 미디어에 담으면 여럿이 함께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엄마가 만든(?) 아니, 영상으로 담은 동화책을 아이에게 직접 들려 준다는 것에서 넘어서 함께 보는 동화라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미디어이야기공작소의 취지가 한층 발전되는 순간입니다.

그 날 이후로 한 달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미디어이야기공작소에 참여한 주부들은 일찌감치 모여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에 들어갈 만큼 두 번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애쓰는 주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문화공동체에 대한 꿈을 굽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동화책은 지난 12월 22일 작은 도서관에서 개최된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송년회 날 상영되었습니다.

당초 주부들이 계획했던 것 만큼 작품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부들은 상영되는 미디어 동화에 집중하느라 갑자기 조용해진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아마도 그 작은 도서관에 십 년 혹은 이 십 년 동안 그 미디어 동화가 상영되는 한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 공동체를 향한 꿈을 캠퍼더에 담아냅니다.

미디어이야기공작소 강사 윤혜숙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에서 미디어활동가로 일하는(?) 윤혜숙님은 지난 해 은행동 주공아파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은행동 주공아파트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지요.”

혜숙님은 성남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 온 이른바 성남 토박이로서 성남에 대한 애착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애착은 그녀가 성남을 무대로 미디어 운동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다 많은 성남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꿈이니까요.

“미디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지만,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아직인 것 같아요. 사진에 비해 아직은 영상이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 아직은 디지털 캠퍼더가 더 낫선 탓이라 믿고 있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는 누가 생산해 놓은 문화를 소비하는데만 익숙하고 직접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혜숙님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거창에 주제에 대한 고민에 앞서 지역 미디어 활동가로서 지역주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는 것을 자신의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노라 전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높아지만 자신의 삶과 세계관 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담아 보다 많은 이

들과 소통하게 되고 이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미디어이야기공작소와 같은 미디어 활동은 물론이고, 상대원시장 더 나아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모든 사업들이 잘 일구어지고 더 널리 알려져서 성남에서 문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이 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사실,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뻐요”

백현아, 박나영 상대원 3동 거주



나영이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고 엄마를 따라 원다방에 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입술이며 얼굴이 툇 데다 어젯밤에는 감기몸살 기운까지 있어서 엄마와 함께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가 온 것입니다. 나영이 선생님 말씀이 ‘신종플루가 유행이니 조금이라도 감기기운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고 감기가 나을 때까지 학교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나영이는 엄마가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이야기공작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영이가 학교에 갔을 시간에 엄마도 집에서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인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뻐요.”

나영엄마라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한 보통주부 백현아님은 나영이가 좀더 재미있게 책을 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디어이야기공작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강생들보다 좀더 욕심을 부려, 더 어렵고 가정 두터운 책을 1차 작품으로 선택한 까닭에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지 않은 까닭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동화를 컴퓨터에 옮기는 일이 무척 고생스러웠습니다.

백현아님이 선택한 동화는 작은 숲이 된 의자로 ‘빼그덕’ 소리가 날 만큼 낡고 오래된 의자가 자아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으로, 나영이가 그 의자처럼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아이로 어른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미디어이야기공작소 덕분에 오랜만에 ‘문화’라는 것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는 문화배움터가 주부들을 위한 강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강좌도 열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고요.”

원다방 때문에 상대원시장이 더 시끌벅적 시장스러워진 것 같아 상대원시장을 찾게 된다는 백현아님. 대형마트보다 상대원시장을 더 사랑하라는 그녀는 오늘도 수업을 마치고, 상대원시장에서 저녁 찬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웃놀이이야기



### 책소개

■ 원작 - 글 이은화 / 그림 한유민

우리 나라의 전통놀이인 웃놀이를 이야기로 재미있게 꾸며 통합교육을 하는 책입니다. 도, 개, 걸, 웃, 모에 대한 유래와 서수, 수세기를 함께 익히면서 설날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 # 장면 1



### # 장면 2



“애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잘 달린 친구가 사과를 많이 가져 가는 거야.”

“그래그래, 달리기를 해서 첫째로 들어오면 사과 5개, 둘째로 들어오면 사과 4개, 셋째로 들어오면 사과 3개, 넷째로 들어오면 사과 2개, 다섯째로 들어오면 사과 1개를 갖기로 하자.”

“야, 재미있겠다!”

소가 어른스럽게 말하자 모두들 좋아했어요.



# 장면 3



# 장면 4



# 장면 5



소가 말한 대로 경주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판관으로는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돼지, 개, 양, 소, 그리고 말은 시작하기 전에 각자 달리기 연습을 하느라고 야단이었어요.

이 소란한 소리를 들은 마을 어른들이 한 분씩 모이셨습니다. 숲속에서 늦잠을 자던 사자, 호랑이, 기린, 곰, 여우, 다람쥐, 토끼, 늑대, 코끼리, 고슴도치도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합을 시작하자.”

심판과 할아버지께서 동물 선수들이 모이도록 소리치셨어요.

“준비……, 호루루!”

# 장면 6



드디어 말이 첫째로 들어왔어요. 소가 둘째로 들어왔어요.  
양이 셋째로 들어왔어요. 개가 넷째로 들어왔어요.

# 장면 7



백현아·문영은님이 만든 미디어 동화 <아카시아 파마> 중에서

## 아카시아 파마



### 책소개

■ 원작 - 글 이춘희 / 그림 윤정주

"예뻐지고 싶은 꼬마 숙녀들의 소망을 담은 '아카시아 파마'를 아세요?"  
아이들은 아카시아로 미용실 놀이를 하거나, 점을 치기도 하고,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먹기도 했어요. 별 다른 놀이감이 없던 시절, 아카시아는 아이들의 훌륭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등학교길에 지천으로 널려 있던 아카시아를 따서 가위바위보로 있을 때에 내는 놀이를 했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아카시아 잎을 떼어 내며, '좋아한다 싫어한다' 점을 쳐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자 아이들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 모여, '아카시아 파마'를 하면서 미용실 놀이를 하기도 했다. '아카시아 파마'는 아카시아 아카시아 잎사귀를 모두 따 낸 줄기로 머리카락을 말아 올린 천연 파마로, 멋을 내고 싶던 여자 아이들의 열망을 채워 주던 최고의 놀이였습니다.

우리 옛 아이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를 담은 '국시 꼬랭이동네' 시리즈 열 번째 책으로, '잃어버린 자투리 문화를 찾아서'라는 부제에 맞게, 아련히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추억을 다시 더듬어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또한 책의 뒷편에는 '아카시아 파마'와 '아카시아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대를 담은 문화 이야기와 아카시아 파마 방법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 내레이션 : 백현아
- 미희·영수 목소리 : 문영은
- 영남 목소리 : 윤혜숙
- 편집·촬영 : 백현아·문영은



# 장면 1



“누나, 너 어디가노?”  
 샅살이와 놀고 있던 영수가 영남이를 따라 붙었어요.  
 “따라 오지마.”  
 “누나, 엄마 분 몰래 발랐지? 다 이를끼다.”  
 영남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 장면 2



아이들은 마을 뒷동산 아카시아 숲으로 갔어요.  
 영남이와 영수는 미희를 따라 아카시아 줄기를 꺾었어요.  
 “자, 여기는 미희미용실입니데이. 어서 의자에 앉으소.”  
 “자, 지금부터 파마를 할 꺼니까 아카시아 잎사귀를 떼어내고 자, 요렇게 줄기를 반으로 접어 주이소.”

이 장면의 배경그림들 역시 백현아, 문영은님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편집자주>

## 기타반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문화배움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이 기타라는 매개체를 통해 음악이라는 문화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 진행기간 : 2009년 8월 5일 ~ 12월 9일
- 진행일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 강 사 : 천정환



기타반 설립이 처음 논의 됐을 때는 사실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비교적 손쉽게 배울 수 기타를 굳이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까지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요.

그러나 이를 한 번 뒤집고 상대원동 주민들, 특히 주부들에게 기타를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지니게 한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서 통해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DJ 중 하나이며 기타리스트인 김승훈님의 멋진 기타연주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운영진들은 애초 이 기타반 강좌를 김승훈님에게 부탁하고자 했으나 김승훈님은 현재 기타강사로 활동 중인 천정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승훈님도 과거에 MBC아카데미 등에서 기타강사로 활동한 바 있으나 현재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강사도 섭외된 만큼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운영진들은 수강생을 모으기 위해 상대원동의 구석구석을 돌며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작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박인순, 김정희, 사영화, 박혜선, 임경희, 박인자, 이길순, 양희정님이 기타반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기타반은 시작됐습니다.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에서 운영한 기타반은 대다수의 기타강좌들이 단순히 몇몇 곡만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하는데 비해 후일 이 기타반이 종료된 뒤에도 기타반 회원들이 꾸준히 기타 연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음악이론 수업도 병행했다는 것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원들은 줄었지만 수업을 마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강사를 붙잡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회원들도 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타 외 드럼, 키보드 등을 연주할 수 있다는 상인과 지역주민이 나타나 이대로 기타를 계속 배우기만 한다면 이른바 줌마밴드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타에 한참 재미를 붙여 가던 기타반 회원들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기타반이 당연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강사로 등을 지원되지 않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기타 배워가는 재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주 한 번씩 모이기로 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강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강사료는 호주머니를 털어 모으기로 했어요.”

기타반 회원들의 이러한 결정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랑마루는 무척이나 고무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매료되어 생업으로 바쁜 나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문화예술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당초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한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대원 시장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성된 동네만들기지원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타반은 성공적인 모델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상대원 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기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모였지만 결국에 이들이 의기투합해 동호회를 구성하는데까지 이르렀으니까요.

앞으로 기타반이 어떤 모양새를 갖고 발전해 나갈지는 계속 지켜볼 일이지만, 기타반을 통해 줌마밴드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스스로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발적으로 모여 그 꿈을 실현해 내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기타반 회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우리 동네에서 '예술'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타반 강사 천정환



기타반을 진행하기 전 이 강좌의 강사인 천정환님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 즉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지, 혹은 장기적으로 이 강좌의 수강생들이 기타를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지를 결정하느라 말입니다.

그러다 강사로서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부담감, 이 강좌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등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강좌를 수강하는 주부들의 취미, 문화생활 중 하나로 기타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이 사업의 취지를 궁극적으로 살리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던 그 때 ㄱ, ㄴ, ㄷ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글을 익혔던 것처럼 악보 읽는 방법을 하나 하나 꼼꼼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부들에게 있어 악보란 아니 음표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말했듯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문화 배움터가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조건 중 하나가 '영속성'이라 믿고 쉬운 곡 즈음은 자신 없이도 수강생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기 위해 그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기타가 하나의 취미로 혹은 즐기고 나누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강좌의 영속성이 담보 되어야 하는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강좌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의 말을 듣다가 문득 '기타반이 꼭 문화 배움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되지 않아도 동호회처럼 모여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이 프로그램에 수강료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름에도 수강생들은 이 강좌를 포기한 채 그 약속장소에 나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꼭 하고 싶지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강좌가 공짜이므로 그저 호기심 삼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강좌에 수강료가 부여되어 있어서 내가 정말 이 강좌를 꼭 해야 하는가 혹은 하고 싶은가를 고민해 선택했다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름에 이 강좌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이와 함께 그는 취미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수강생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고 두고 해결해 나갈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한편 천정환님은 성남시 산성동에서 태어나 서른 네 살인 올해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성남 토박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에서 나무만 뽑고 만들어진 동네이니 만큼 아직도 우리네 고된 삶이 남아 있는 동네, 그 외관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시골스러운 동네, 아직도 '동네친구'란 말이 통하는 동네라 앞으로도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는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그는 과거 음악활동 하면서 생계 유지형(?) 기타강사 활동을 병행하다 요즘은 아예 음악활동은 접고, 기타강사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가의 꿈은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걸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뤄지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래서부터 피어나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 시낭송반



■ 강사 : 도경원 교수(시인, 시낭송가 겸 전문 주례인)

■ 약력

- 『월간 문학세계』 개최 42회 신인문학상 시부문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강동문인회 이사
- 재능시낭송협회 회원
- 시낭송 전국대회 5회 수상
-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낭송강사 역임

- 시울림시낭송회 회장
- 『월간 문학세계』 시낭송문학 부문 심사위원
- 사)세계문인협회 시낭송과 교수
- 사)세계문인협회 시낭송분과 위원장
- 삼육대학교 사회교육원 시낭송교수



## 시낭송은 소리의 예술이다

시낭송이란 朗(밝을낭)誦(읽을송)자를 써서 시를 맑고 밝게 외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한 시 낭송은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낭송해야 한다. 시낭송의 필요성은 시를 읽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말을 사랑 하는 것이요, 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다.

시는 절대적 표준을 갖고 있지 않다. 시낭송 또한 절대적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느낌이 다양하기에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 또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주는 즐거움은 인간의 원초적 상태의 감정을 간결하고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적 언어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시의 향기가 영혼을 울리는 감동의 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시는 일상적인 삶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고 왜곡된 삶을 회복시켜 창의성을 촉진하고 인성이 정화되어 세상을 달리 바라보게 한다.

우리가 논술이나 변설보다 한 줄의 시에 더 감응(感應)받는 것은 시가 예술의 극치로서 미감(美感)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부딪칠 수 있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물량주의를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고 인간다운 풍요로움을 찾고자 할 때 예술을 갈망하게 되고 시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고 낭송하려는 노력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자기를 표현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기쁨이 그 곳에 있기 때문이다. 활자화된 문자언어는 음성언어로 나타나야 그 빛을 발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높여주고 듣는 이에게 감동과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시가 주는 감동은 언어에 의해서 창조된 예술품이다.

시는 머리로 아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시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듯이 시 낭송 또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한다. 가슴으로 낭송을 해야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려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시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문자언어가 음성언어로 변할 때에 더 빛나고 향기롭다. 보석에 비유한다면 시가 원석이라면 시낭송은 세공을 하는 것과 같다. 세공을 거쳐야만 더 아름답게 빛나고 여러 사람에게 찬사를 들을 수 있듯이 시를 활자로 남겨놓는 것보다 낭송을 잘 하면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같이 정서적인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낭송은 매우 중요한 문학의 한 장르이고 예술의 길이다. 따라서 시낭송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느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의내용 중 발췌〉



원다방 사랑방  
기타프로그램



#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지난 해 9월부터 거의 매달 상대원시장에서 열렸던 공연

■ 진행일시 : 2008년 9월 ~ 2009년 11월

지난 해 9월부터 거의 매달 상대원시장에서는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상대원동 더 나아가서는 성남 내 클럽이나 끼를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 상대원시장 상인들은 물론 상대원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무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의 무대설치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4시간 동안 자신이 장사할 수도 있는 자리를 선뜻 양보해 주겠다는 상인은 드물었습니다. 한참 장사를 시작할 저녁시간에 공연을 열어 손님들이 식사를 방해한다는 무대인근 식당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그 회를 거듭할수록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원시장 상인회의 김국남 회장이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개최될 때마다 상대원플라자 지상 주차장을 내어 주시기로 한 약속을 계기로 부흥기물 조길연님 등 상대원플라자 지상 주차장 인근의 상인들이 직접 나서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의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통제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 중인 의자를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동안 사용할 수 있게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인들의 변화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진행하는 사랑마루와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상대원시장을 찾게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상인들의 협조로 각종 경품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매년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때마다 수 십여 분이 다양한 경품을 수령해 가셨지요.

또한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와 함께 세일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상인들이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행사 초기에는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의 상인들만 참여했지만 그 회를 더해갈수록 참여하는 상인들이 늘어나 마침내는 이 십 여명의 상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이 날 상대원시장을 찾는 지역주민들은 같은 값에 보다 풍성해진 장바구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날, 우리는 우리가 지난 2년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비로소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당초 사랑방 문화클럽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던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 사랑방 문화클럽 소속 클럽들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명실상부한 상대원동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것입니다.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상대원동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문화적 한 축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때 상대원 시장 음악회의 의미는 더 커지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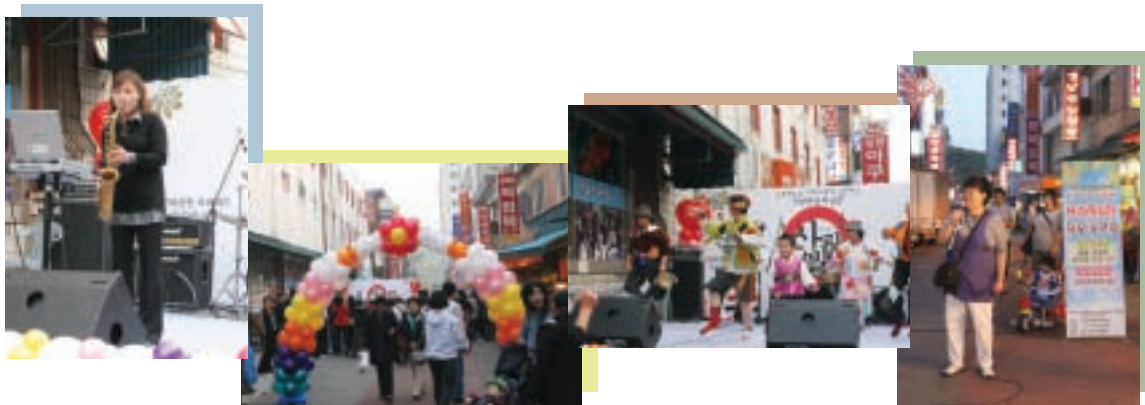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전의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와는 달리 <상대원 시장 신나는 방송국>의 스피커를 통해 음악회 개최지인 현대마트·현대아울렛 지상주차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전체,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인과 물건 사는 손님들도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인과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올해 <상대



원 시장 문화공동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하고 계신 한유진님이 이를 담당하셨습니다.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초기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항의를 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상대원 시장 음악회는 점점 자랍니다. 상대원동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상대원 시장 음악회와 함께 더 크게 자라, 문화 공동체의 꿈을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의 마지막 날에는 상대원 1동 주민자치센터의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랑방 문화클럽 소속 클럽으로는 아침울타리(모듬북 연주), 신구원드색소폰동호회, 샤방샤방각설이가 참여했으며, 지역주민 클럽으로 이성협(5세, 트롯트), 대하태권도(태권도시범), 이래음악학원(동요, 피페연주), 풍선평(풍선동호회)이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낙생고등학교 졸업동기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락밴드 루씨르, 소녀들의 힙합 동호회인 왁킹 등 성남지역클럽들이 참가해 이번 음악회를 풍성하게 빛냈습니다.

그러나 이 날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은 2010년에도 계속될테니까요.



## 원다방 사람들

# '레인보우 두둘소리'는 지적장애인 시설인 예가원(야탑 3동)의 8년차 난타 공연팀입니다.

■ 레인보우 두둘소리 정은희님



## \* 어떻게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2008년 성남문화재단이 '예술과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藝·社로운 만남>을 통해 동양공업사 사회봉사단,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과 다양한 인연을 맺게 되면서 오늘 행사에 성남문화재단을 통해 초청 받게 되었습니다.

## \* 지적장애인들이 이렇게 한데 힘을 합해 공연을 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53명의 원생 가운데 7명을 선발해 예가원 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에게 배워서 다시 이들에게 리듬을 익히고 박자를 셀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니 조바심내지 말자 다짐했었지요.

## \* 어떻게 해서 지적장애인들의 난타 공연팀을 만들게 되셨나요?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민하다가 난타를 알게 됐어요. 53명의 원생 가운데 7명을 선발해 예가원 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에게 배워서 다시 이들에게 리듬을 익히고 박자를 셀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이 공연팀이 시작되었지요.

## \*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10분짜리 연주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 1년이 걸릴 만큼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한 더딘 이들이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창단 이후 지난 6년간 늘 새로운 내용의 연주로 다양한 국내 행사공연은 물론 미국 시카고와 LA, 일본 나고야 초청 순회공연 등 국내외에서 150여 회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연 활동을 지속할 생각이고요.

## 건강검진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준)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지방과 혈압을 측정하고, 당뇨검사용 진단스틱을 배포.

- 진행일시 : 2009년 10월 23일 오후 2~6시
- 검진 진행자 :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준)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준)은 지난 10월 23일 상대원시장 가을잔치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활동을 펼쳤습니다.

간단한 문진과 함께 진행된 이날 건강검진을 찾은 수 십 여명의 어르신들은 체지방과 혈압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체지방과 혈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또한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준)은 당뇨병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뇨병 진단용 스틱을 배포해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활동 종료 이후 가정에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이리한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준) 관계자들의 설명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듣거나 간혹 메모도 하면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 장수사진촬영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자손들이 영정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옛말에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면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하잖아요. 이번 장수사진촬영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져 있습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 6시
- 촬영자 : 박시영, 배진환, 우장순 (가나다순)



오후 2시. 장수사진을 촬영하시기 위해 오신 할아버님, 할머니들로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이 모처럼 북적였  
습니다.

집에서부터 양복을 꺼내 입고 오신 할아버지들에 비해 할머니들은 보자기에 곱게 싸 온 한복을 원다방에서 풀어  
놓고 그제서야 사진촬영 할 준비를 하십니다. 여자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아마 세월이 흘러도 변  
치 않은 불변의 진리인가 봅니다. 할머니들이 한복을 입는 동안 <풀장환상>의 작가인 김소연님이 할머니들의 매무  
새를 다듬고, 정성스레 메이크업을 해 줍니다. 이 날 만큼은 김 작가님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이 훨씬 더 잘 어  
울리는 날이었답니다.

준비를 마친 할아버님과 할머니들은 나란히 앉아 촬영 시 유의사항(?)을 들으며, 애기 꽃을 피웁니다.

그 할아버님들 중 한 분, 조정협(70) 어르신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대원시장 오르막 길 끝에서 왼쪽으로 세 번째 집에 10년째 살고 계시다는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상대원 시장에  
종종 들으시고는 하신답니다.

“주로 마누라 심부름으로 쓰레기 봉투 같은 걸 사러 다니지. 내겐 뭐...소주 정도? 사실, 소주 사러는 자주 다니지.”  
(웃음)

어르신 자주 약주를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아내와 함께 한국전쟁 때 월남해 여기 남한 땅에는 자식들을 제외하면  
피붙이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이 사는 자식도 광주 오폐에 살고, 늘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답니  
다. 심심하신 것이지요, 그래도 어르신이 자식들 근처로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이곳이 아직까지 사람냄새 나  
는 곳이라 그렇답니다. 그래서 수 십년을 살던 서울 이문동을 떠나 아예 이 곳에 정착하셨고, 남은 여생도 이 곳에  
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요즘 소주 한 잔 하는 것 말고 즐거운 일은 소일 삼아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들르신 어르신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오늘 이곳에서 장수사진 촬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 이렇게 젊은 사람과 얘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 무료로 장수사진 찍는 것보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 나온 이유이자, 행복인 거지.” 어르신의 그 말씀이 웬지 사랑방 밖, 저 쓸쓸한 가을날씨 같습니다.

어르신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사랑방은 오픈 이래 최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족히 1백 여명은 이날 오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조정협 어르신에게 오늘 잔치를 소개했던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정선애 사회복지사 덕분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장수사진 촬영을 해 준다면 우리 복지관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한 팀도 없어요. 어려운 경제 탓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각박해졌나봐.”

정선애 사회복지사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가끔 봉사를 오시는 한 야채 상인이 상대원 시장에 장수사진촬영이 있으니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정선애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선애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장수사진을 찍은 몇몇 어르신들은 사진촬영 후 사랑방 한 켠이나 원다방에 웅기 웅기 앉아 얘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이로 올해 <상대원 시장 문화공동체 프로젝트>에서 영상을 담당하고 계신 윤혜숙님이 떡과 음료수를 부지런히 날랐고요.

얼마나 됐을까. 흥겨운 상대원 시장 음악회의 리허설 소리와 함께 장수사진 촬영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 藝 · 社로운 만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헌활동으로 연결해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에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공작공간 예술공간> 중 <생기발랄 연두리본>으로 시작되어 2008년에 <藝 · 社로운 만남>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속 <藝 · 社로운 만남>으로 진행되어 삼성SDS 사회봉사단에 의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 용 신청곡 받기,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DJ로 참여하기,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서 신종플루예방활동 펼치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삼성SDS는

1985년 삼성데이타시스템(주)으로 설립된 삼성그룹 계열의 정보통신 및 시스템 통합업체로 주요 사업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통합, 비즈니스 컨설팅, 솔루션 컨설팅과 개발 및 판매입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번지에 있고, 우리 시를 비롯해 창원시, 부산시, 대전시 등에 지점이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프로그램 용  
신청곡 받기,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서 신중플루예방활동 펼치기
- 진행일시 : 2009년 10월 23일 오후 4~6시
- 참여자 : 이단희 등(삼성SDS 사회봉사단)

상대원시장에서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웃음사진전>, <건강검진>, <장수사진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가을잔치가 있던 날, 이단희님을 비롯한 7~8명의 삼성SDS 사회봉사단이 상대원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동안 삼성SDS가 진행해 왔던 사회공헌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헌활동으로 연결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_藝·社로운 만남>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경 상대원시장을 찾은 이들은 먼저 SAMSUNG로고가 등에 선명하게 박힌 사회봉사단용 조끼를 하나씩 입고, 사랑마루 상대원동 팀장인 한유진님으로부터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삼성SDS 사회봉사단이 펼칠 문화공헌활동은 상대원시장 내 위치한 가게 하나 하나를 일일이 찾아 다니며 신중플루예방용 소독약을 기증하고, 동시에 상인들의 신청곡을 받아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될 노래들을 결정하는 것.

갑자기 상대원시장을 방문한 삼성SDS 사회봉사단이 옛날생삼겹살, 평택포묵, 즉석오뎅집, 농심청과 등 모두에게는 낯선 모양입니다. 하지만 삼성SDS 사회봉사단원들이 오늘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신중플루예방용 소독약을 기증하자, 좋은 일 한다며 칭찬일색입니다.



“이게 뭐야?”

“신중플루예방용 소독약이에요.”

“그냥 주는 거야? 좋은 일 하네.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면 좋지. 기업들도 어차피 지역사회의 일부잖아.”

“신청곡 받아요.”

“우리 신청 안해도 좋은 노래 많이 틀던데 뭐. 신청은 안해도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

삼성SDS 사회봉사단 덕에 기분이 좋아진 상인들이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까지 칭찬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지고 문화예술에 의해 삼성SDS와 상대원시장 더 나아가 기업과 지역사회는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 프로그램 :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DJ
- 진행일시 : 2009년 10월 28일 오후 4~5시
- 참여자 : 이단희(삼성SDS 사회봉사단)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셨지요? 저는 지난 10월 23일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상대원시장을 찾았던 삼성SDS의 이단희라고 합니다. 삼성SDS는 상대원시장과 가까운 분당 오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에서 사내 아나운서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 무척 떨리네요. 아참, 오늘은 지난 10월 23일에 상대원시장 상인들로부터 받은 32곡 신청곡 중 10곡을 가을낙엽과 함께 전해 드릴게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 오늘 방송되지 못한 나머지 곡들을 들려 드릴 테니까 신청곡이 오늘 방송되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시고요.

# 노래 1. 최진희의 꼬마인형\_이 노래만 들으면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껴 신청했어요.

# 노래 2.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매일 늦게 퇴근하다가 이 방송 때문에 모처럼 일찍 퇴근했어요. 근데 그세 나뭇잎들이 알록달록하게 새 옷을 입다 못해 바람에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가을이 가 버린 것 같아 서운했지요. 어린시절에는 단풍잎이며 낙엽을 종류대로 주워다 겨울내 말리면서 가을을 추억하고는 했는데 말이지요. 직장생활 치쳐 제 마음속의 가을은 저 날아가는 낙엽처럼 날아가 버렸네요. 여러분도 바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저물어 가는 가을에 낙엽 한 장 즈음은 가슴에 간직해요.

# 노래 3.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이 날 방송 중에서...

이 날 방송은 신나는 상대원방송국 원다방(<http://cafe.daum.net/wondabangstudio>) 중 겨울잠을 자고 있는 DJ들을 코너에 가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동민씨, 십 수년 만에 고향을 찾다

삼성SDS에 다니는 강동민씨는 십 수년만에 상대원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향 찾는 기분이 이런 것인가 봐요.”

상대원시장과 마주 보고 있는 긴골목 한 켠에 위치한 대원초등학교를 나온 동민씨는 상대원동에서 태어나 근 20년을 이곳에서 살았던 상대원동 토박이입니다. 하지만 대학진학과 함께 상대원동을 떠나면서 그간 좀처럼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지요. 누군가는 아버지 고향이 곧 자신의 고향이라 하지만 동민씨에게 태어나고 자란 상대원동은 곧 고향입니다.

“우리 삼성SDS는 일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곳이 어떻게 변했나 한 번 즈음 오고 싶어도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 오지 못했던 상대원시장이라니...왠지 제 얼굴을 알아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손을 맞잡고 상대원시장의 어묵집들을 누비며 오뎅을 먹던 일이 꼭 어제 같은데 동민씨는 벌써 서른 살이 훌쩍 버렸다며 함박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 때는 지금 상대원플라자 자리에 크고 작은 어묵집들이 줄을 지어 있었어요. 아껴 먹느라 한 집에서 어묵을 줄기차게 먹지 않고, 어묵집 한 곳에서 어묵 한 개를 먹고 또 좀 이따가 다른 집에서 어묵 한 개를 먹곤 했는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잔뜩 상기된 얼굴로 상대원시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며 미리 준비해 온 신종 플루 예방용 손소독제를 상인들에게 내어 드리며 신청곡을 꼼꼼히 적어 나간 동민씨. 그의 눈은 어떻게든 그의 옛 추억이 남아 있는 상대원시장의 한 켠을 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은 훨씬 커지고 좋아졌는데, 시장은 그 만큼 활기차지 못한 것 같아요. 제 힘이나 도움이 되서 제 어린 시절만큼 활기찬 상대원시장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래시장, 만세!”

동민씨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대원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내친 김에 동료들에게 그가 태어나고 자라 온 이 동네를 소개해 줄 생각이랍니다.

## 웃음사진전

이미 희망이란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만 재래시장. 이곳에서 피어나는 웃음을 카메라에 정성스럽게 담아냄으로써 상대원시장에는 아직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문화예술을 통해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된 사진전입니다.

- 전시일시 : 2009년 10월 23일
- 참여작가 : 박시영, 배진환, 우장순(가나다순)
- 글 : 정혜원



## 원다방 사람들

## 상대원시장에 대한 희망을 담은 웃음들을 소개합니다.

사진작가 **우 장 순**



실제로 사진촬영을 진행한 것은 며칠 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면 다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진촬영 시작 전에 상인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애기도 하느라 꽤 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그의 방문도 그의 카메라도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을 때, 그는 비로소 상대원시장을 향해 그리고상대원시장 상인들을 향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상대원 플라자와 함께 묘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점들의 모습을 통해 상대원시장의 현주소랄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하나 하나 살펴 보던 중 그 사진들이 소통이 부재한 우리 나라 재래시장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 같아 가슴도 아팠고, ‘내가 아니래도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답답하기만 했단다. 그래서 그는 그 사진들 대다수를 바탕화면 속 휴지통에 던져 넣어야 했다.

“대왕숯불갈비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희망을 봤지요. 그 후 상대원시장 속에 점점 빠져 들면서 대왕숯불갈비 사장님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 상대원시장 속에서 희망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그에 따르면 대왕숯불갈비 사장님은 업종 쇠퇴기 마다 업종을 바꿔 꾸준한 성공을 이어 온 ‘업종변경의 달인’ 이란다. 업종 쇠퇴기 마다 굴하지 않고 업종 변경으로 이에 당당히 맞서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세상이 당연히 변해가는 것이라면 이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 오히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는가.

“사진을 다시 찍기 시작했어요. 상대원시장 상인들과 상대원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웃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말이지요.”

대표작가 우장순씨는 사진과 영상 같은 미디어를 통해 개인-개인, 개인-사회, 사회-사회간 소통을 모색하고 있는 우장순씨는 동네 주부모임과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자칭 ‘미디어 활동가’ 입니다. 이번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는 장수사진촬영, 웃음사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운동 시절 인연을 맺었던 노동자들과 함께 찾곤 했던 상대원시장을 아주 오랜만에 방문해 옛 추억을 되살렸던 것에서 이번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의미를 찾고 싶다고 합니다.





#### 아들에게 행복을 선물한 아빠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회사에 나가면 아빠를 볼 수 없데요. 그런데 전 하루 중 언제라도 아빠가 보고 싶을 때는 하루 중 언제라도 아빠를 볼 수 있어요.”



#### “화장발만은 아니예요.”

상대원시장을 찾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눈길을 돌려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영동건어물 사장님. 사장님의 고운 화장이 영동건어물의 트레이드마크라네요.



#### 성장

“우리 부부가 함께 한 세월만큼 쌍둥이처럼고추도 우리 쌍둥이도 자랐네요.”



#### 상인 그리고 상대원시장 사람들

자신의 가게를 가진 사람만 상대원시장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원시장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인수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대원시장을 이루고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 변하지 않아 더 아름다운 것들

“그 긴 세월 변함이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게를 쓸고 닦고 있네요.”  
그럼,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빨갈고 또 빠알간**  
 피자+시장피자+립스틱+얹치마=?



**장사하다 말고 러브샷**  
 “장사하다 중간에 마시는 술 맛이 어떤지 니들이 알아?”



**고기반찬에 담긴 행복**  
 ‘오늘 반찬이 뭐야?’ ‘고기반찬’  
 학교가 파할 무렵, 퇴근 후 집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닐까요.  
 이들이 산 고기로 만든 반찬을 기다리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설혹 그것이 노부부 단 둘이라 할 지라도  
 오늘 식탁은 노부부의 마음만큼 풍성할 겁니다.



**젊은이, 부자를 꿈꾸다**  
 주문 받은 고기를 저울에 올려 놓고 무게를  
 재며, 흐뭇합니다.  
 이래 저래 매출은 줄었지만, 이렇게 손님이  
 꾸준하면 찾아 들어도 곧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만두 한 개에 담긴 사연**  
 오늘도 어김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는  
 하나씩 정성스레 스티로폼 용기에 담는 명인만두 사장님.  
 만두는 포장할 때면 그 만두를 만들 때 들인  
 정성과 지난 세월이 생각나  
 꼭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 보기도 먹기도 좋은

“배고파.” “그럼, 떡 먹을래?”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왔다가 배고프다 칭얼대는 아이 때문에 떡 몇 개를 삽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가지런히 놓인 떡들을 구경하다 배고픔을 잊어버렸습니다.



### 건강만큼은 믿어라, 믿음건강원

“저, 건강해 보이지요? 우리 가게에 들르면 저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장미라+소병익 커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심심치 않아 좋네요.”



상대원시장에 다시 태어난 원다방  
차도 사람도 원다방을 향합니다.



### 음악에 빠진 DJ

‘원다방~ 사랑방~ 희미한 갈색 추~억~’





ㅎㅎㅎ

“언제 행복하냐고? 나야 늘 행복하지.”

호떡을 기다리며...

학원을 마치면 늘 한 번씩 들리고는 하는 호떡집. 하지만 바로 구운 호떡은 너무 뜨거워요.



그래도 궁금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님 한 분이라도 놓치면 안되는데... 누구야?’



길거리 간식은 내게 맡겨라

“하루 종일 맞는 기름냄새가 비싼 향수냄새보다 더 좋은 이유는 제 삶이 이 기름냄새와 함께 고소하게 튀겨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셔터와 웃음

“이거 이렇게 하면 찍히는 거 맞아? 나만 찍지 말고 옆에 계신 이 분도 좀 찍어줘.”



오랜만의 만남

“어머, 여긴 웬일이야?”  
“오랜만이네요.”





### 퇴근시간

상대원시장은 상대원 1,2,3 동이 모두 통하는, 그래서 상대원동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공간입니다. 특히 출, 퇴근시간이면 집으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빍니다.

“여기, 어디 채소가 싱싱해요?”  
“상대원시장을 지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 보세요. 오랜 세월 상대원시장을 지켜온 덕분에 알짜배기 정보가 많답니다.”



### 해가 뉘엿뉘엿

상대원동의 높은 언덕 덕분에 상대원시장을 통해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원시장은 상대원동 주민들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세상을 향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해 주는 통로입니다.



### 사진작가로 변신하다

“우리 가게도 한 컷 찍어줘. 아니다, 내가 직접 찍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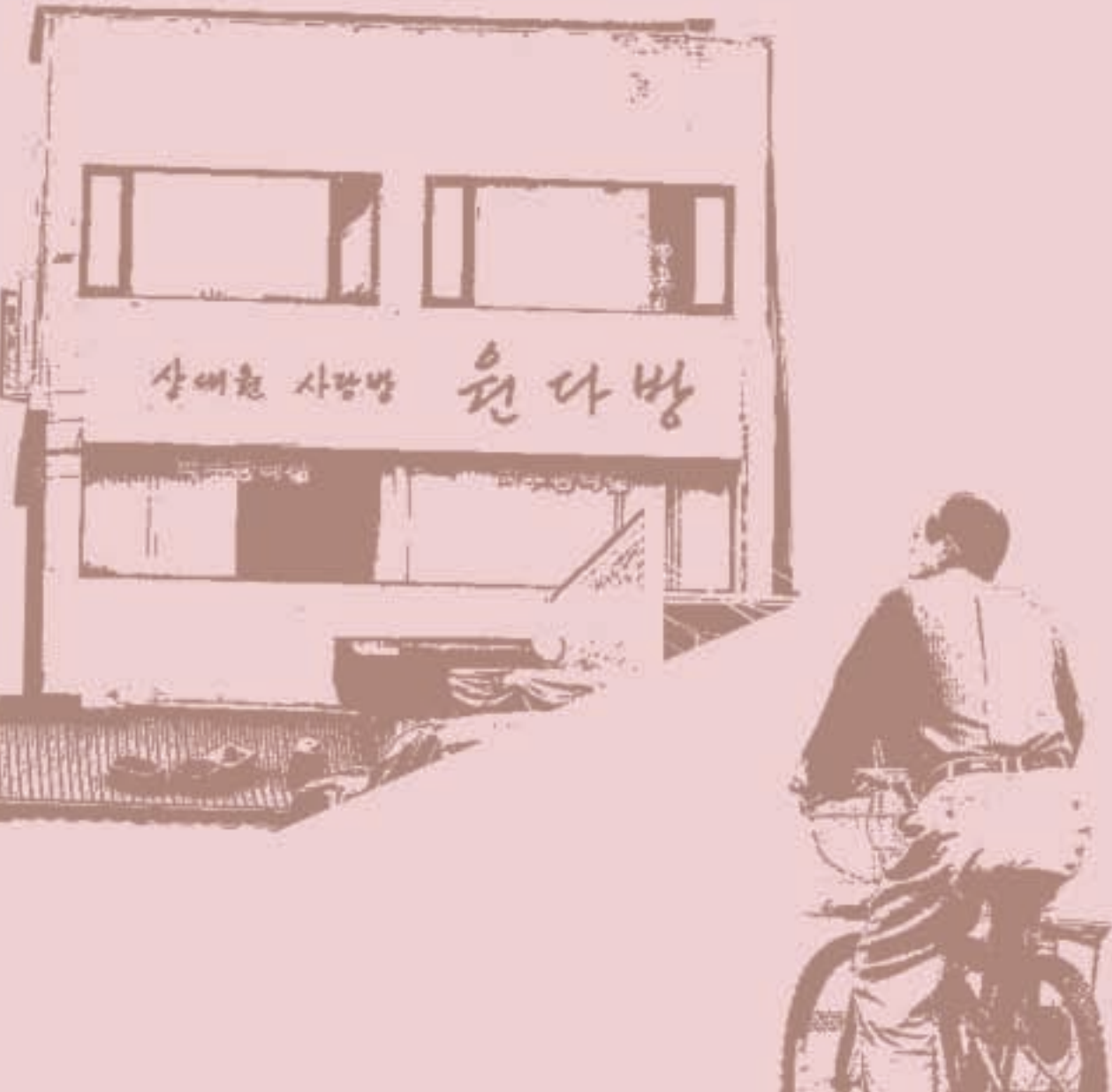


### 붕어빵의 행복

친구끼리 즐기는 길거리 간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소소한 기쁨 중 하나가 아닐까요?

3부

## 원다방 사람들





# 삶은 더불어 살아갈 때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박정숙 회장

몇 일 전 갑작스레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3~5살의 어린 자녀들을 둔 주부들의 모임이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이하 함주부)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못하겠구나’

하지만 이런 박정숙님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약속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품에 안거나 아이들의 손을 꼭 잡은 주부들이 하나 둘 나타나 작은 도서관이 엄마와 아이들의 온기로 훨씬 더 따뜻해졌으니까요.

“추운데 어찌왔어?”

“이 추위에 애를 데리고 갈만한 곳이 여기 밖에 더 있나요?”

그 말에 박정숙님은 ‘피식’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2년 전 자신 역시 작은 도서관이 주는 그 매력에 빠져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3~5살 아이를 둔 우리 나라 주부들은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디서도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환영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정숙님 역시 그랬습니다. 당시 2, 3살이던 두 딸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답답한 집에서 머물 수 밖에 없었던 박정숙님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함주부와 작은 도서관을 소개 받고 아예 작은 도서관 근처로 이사를 왔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은 지나 박정숙님의 두 딸은 이제 중2, 중3의 어엿한 숙녀가 되었지만, 박정숙님은 아직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함주부와 그녀들의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져 버린 탓입니다.

그런 박정숙님은 작년 9월부터 지역 예술가와 지역주민, 상인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지역 활동가로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정숙님의 가장 고민했던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주민,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꽤 힘들었지요. 특히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은 정말 많은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 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 상인들의 참여도는 낮았습니다. 문화배움터 등의 프로그램들은 대개 낮시간에 이뤄졌는데 이 때는 상인들의 한창 장사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람을 들 엄두는 아예 내지 못해 온식구가 나서서 하루종일 장사에 매달리는 탓에 좀처럼 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정숙님을 비롯한 사랑마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 참여할 수 있는 선무도와 같은 문화배움터를 개최하고,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와 함께 상품세일, 상품증정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상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냈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상대원플라자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상인들로부터 의자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아예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위한 차량 통제까지 직접 해 주시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원시장 상인과 함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박정숙님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대한 상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인 상대원시장을 만들기 위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박정숙님 살아가는 혹은 부대끼는 박정숙님의 삶이 있는 곳이며, 그 삶은 더불어 살아갈 때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DJ와 엔지니어분들은 다 이 동네와 시장이 좋고, 좋아하는 동네의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방송하는 것이 좋아서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이예요. 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부탁 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아참, 상인분들에게 한 말씀.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상인분들이 라디오 잘 듣고 피드백을 주셔야 해요. 이것도 부탁 드려요.”

## 상대원동아리 풍선핑

■ 풍선핑 김경희, 이경미, 신순심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의 출입구는 항상 아기자기한 풍선장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매년 이렇게 풍선장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 역시 항상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 있었습니다.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고 있는 한 권에서 사람들 정확히는 아이들에 둘러싸여 풍선장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들은 상대원동에서 풍선아티스트의 꿈을 함께 키워가고 있는 ‘풍선핑’입니다.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외에도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 풍선핑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원다방이 새단장을 마치고 난 날, 웃음사진전, 건강검진과 장수사진촬영 등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전 프로그램에서 풍선장식을 도맡아 한 이들이 바로 ‘풍선핑’ 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회장 박정숙)’에서 무료 풍선아트강좌를 열었을 때 만난 이들이 올해 초 ‘풍선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꾸준히 풍선아트를 배우고 익힌 결과 풍선아트 관련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는데, 이것을 발판으로 함께 아르바이트도 하고 1급 자격증도 준비할 겸 해서 다시 뭉친 것입니다.

“우리가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이라는 우리 동네의 한 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고 꿈을 키운 것이니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예요.”

그저 아마추어가 재미 삼아 하는 일이니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녀들은 풍선아트 관련 자격증 1, 2급을 취득한 전문 풍선아티스트로서 적게는 두 아이, 많게는 네 아이를 키우느라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녀들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경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과 겸해 학교 CA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돌잔치나 생일 파티, 학예회 등에서 풍선장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용돈벌이 정도는 되요. 또 풍선장식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주말에 진행돼 남편이나 시댁, 친정에 아이들을 부탁하기도 좋고요.”

아이들이 더 크면 좀더 적극적으로 풍선아트 관련 일을 해 볼 예정이라는 김경희님. 사실, 그녀가 풍선아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은 네 딸 때문입니다.

“딸들이 풍선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하나를 만들면 다른 녀석들이 자기들도 달라고 보채서 곧 같은 걸 여러 개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실력도 부족부쩍 늘었던 것 같아요.”

셋째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첫째 아이가 안 놀아준다며 우는 둘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손으로는 풍선을 꺾며 자신의 꿈을 말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당당한 커리어우먼, 풍선아티스트의 미래를 확인합니다.



신순심

“저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호스피스 교육도 받았어요. 이것이란 풍선아트 자격증을 접목 시키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 분들이 직접 풍선장식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 보면 풍선장식이 하나 하나 완성되어 가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신순심님이 풍선을 좋아하는 이유는 풍선에는 행복한 마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 셋이 풍선아트 공부 겸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와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아져서 배움도 깊게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경미

김경희님 옆에 앉아 김경희님과 같은 하트 풍선장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경미님은 풍선아트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분입니다. 김경희님과과는 달리 풍선아트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일하는 여성’을 그리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무엇을 배울 때는 목적이 있어야 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좋아하는 풍선아트를 통해 돈벌이도 할 수 있다면 1석2조이지 않나요?”



풍선평에게 풍선장식을 부탁하거나 함께 풍선아트를 배우고 익힐 분들은 다음 카페 풍선평(<http://cafe.daum.net/balloon-pop>)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초보분들은 곤란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함께 풍선아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분들을 찾습니다.

#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나의 희망도 심습니다

■ 상대원시장 부흥기물 조길연



“글쎄, 그게 언제더라…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 아마 1992년 즈음일 게야.”

설, 추석 등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때 혹은 돈 만지는 재미에 장사 힘든 줄 몰랐던 때가 언제냐고 여쭙니 되돌아 온 말입니다. 상인으로서 대목을 앞둔 설레임,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앉아 그 날 매상을 정리하며 함박웃음을 짓던 그 때, 그리운 그 날이 다시 올까요?

분당 신도시에 분양 받은 48평짜리 아파트 값을 근 2년 만에 모두 벌었을 정도로 당시에는 정말 장사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날로 쭉쭉욱 자라나는 가게와 자식들을 보며 꿈도 참 컸습니다. “은행,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하나도 안 부러웠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자라서 혹여 제 밥벌이 잘 못해도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 부흥상회를 물려 주면 되니까. 그 때만해도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였지.”

근 30년 동안 여름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갔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조길연님은 두터운 오리털 파커와 난로에 의지한 오전 내내 1천원짜리 빗자루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나마 약한 빗자루가 걱정되어 이음새 부분에 못을 세 개나 박아 팔았으니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식의 미래를 꿈꿀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그 판 것 즈음은 없어도 노후생활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잘 돼 퇴직금처럼 권리금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는데 이제 권리금은 옛말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앞으로 5년이 고비야. 5년 뒤 이곳도 재개발이 될 예정인데, 아마 재개발이 가시화 되면 장사가 더 안될테니까.”



지난 11월 23일, 올해의 마지막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아침부터 조길연님 자신의 차를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개최될 장소에 세워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개최될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개최될 시간 즈음에는 판매 중인 플라스틱 의자를 넉넉하게 꺼내 놓아 보다 많은 관객들이 편안하게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원시장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한숨을 토하면서 이렇듯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그 어떤 상인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길연님. 사실, 그에게는 상대원시장이 그 옛날처럼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빨리 그 희망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잇속에 민감한 것이 상인들이야. 따라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상인들의 장삿속에 맞지 않는다는 뜻도 되지. 하지만 난 말이지.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데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부흥상회를 통해 내 자식들의 미래를 꿈꿨던 것처럼…”

이와 함께 조길연님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좀더 많은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원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면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과일, 야채, 생선처럼 날마다 사 먹는 1차 상품들이 먼저 경쟁력을 갖춰야 해. 그 방법을 한 번 즈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 문화예술과 장사를 함께 고민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인근에 상대원공단 노동자들이 우리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없을까? 보니까 노동자들의 패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쪽에서 유치하는 고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옛날처럼 그 사람들만 상대원시장을 이용해도 우리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상품의 질과 가격. 그 어떤 것을 마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단골가게 만드는 재미에 가게주인과 친해지는 재미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재래시장, 특히 상대원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 만두와 진빵 그리고 순댓국

지난 12월 23일에 있었던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2009년 마지막 방송 날,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귀에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DJ들의 목소리보다 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두우리순대국의 윤여덕님. 익숙하고 구수한 목소리로 사는 이야기를 전한 윤여덕님을 찾아 지난 방송에서 못 다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상대원시장 두우리순대국 윤여덕(57)

“예전에는 잠시 짬이 나도 이렇게 누워있질 못했어. 가게 문을 열고 나가 손님들을 불러 모아야 했거든.”

갑작스런 작가의 방문에 놀라 몸을 일으키며 윤여덕님이 한 말입니다.

지금이야 손님이 뜸할 때는 가게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편안히 누워 TV를 보기도 하지만 한 때 그녀는 잠시라도 엉덩이를 붙일 사이 없이 바빴습니다. 일찌감치 남편을 여윈 그녀가 1남1녀를 온전히 대학공부 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늘 가게 앞에 서서 상대원시장을 가득 메운 행인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짓까지 해 가며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고자 노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들 대학 보내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본데다 어머님까지 저 세상으로 가시니까 이제 더 이상 돈 욕심이 없어졌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대원시장에서 돈푼 꽤나 벌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그녀.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좀 쉬면 어떻겠냐는 물음에 손사래를 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자기 한 몸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던 그 때의 추억이 남편의 흔적이 상대원시장에 귀퉁이 마다 남아있어 아직은 상대원시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난 것은 20살 봉제공장의 여공으로 일하던 시절 다니던 공장근처의 만두가게입니다. 그 뒤 시쳇말로 사랑에 빠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순탄치 않아 결혼 후 남편 하는 일 마다 실패했고,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할 때 즈음 그녀는 아이 낳을 돈이 없어 집에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낳은 아이들의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남에서 만두와 진빵을 만들어 팔던 시아주버님이 ‘아이들까지 굶길 셈이냐?’며 ‘밥은 먹어줄 테니 이곳(성남)으로 내려와라’고 해서 이곳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성남으로 내려 온 뒤 남편은 시아주버님에게 만두와 진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녀는 이런 남편을 도와 집에서



만두와 진빵을 만들어 상대원시장에서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입니다. 그의 자리가 바로 현재 ‘고추와 마늘’이 위치한 곳으로 당시에는 과일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노점은 날로 장사가 잘 돼 어느새 가게 하나를 얻을 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졌지만 과일가게는 과일가게 이후로도 가게주인이 몇 번이나 바뀔 만큼 이 자리는 장사가 안됐습니다. 덕분에 건물주의 고민은 날로 늘었고, 건물주가 하는 수 없이 싸게 내 놓은 그 가게는 결국 그녀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가 저 가게를 얻자고 말했더니, 돈이 어데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매일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제법 됐지.”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 나쁜 일도 생기는 법. 새로 얻은 가게에서 제법 돈 세는 재미를 느낄 때 즈음 남편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집 와 남편과 시댁식구들 때문에 고생한 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해. 가게를 얻어 장사하는 동안에는 경제권 한번 가져보지 못했고, 남편 외도에 손찌검까지 겪어야 했는데…근데 어느새 훌쩍 자라 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원망이 없어지더라고. 남편이 없었으면 저 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내 곁에 있을 수 있겠어.” 그녀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가 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던 만두와 진빵을 팔지 않고, 순대국집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너무 맛있고 가게 하나를 얻을 만큼 두둑하게 그녀의 주머니를 불러 주었던 만두와 진빵을 왜 그녀가 포기하게 됐는지 말입니다.

“남편 유언이야. 다시는 만두와 진빵을 팔지 않았으면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내 만두와 진빵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순대국과 곱창을 기억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만두와 진빵은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있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랑일까요? 아니면 눈물일까요?

#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그 뒷 얘기





# 원다방 운영위원회

향후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을 운영해 갈 주체를 세우고, 이 주체가 원다방을 운영할 때 기본운영지침이 되는 회칙을 만들고자 했던 모임입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11월 ~ 2010년 1월 중 3회

■ **참석자** : 김국남(상대원시장상인회 회장),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박정숙(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유근주(시의원), 이재근(통장협의회회장), 이종필(성남문화재단), 장미라(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국장), 조길연(상대원시장상인회 총무이사, 부흥상회), 지관근(시의원), 한유진(사랑마루 상대원팀장), 상대원시장 대왕숯불갈비 (이상 가나다순)



## 첫 번째 모임

사랑마루 한유진 상대원팀장의 제안으로 <원다방 운영위원회>의 운영주체와 회칙을 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 모임은 <원다방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원다방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상대원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11월 05일

■ **주제** : 원다방 운영위원회를 제안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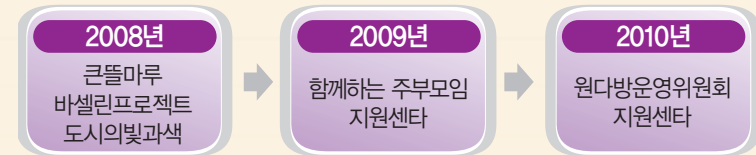
■ **제안자** : 한유진 사랑마루 상대원팀장

## 운영위원회의 제안배경 작성진: 한유진

- 2008년 시작된 원다방 프로젝트는 전문단체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전문단체에 의한 프로그램 실행은 단기적인 성과는 있으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공간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원다방이 실제 상인들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가능하며, 진정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는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들과 상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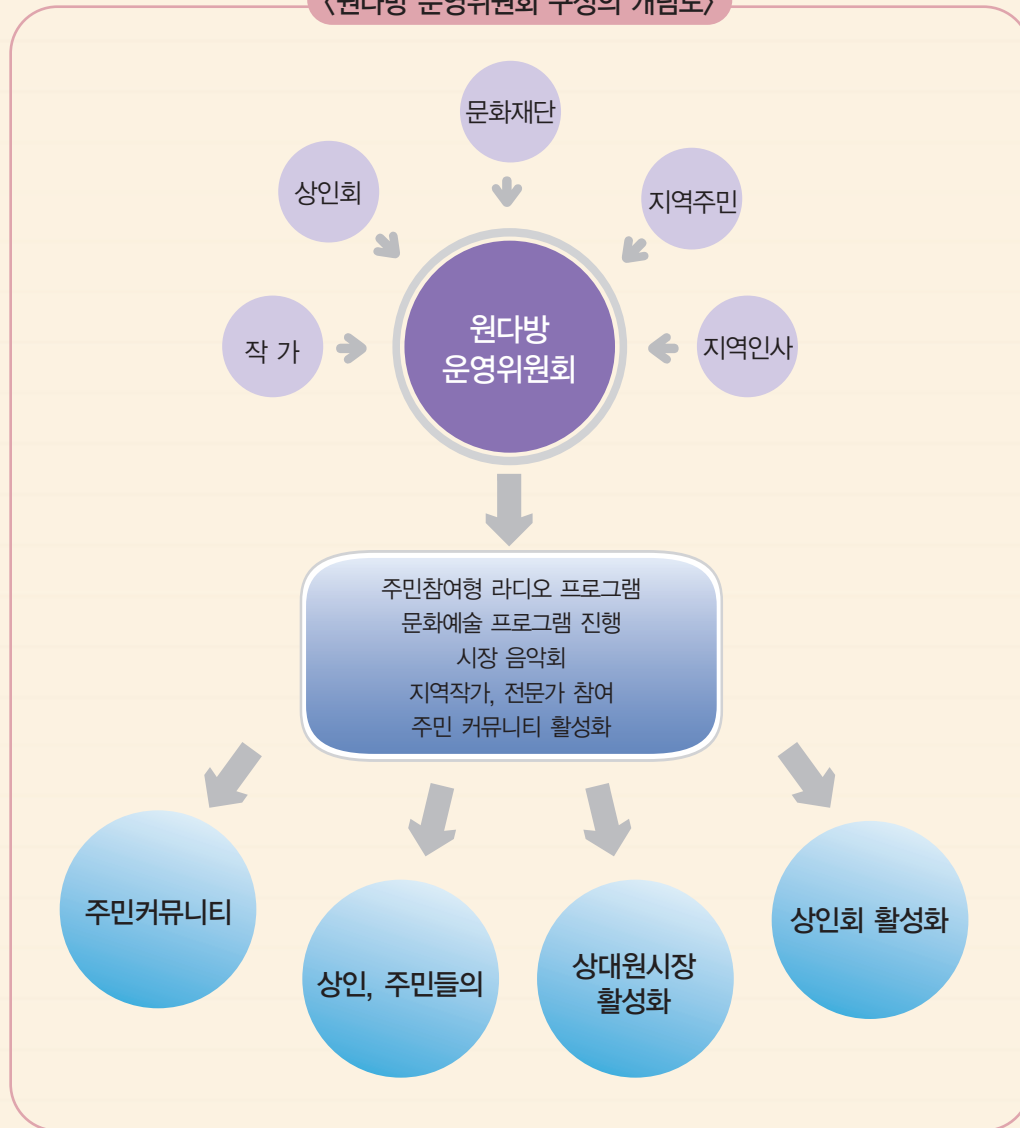
## 원다방 운영의 흐름과 발전전망

- **구성**(총 10인 내외로 구성)  
상인회(3인), 지역주민(2인), 지역인사(3인), 문화재단(1인), 지역작가(1인)
- **체 계**  
운영위원장, 관리실장, 총무, 라디오실장, 문화예술코디네이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운 영** - 2개월 1회 운영회의의 진행
- **논의내용** - 원다방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  
- 문화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  
-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 라디오 프로그램 운영과 확대 방안  
- 시장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원다방 운영위원회 구성의 개념도〉



그 외 논의내용

그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성남문화재단과 지역활동가들은 〈상대원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랬습니다. 그 날 논의되었던 내용 중 일부를 싣습니다.

**박정숙(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지역활동가) :** DJ 하는 법부터 엔지니어링까지... 올 한 해는 '라디오 방송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실수는 많았지만 이렇게 해서 〈상대원 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또한 제가 진행했던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에 대한 상인들의 참여, 호응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상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 아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가 〈원다방 운영위원회〉 준비하고 꾸리는데 있어 상대원시장 상인회는 물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님, 특히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얻어 주세요. (웃음)

**이제근(상대원 3동 통장협의회 회장) :** 네~. 먼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가 지난 두 해 동안 성공적으로 이뤄져 〈원다방 운영위원회〉를 꾸리는데까지 이르렀다는데 대해 프로젝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다방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 및 지역주민들과 융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계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라(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국장) :** 그런데 솔직히 저희끼리만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의 장소문제만 해도 처음에는 서로 장소제공을 안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같은 장소만 고집한다고 하니...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 지난 해 제법 큰 규모의 〈상대원시장 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무대설치와 관련해 무대 뒤 쪽 상가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자신들의 가게가 무대 때문에 가려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상대원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상대원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례지만 우리가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상인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상대원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미리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두 번째 모임

원다방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회칙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 진행일시 : 2009년 11월 19일
- 주제 : 원다방 운영위원회 회칙

## 세 번째 모임

마침내 원다방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일시 : 2010년 2월 4일
- 주제 : 원다방 운영위원회 구성

### 원다방 운영위원회

- 공동운영위원장 : 조길연(상대원시장상인회 총무이사, 부흥상회 사장)  
이제근(상대원3동 통장협의회 의장)
- 자 문 위 원 : 유근주(시의원), 지관근(시의원)
- 실무위원회 : - 실무위원장 : 박정숙(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 방 송 국 장 : 장미라(시인 겸 시낭송가)  
- 참 여 작 가 : 한유진, 정상무

조길연(상대원시장상인회 총무이사, 부흥기물) :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날이면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개최될 장소에 미리 제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제 차를 이동할 만큼 말입니다. 의자도 미리 갖다 놓지요. 저처럼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라디오가 들리는 것조차 싫어서 라디오를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작은 이익과 이해관계에도 금세 태도를 바꾸는 특징을 지녔으니만큼 이 프로젝트의 효과가 날로 나타나면 점차 저처럼 적극적인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근(상대원 3동 통장협의회 회장) : 인사동 거리, 명동 거리에 왜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 적극적으로 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니 사람들이 차 대신 사람들이 넘쳐 나는 겁니다. 상대원시장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다음 번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는 장소 걱정 없이 상인들 불만 없이 상대원시장 그 극어디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역주민들 중에 상대원시장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상인들이지.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 네, 다음 번에는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 없는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한 번 만들어 보지요.

박정숙(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회장, 지역활동가) : 초기에는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몇몇 상인분들이 나서 차량통제도 해 주고, 의자 놓을 곳 공간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서 점점 더 나은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은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부장) : 한유진 팀장님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원다방 운영위원회> 회칙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음 번에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어떨까요?



## 송년회

“원다방에서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법 찬바람이 불던 날 지난 12월 16일 늦은 저녁. 원다방이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여 명의 사람들이 원다방에 꾸역꾸역 모여 들었으니까요.

무슨 일일까요?

이 날은 <‘2009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마음을 기념하며, 상대원시장 상인들과 함께 <‘2009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그 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송년회입니다.

송년회를 위해 우리 줌마DJ들은 김밥, 과일 샐러드, 닭강정, 떡, 샌드위치, 잡채, 전 등 정말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찌감치 모여 과일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만들고 전까지 2종류 부치느라 하루 종일 부산했습니다. 이외 나머지 음식들은 상대원시장의 상인들이 손수 만들어 주신 거랍니다.

“소주는 없어요?”

“네, 막걸리만 있어요.”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의 박정숙님은 막걸이 팬입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준비하는 모임에서 술은 언제나 막걸리 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시장이 아닙니까. 채 5분이 되지 않아 막걸리 사발과 함께 소주잔이 테이블을 돌아 다니기 시작하고, 서서히 취기도 오릅니다.

올 한 해 꼭 해야 할 그러나 다 못한 얘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동안, 어느새 원다방에 놓인 테이블은 엉덩이 하나 더 비비델 곳 없이 꼭 들어 찹니다.

그 즈음 <상대원시장 24>라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성남미디어공동체 늘봄’의 영상작가들이 1박 2일 상대원시장에 머물며 촬영하고, 다시 밤을 세워 편집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대원시장을 이 영상에 담던 날, 상대원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연 주인공은 손두부마을.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 싶더니 방금 나온 손두부가 진열되면서 손두부마을이 본격적인 장사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제 모습을 채 드러내지 않은 어둑어둑한 아침, 손두부에서 피어 오르는 연기와 손두부마을의 땀방울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인 듯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상대원시장의 가게들이 문을 열고, 상대원시장의 상인들은 30년 전에도 그러했고 어제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한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상대원시장은 오늘 새벽처럼 다시 어둑이 드리웁니다. 그 어둑을 깨고 등장한 쓰레기차 쓰레기차가 상인들이 저마다 가게 앞에 놓은 쓰레기를 치워가자, 상대원시장은 다시 온전히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상대원시장 24〉가 끝나자, 이 책의 작가인 제가 찍고 늘봄의 윤혜숙 작가가 편집한 사진들이 다시 스크린을 채웁니다. 프로그램들이 하나 하나 진행될 때는 몰랐는데, 지난 1년여 간 상대원시장에도 원다방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 났습니다.

영상과 사진에 담겨 지난 1년이 빠르게 우리들의 눈과 귀를 스쳐 가고, 아쉬움과 희망 속에 몇 번의 건배 제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노래자랑 시간.

처음에는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관계자들도 상대원시장 상인들도 서로 서먹하여 차마 노래방 기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분 두 분 용기를 내어 한유진님에게 노래신청을 하고 노래방 기계 앞으로 나서더니 어느새 신청곡이 A4용지 한 장에 가득찼습니다. 덕분에 한유진님은 노래 예약을 하고 노래방 기계를 조작하느라 노래방 기계 앞을 떠날 수 없이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눈 앞에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채 저녁식사도 건너 뛰어야 했습니다.

취기에 한껏 흥까지 오르자 노래에 맞춰 한 명 두 명 춤을 추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야 더 많은 눈치이지만 원다방에 꼭 들어찬 테이블 때문에 엉거주춤 엉덩이만 들썩입니다.

이제 테이블을 치워야 할 때가 옵니다. 모두 힘을 합쳐 테이블들을 원다방의 한쪽 구석으로 몰아 내고 두 다리 두 팔을 신나게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를 끝으로 송년회는 그렇게 흥겨운 춤사위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곧 다시 만나 한 번 더 신명 나는 놀이마당을 만들겠노라 약속하면서...

덕분에 올해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마침표도 흥겨움에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은 물론, 〈상대원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지역주민과 상대원시장 상인들이 모두 어울려 큰 어울림을 만들어냄으로써 원다방에서는 내일도 모레도 꼭 무슨 일이 더 일어날 같은 마음이 듭니다.



## 작은 발표회

올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사랑마루의 도촌동팀, 상대원시장팀, 수진동팀, 은행동팀은 지난 12월 17일 수진동성당 1층에 위치한 카페 엔젤스에 모여 작은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작은 발표회에서는 각 팀이 그간 진행했던 문화활동의 결과물들이 전시, 공연되었는데 그 중 상대원팀이 진행했던 내용만 담습니다. <편집자주>

- 진행일시 : 2009년 12월 17일 오후 6시
- 장소 : 사랑방 7호 수진동성당 (카페 엔젤스)

### 그 누구보다 돋보였던 우리 줌마 DJ들!

작은 발표회의 문을 연 것은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줌마 DJ인 박신명, 박인자님입니다. 덕분에 박신명, 박인자님은 일찌감치 엔젤스에 도착해 대본을 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부의 문을 연 것 역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줌마 DJ인 이길순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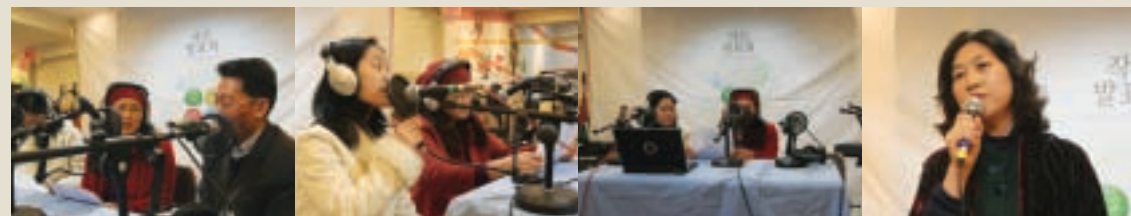
2부가 시작되고서도 아이들은 좀처럼 자기들 이야기를 멈출 줄 모릅니다. 이에 이길순님은 엄하게 그러나 이길순님 특유의 목소리로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나 둘 이길순님 주위로 모여 들었고, 이길순님은 그제서야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기획, 진행한 성남문화재단의 박승현 부장님이 초대됐습니다. 박 부장님은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들을 하나 하나 풀어 놓았습니다. 뒤를 이어 노래를 틀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길순님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방송장비를 다루는 것은 아직 무리인가 봅니다. 결국 이길순님은 노래틀기를 포기하고 직접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어느 유명가수의 노래보다 훨씬 듣기 좋습니다.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의 국장인 장미라님의 시낭송도 두어 번 있었습니다. 장 국장님은 '유치환의 행복' 등을 장 국장님 특유의 낮고 깊은 소리로 읊어 주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자 한참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줌마 DJ들의 활약상은 돋보였습니다. 방송부터 시낭송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차고 넘치지 않는 것이 없는 우리 줌마 DJ들. 내년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한편 이 날 상대원동 팀장인 한유진님과 <보이는 어린이 라디오>와 <미디어 이야기 공작소>에서 강사로 활동하신 윤혜숙님은 이 날 참석자들의 사진을 일일이 찍어 예쁜 열쇠고리를 만드느라 작은 발표회 내내 바빴습니다. 덕분에 이 날 참석자들은 꽤 오랫동안 이 작은 발표회를 잊지 못할 겁니다. 가방에 혹은 핸드폰에 달린 열쇠고리가 늘 작은 발표회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올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잊지 못하게 해 줄 테니까요.





# '2009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진행일지

## 2009

2월 22일	OBS 경인방송 '경인포커스_문화가 흐르고 예술이 빛나는 성남 상대원시장' 방송
2월 24일	KBS 제1TV '6시 내고향_명석을 빌려 드립니다 우리 시장 방송국 원다방' 방송
5월	김해시청 직원들+김해시 재래시장 상인들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견학
5~7월	선무도
5월 30일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개최
7월 24일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개최
8월	비전성남 8월호 '장도 보고 음악도 듣는 일석이조의 공간 상대원시장' 으로 게재
8월 5일	ABN아름방송 뉴스현장 '문화공동체 꿈꾸는 상대원시장' 방송, 뉴스 '신나는 상대원시장' 방송
8월 4일	소금반 개강
8월 5일	기타반 개강
8월 10일	<보이는 어린이 라디오> 개강
8월 17~31일	방송장비와 스피커 점검을 위한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휴방
8월 24일 ~ 9월 25일	<1인아나듀오양성과정> 개강
8월 28일	<상대원시장 작은 음악회> 개최
9월 21~29일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 리모델링
9월 21일 ~ 12월 22일	<미디어 이야기 공작소> 개강

9월 25일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개국 1주년 기념 공개방송
10월 12일	RTV '신나는 미디어, 힘되는 미디어_1인아나듀오양성' 방송
10월 23일	사랑방문화클럽과 함께 하는 <상대원시장 가을잔치_작은 음악회, 웃음사진전, 건강검진, 장수사진촬영> 개최
	삼성SDS 사회봉사단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대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될 신청곡을 받고 신종플루예방용 손소독제 기증
10월 28일	울산MBC '삶을 디자인 하다'
11월 5일	<원다방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11월 19일	<원다방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12월 3일	가칭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을 위한 사랑마루 워크샵, 원다방에서 개최
12월 16일	상대원시장 상인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
	소식지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2호 발행
12월 17일	<작은 발표회> 개최<상대원시장 신나는 라디오 방송국> 공개방송, 시낭송반의 시낭송

## 2010

2월 20일	'2009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상대원시장 발간
--------	----------------------------

# 언론에서 본 <상대원시장 프로젝트>

비전성남 8월호

장도 보고 음악도 듣는 일석이조의 공간 상대원시장

장도 보고 음악도 듣는 일석이조의 공간

‘상대원시장’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방송국 사람들



##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엔 작은 음악회 열어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복떡집에서 떡 1팩을 2천 원에서 1,500원으로, 평택신발 합동신발에서 왕창세일을 합니다. 오복반찬에서 오징어젓갈, 새우젓갈을 3천 원에서 2천 원으로, 부흥상회에서 빈 화분을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원시장(상대원 2,3동 소재)은 작은 음악회와 함께 할인하는 점포를 마이크로 소개한다. 이곳에서 노래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송과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찾아갔다.

“상대원시장에 오면요, 오며가며 방송도 들을 수 있고 직접 만든 어묵도 살 수 있고요, 정갈하게 만들어 파는 밀반찬도 정말 맛있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하대원 아튼빌에서 왔다는 최모 주부의 말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원다방 사랑방 신나는 방송국’(국장 장미라·기술 양희정)이란 타이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상인과 소비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고 있다. 물론 방송인들은 모두 아마추어로 주부들이다. 매주 뉴스와 책을 읽어주고 신청음악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하루 3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방송하는 시장은 전국에서 상대원시장이 처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 음악회 하면서 희망점포 할인행사도

상대원시장상인회(회장 김국남)가 주최하고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이 주관, 성남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사랑방문화클럽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상대원시장 작은음악회’는 1시간 30분 정도 공연을 하면서 희망하는 점포에선 3시간가량 할인행사도 함께 갖는데 방송하는 주부들이 직접 할인행사를 홍보해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공연시간엔 사랑방문화클럽 회원, 지역가수 등이 출연하고 상인들도 함께 참여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한마음이 돼 박수 치며 좋아하는 모습은 상대원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모습들이다. 직접 농사지은 깻잎 몇 단을 앞에 놓고 하루 종일 시장바닥을 지키는 노파의 모습에서, 콩나물 한줌이라도 더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에서도 사람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오는 9월 16일엔 사랑방문화클럽축제기간 ‘찾아가는 음악회’로 클럽 회원들과 함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지만 출연자와 소비자, 상인들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송과 작은음악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길순 기자



## ABN아름방송

[ 뉴스현장 ]

### 문화공동체 꿈꾸는 상대원 시장

방송일 : 2009-08-05



앵커 : 대형 상가와 백화점이 늘어나면서 재래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문에 재래시장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공간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겠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민선 기자.

기자 : 네, 상대원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 상대원 시장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했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대원 시장에 간략히 소개를 하겠는데요, 상대원 시장은 지난 1970년대에 상대원 공단이 형성되면서 공단 주변에 들어서게 된 마을과 함께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로 모란 시장을 잇는 성남의 대표적 재래시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신도시인 분당 들어서면서 상대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도시의 발달과 함께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일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재래 시장은 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남문화재단은 이 곳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앵커 : 네, 문화공간과 재래 시장의 만남이라니 참 독특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원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기자 : 상대원 시장의 변화는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의 시장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지난 9월 20일 추석행사를 시작으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상대원 시장 한 켠에 '원다방'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도 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역 예술가들이 상대원시장과 각 점포를 꾸미는 등 상대원 시장만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상대원 시장을 그 씨앗으로 삼아 성남시의 모든 재래시장이 문화 공동체 만들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선입니다.

[ 문화 ]

### 신나는 상대원 시장

방송일 : 2009-08-05



앵커 : 대형 상가와 백화점이 늘어나면서 재래 시장을 찾는 발길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 시장들이 변신하고 있는데요, 문화 공간을 갖춘다면 금상첨화겠죠. 서민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난 나른한 오후 시간, 정겨운 시그널 뮤직이 흐르고 DJ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매일같이 상대원 시장에 나지막히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상대원 시장 한 켠에 자리잡은 원다방은 오래 전 시내 곳곳에 있던 다방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원다방'은 상대원동에서 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 곳 사람들의 가슴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은 공간입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로 원다방을 추억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상대원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원다방에는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원다방에는 상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의자와 테이블이 있고, 사랑방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쪽에 마련된 부스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으로 작년 9월에 시작해 사람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언제나 와서 차와 함께 담소도 나누며 문화 공동체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지난해 완료한 상대원시장 프로젝트는 시장 곳곳에 문화 향기를 심어주는 것이 목표, 가게 마다 달려있는 개성 만점 간판과 등불은 상대원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인터뷰〉

김복만(상대원 시장 상인)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상대원 시장은 다시 한번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기자 : 상대원 시장을 통해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질 우리동네 문화공동체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ABN 뉴스 서민선입니다.

## 신나는 미디어, 힘되는 미디어

방송일시 : 2009년 10월 12일

8월과 9월에 걸쳐 성남 상대원시장 원다방(공동체 모임공간)에서는 1인아나듀오를 꿈꾸는 줌마DJ들을 위한 라디오 교육이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하는 법에서부터 스튜디오 기계 조작까지 하나씩 익혀나가며 멋진 라디오 진행을 꿈꾸는 줌마들, 그녀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충만했던 교육현장을 살포시 들여다 보았다.

이번 신힘(신나는 미디어, 힘되는 미디어)을 만들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이 분들이 왜 라디오교육을 배울까였다. 성남 상대원시장 원다방에서는 현재 라디오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라디오방송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뭐가 아쉬워서 또 교육을 받으시는걸까?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유는 알게 되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라 수업에 대한 열정이 더뜨거웠던 것 같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서 꼭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딱딱한 이론수업조차도 손이 쉬지 않을 정도로 빼곡히 필기를 하셨다. 지금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였던 참여자분들, 매 수업이 알차고 재미있게 진행되었고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도 너무 뜨거웠는데 10분 내외의 시간 안에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프로그램 만들기와 광고 기획 차시만으로 더 알찬 영상을 만들 수 있을었을 것 같은 안타까움도 남고, 9월 25일에 공개방송을 한다고 하였는데, 잘 되었는지...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통해 더 멋진 아나듀오로 거듭나셨는지 한 번 찾아가고 싶다.